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제 8 권 제 1 호 (통권 40 호)

1986. 2.

특 집 1986年度 主要 事業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개발

제 8 권 제 1 호 (통권 40 호)

1986. 2

한국교육개발원

■ 卷 頭 言 丙寅年 새해를 맞이하여.....金永植... 3

■ 論 壇 教育放送 活性化에 대한 念願辛世浩... 5
 證據와 推理.....朴文泰... 8
 初·中等學校의 地域間 教育與件 不均等.....金在雄... 12

□ 特 輯 : 1986 年度 主要事業

○ 5 次 教育課程 試案의 開發을 앞에 놓고郭柄善... 21

○ 中學校 3 學年 學習不振學生을 위한 프로그램 開發研究朴文泰... 26

○ 國民學校 進路教育 研究·開發.....韓勝熙... 29

○ 大學定員의 適正化姜武燮... 31

○ 主要國의 教育制度 改革動向崔榮杓... 33

○ 教育行政의 自律化方案鄭贊永... 35

○ 教育財政의 效率的 配分方案.....孔銀培... 37

○ 教員資質向上 및 處遇改善方案 研究朴德圭... 39

○ 韓國教育政策의 理念分析研究(第 2 次年度)鄭永壽... 41

○ 特殊教育 振興方案 研究尹點龍... 43

○ 韓國人의 教育觀.....裴天雄... 45

○ 平生教育 振興方案 研究趙錫浩... 47

○ 教育施設 國際比較 研究.....崔清一... 50

○ 教育放送 活性化 方案研究.....洪基亨... 52

○ 컴퓨터 教育強化 方案研究李相珞... 54

■ 教育學理論

自然的 探究의 信賴價值度 查定을 위한 準據探索(Ⅱ).....張錫敏 외...57

■ 研究報告	授業 및 教科書 体制改善 研究.....權致純... 61
	放送通信高等学校 學生을 위한 基礎學力 프로그램 開發.....朴仁鍾... 66
■ 教科教育	硬筆書藝의 指導方法尹亮熙... 72
■ 現場教育 研究	漢文科의 構造的 學習指導南大祐... 78
	TV教育 프로그램 活用을 통한 發表討論 指導事例全炳教... 83
	統一安保教育의 特性과 指導方法宋寅誠... 86
■ 海外教育 情報	教育·産業化 및 技術發展에 관한 세미나를 다녀와서崔清一... 93
■ 教育放送	教育放送 示範學校 運營結果崔武英... 98
■ 現場教育 相談	外國教育課程改革의 動向에 대하여28
■ 社會淨化 103
■ 院內動靜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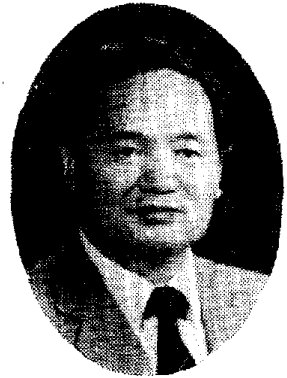
↑ 1986년도 본원 시무식 광경 '86. 1. 4(강당)



↑ NHK 관계자 본원 교육방송본부 시찰차 방문 '85. 12. 28(부원장실)

丙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新年辭에서—



院長 金 永 植

丙寅年 새해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敎育開發院 職員 여러분과 家庭에 健康과 繁榮이 가득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1986年 새해는 韓國敎育開發院이 一大刷新의 轉機로 삼는 해가 됩니다. 維持主義에서 一大革新主義로 탈바꿈하는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一大革新은 安住하거나 安易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點을 우리는 認識해야 합니다. 우리 院이 더욱 더 發展하고 繁榮을 期하려면 安住와 安易에서 오는 타성을 果敢히 벗어 버려야 함을 뜻합니다. 새로운 意欲과 새로운 構想으로 우리 敎育을 先導해야 할 使命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敎育開發院의 存在意義와도 부합되고 敎育發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先導的 役割은 決코 安易한 마음가짐이나 타성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使命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今年은 研究·開發·制作의 風土를 쇄신하는 해로 삼겠습니다. 風土의 쇄신은 우선 開拓精神에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研究나 새로운 開發事業을 展開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우선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몸가짐부터가 重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몸가짐이 없이는 風土의 쇄신은 이룩되지 않습니다. 研究院의 生存과 번영은 바로 이러한 데서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론, 새로운 연구, 새로운 作品의 첫출발부터가 바로 새로워져야겠다는 決意가 없이는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자 고민하고 애를 쓸 적에 새로운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자 또는 만들고자 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것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보인다 해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새롭고 보다 더 훌륭한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쓸 적에 비로소 새로운 구상이 나타나고 새로운 作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우리의 옛말이 조금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찾으려고 애를 쓰고 궁리를 하는 곳에 길이 있고 틈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才能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새롭게 해 보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안 한다면 거기에는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開發院의 참

모습입니다. 새로운 理論, 새로운 內容, 새로운 方法, 새로운 作品을 꾸준히 내놓을 때 우리는 名實 共히 世界的인 研究所가 되는 것입니다. 또 自他가 인정하는 專門人 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안 문제의 解決策을 찾을 때마다 새로운 突破口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突破口(Breakthrouhh)를 찾지 못하면 發展이 없습니다. 馬車가 증기기관차로, 프로펠러 비행기가 제트기로, 음속이 초음속으로 되는 데에는 突破口가 새롭게 마련 되었다는 사실을 外面해서 안 됩니다. 突破口를 마련하는 데는 아픔과 精進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아픔과 피나는 進精 없이는 새로운 突破口, 즉 새로운 理論, 새로운 內容, 새로운 方法, 새로운 作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教育開發院은 他의 추종을 不許할 만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놓고, 새로운 것을 試圖할 적에 생존과 번영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거나 진성으로 일에 임하거나 말은 바 일을 副業視하거나, 업적보다도 경력과 학력을 내세우거나 해서는 秀越性을 지향하는 研究機關이 될 수가 없습니다. 秀越性이 죽을 때 凡庸性이 그 빈 자리를 채워 나가게 되고 凡庸性이 支配할 때 그 機關의 번영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곱힐 줄 모르는 의욕을 가지고 일에 임할 때 비로소 생존과 번영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開發院은 國內外的으로 認定을 받게 되고 專門性에 있어 公信力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教育研究와 開發分野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最優秀의 位置를 굳히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요 다짐입니다.

둘째는 人和團結입니다. 아무리 才能이 많다고 해도 힘이 모아지지 못하고 分裂이 된다면 우리가 뜻하는 바를 達成하지 못합니다. 한결같이 뭉치고 우리 院을 사랑하고 적극 방어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해 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일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서로 험뜯고 경계하고 시기하는 곳에서는 결코 훌륭한 作品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싸주는 곳에는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서와 부서 사이에 높은 장벽을 쌓아 폐쇄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專門人力들이 일하는 데 부서간에 格差가 있다든지, 어느 곳에 가면 좌천이라 생각하고 벗어나기가 어렵다든지, 劣等意識과 외로움이 있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높은 벽을 헐고, 부서와 부서 사이에 높이 쌓아 올려진 벽을 낮추고 굳게 닫힌 門을 열어 어느 곳에 가나 즐거움과 보람이 充滿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나 專門性을 살려 웃으며 일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늘진 곳을 없애고 모두가 따스한 햇볕을 받을 수 있을 때 분위기는 가볍고 즐겁게 됩니다. 人和는 모두가 努力하고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예의를 지키며 인간적으로 대할 때 더욱 더 잘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人材들이 모여 훌륭한 일을 해 내고 모두가 화목스런 가정과 같이 즐겁게 일을 꾸며 간다면 韓國教育開發院은 날로 번창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認定하는 곳으로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러한 곳으로 만듭시다. 여러분의 健闘를 빕니다. ◆

教育放送 活性化에 대한 念願*

辛 世 浩**

얼마 전 알빈 토플러가 우리 나라에 招待되어 얘기한 가운데에서 이런 것이 기억난다. 권 태준 교수와의 대답에서 일본의 經濟成長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는 일본의 經濟成長을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독특한 經營體制, 일본 특유의 團結力, 經營方式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얘길 하지만, 자기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은 2次大戰 패전 직후부터 未來를 걱정했고, 어디에서나 서너 사람만 모이면 미래를 논했고, 미래에 대응하는 教育을 해왔다고 分析이 되며, 그런 일본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시 말해,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일본이 있게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을 나는 매우 감명 깊게 들었다. 또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마가렛 미드라는 文化人類學者가 그의 글에서 20世紀 學校들이 21世紀를 主導해 나갈 2世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19世紀 방법으로 教育을 하고 있다고 20世紀의 教育方法을 아주 辛辣하게 상징적으로 批判한 것을 읽어 본 적이 있다. 미래를 주도할 2世들이 미래를 성공적으로 주도하려면 未來社會가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지금부터 배워야 하는데, 그런 행동은 그런 행동으로 가르쳐져야만 배우게 된다는 것이 教育學의 原理이다. 다시 말하면, 수영을 잘하도록 가르치려고 할 경우에 물을 떠나서 아무리 말로 이야기해 봐야 수영을 잘하게 되지 않는다. 수영을 가르치려면 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잘하는 모습부터 보여 주고 수영을 잘하도록 도와 주고 수영이라고 하는 것

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처럼, 未來를 성공적으로 살도록 가르치려면 미래가 요구하는 행동 특성에 맞춰서 오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는 가장 素朴하면서도 基本的인 教育의 原理를 현대 학교들이 忘却하고 있다는 警鐘으로, 우리는 마가렛미드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만 될 것이다.

産業革命 이후 현대식 학교가 생긴 이래로 어느 틈엔가 사면에 벽이 있고 앞에 漆板과 敎卓이 있고 유리창과 책걸상이 있고 敎科書가 있고 粉筆을 가지고 쓰고 설명하는 이런 식의 학교 수업이 하나의 고정된 정형처럼 되어 버렸다. 마치 쇳물을 부어서 찍어내듯이 鑄造된 형태의 학교 기층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되어야 하겠는가라고 걱정하는 것과 같은 脈絡에서 이러한 비판이 나왔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學校의 教育機能을 여러 발로 표현을 한다. 人格陶冶의 기능, 文化傳授의 기능, 文化創造의 기능, 知識 흡수, 지력의 연마 등등 여러 가지로 학교의 기능을 표현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관점이 있는 것 같다. 즉, 學習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 메시지의 내용대로 학습자가 학습을 한다고 하는 의사 소통 기능을 教育의 기능으로 정의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날로 발전하는 科學技術社會에 살고 있다. 또 情報의 물질 속에서 살고 있다. 21世紀라고 하는 우리들의 눈앞에 닥친

* 이 글은 지난 12월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 가졌던 全國 教育放送 擔當獎學士·研究士·示範學校 研究主任 共同協議會에서 행한 기초 강연을 글로 옮겨서 수정·보완한 것이다.

** 副院長

이 미래는 情報社會로 특징지어진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未來社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어떤 메시지를 왜 서로 주고받는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주고받아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行動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오늘 20世紀의 말엽에 사는 우리들은 21世紀에 살면서 21世紀를 주도해야 하는 2世들을 키우는 教育者들로서는 이러한 學校教育의 의사통신적 관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일방적 메시지 傳達體制로부터 쌍방향적 메시지 交換의 상태 또 여러 가지 다매체가 동원되는 體制의 確立이 교육에서도 도저히 외면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러한 時代的 課業으로서 우리들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거의 한 시간도 빼 놓지 않고 우리들의 머리 위로 좋은 메시지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人間들의 情緒를 醇化시켜 주는 音樂이 있고, 또 새로운 情報이 달리고 있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討論場面이 달리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24시간 우리의 머리위를 날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면 벽에 둘러싸인 教室에서만 평면적으로 教科書와 선생님의 說明만으로 教育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좋은 教育의 資源을 拋棄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魚群을 옆에 보면서 投網을 못하고 찢찢매며, 안타까와 하는 어부의 心情이라고나 할까.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教育放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教師가 教育의 主導者로서 인간적인 교섭, 즉 감정 내부로부터 어떤 뜨거운 것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런 人間的 接觸들은 다른 어떤 技術工學의 인 媒體를 가지고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하는 것과 같이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결코 教育放送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교사에게 좋은 補助手段이 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벌써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세계 여러 곳에서 立證이 된 結論이다.

따라서, 제한된 時間에 제한된 場所에서 제한된 資料나 媒體를 가지고 제한된 能力으로 자라나는 世代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의 부족함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넓은 領域에 걸쳐서 생생한 메시지를 正確하게, 또 동시에 그리고 필요하면 反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放送媒體가 그러한 부족한 교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새삼 強調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教育放送이 갖는 그러한 機會의 擴大 즉, 普遍性·廣域性·效用性·反復性·同時性 등 여러 특성은 우리들 教育자들이 그것을 십분 활용하려고 하는 자세 여하에 따라서 教育에 효과적으로 投入될 수도 있고, 放置될 수도 있다. 教育工學은 사치가 아니다. 우리가 결국 그것에 많은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21世紀로 들어가는 문턱에 와 있다. 21世紀가 情報社會라면 21世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보고 그것을 保管, 再生하고, 또 結合해서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는 力量이다. 이러한 역량이 없이는 21世紀를 주도해 나갈 수 없다고들 걱정을 하고 있다. 21世紀의 科學技術은 보다 효율적인 通信媒體나 資料를 개발하는 데 총집중되고 있다. Cable TV System의 普遍化라든지 또 광섬유의 개발이라든지, TV나 Computer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학습 System을 개발한다든지, 電話線을 통해서 4,5명 또는 7,8명이 동시에 회의를 할 수 있는 體制가 개발된다든지, 전화선을 통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생생한 그림을 보낼 수 있는 팩시밀(facsimile)의 개발 등 새로운 발명의 행렬이 그치지 않고 있다. 教育을 힘있는 것으로 活性化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技術工學의 發明들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더우기, 학교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文化發展에 의한 知識量의 膨脹은 教育課程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教育적 상황을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學校教育 형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보다 效果的인 教育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教育 내용을 構造化한다거나 教育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平生教育이 가능하도록 教育體制를 설계하는 등 다각적인 시도가 이

루어져야 하게 되었다. 이러한 教育改善의 媒介的 機能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教育放送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放送 자체가 교육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教育的 特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 방송의 함수 관계는 그다지 간단하지만은 않다. 방송은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脆弱點들을 보강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비교육적 역기능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비교육적 효과가 노출되고 있다는 批判과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世紀에 들어서면서 특수한 상황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接近方法으로서 고려되기 시작한 放送이 현재는, 많은 나라에서 教育改善의 수단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는 바로 教育放送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教育資源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教育的 質的向上을 도모하며, 연구적이고 실험적인 활용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 방법을 발전시키는 등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크게 貢獻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그 동안 先進祖國의 創造를 국가적 목표로 삼고 교육 입국을 외쳐 왔다. 이런 것들은 말 수준에서 아무리 강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의 教育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있는 教育으로 변화해야만 가능한 목표들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科學技術 情報社會에 들어섰다. 그러나, 21世紀를 살 2세를 가르치는 오늘의 우리 교육자들은 情報社會에 적응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스스로 배우지 못하고 教師가 됐다. 그런 教師들에게 먼저 변화가 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21世紀를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적응해야 할 새로운 행동 양식이 길러지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目標과 現實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느

끼게 된다.

특히, 교육 방법을 중심으로 한 教育的 改善은 교육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개혁에 대한 수용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學校教育的 改善을 위해서 각종 研究와 試圖가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유행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그것은 그 내용이 나뻐서 때문이 아니고, 그것의 擴大와 普及이 미흡했고 활용 체제가 정착되지 못한 데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教授媒體로서의 教育放送도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한 보급은 물론, 이를 定着시키기 위한 現場教師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이것을 손쉽게 받아들일 만한 教育財政을 확보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중에서도 한 가지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넓게는 教育工學, 좁게는 教育放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소 이 방면에 관한 연구에 깊은 관심과 뜻을 가지시고 상당한 업적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또 學校行政이나 教育行政을 맡은 분들 중에서도 이 방면에 깊은 理解를 가지고, 投資를 우선해서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리고, 韓國教育開發院의 教育放送業務가 政府에 의해 계속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日就月將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있는 사실 중의 하나이다. 전국 수준의 教育放送 研究會가 탄생한 것도 또 하나의 반가운 일이다. 비록, 소수이지만 그러한 教育者가 있고 그들의 未來感覺과 脈絡을 같이하는 教育政策決定者, 學校行政家 그리고 研究機關이 존재하고 있는 한 韓國學校의 教育力은 앞으로 크게 신장될 것이다. 教育立國은 학교의 교육력 신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

證據와 推理

朴 文 泰*

마루 벽에 걸려 있는 시계가 두 번 종을 울렸다. 잠결에 들은 이 종소리의 數(證據)로 새벽 두시임을 미루어 생각한다(推理). 마루로 나와 전등불을 켜기 전까지는 이 推理의 結果 ‘지금 두시다’를 믿었으나 환히 비춰진 벽 시계에서 네시를 읽은 뒤 이 새로운 證據에 따라 네 번의 종소리 중에서 끝의 두 번만 들었음을 다시 推理한다. 이 벽시계의 종치는 機能이 밤 사이에 고장나지 않았으리라고 믿으며, 나아가 모든 다른 機能도 정상이라고 믿으며 옷목쪽의 손목시계와 ‘比較’해 보지도 않는다.

鐘소리를 때의 證據로 삼는 일, 數를 세어서 시각을 따지는 過程으로서의 推理, 믿음의 基礎로서의 比較가 우리의 思考樣式에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教育研究와 그 結果에 따른 實踐을 중심으로 따져 보기로 한다.

I.

證據란 經驗的 事實들로서, 생각할 거리를 놓고 接近해갈 때 動員되는 資料이다. 資料의 性格으로 보아 文學, 歷史에서의 文獻과 같은 質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社會學에서 일종의 反應에 터한, 그 反應이 充實한 것이었음을 假定할 수밖에 없는 意見調查資料와 自然科學에서의 觀察可能한 資料, 그것이 道具를 빌어 觀察된 것이라고 해도 直接 觀察된 것이라는 데에 價値를 두고 數量을 다루는 것까지 事實로서의 證據는 수없이 많다.

文學에서, 歷史에서 一次的 資料의 價値를 높이 評價하여 研究者가 자신의 主觀的 基準에 맞는 內容들만을 아주 一貫性 있게 再組織해 놓았

을 때, 그 內容들은 證據로서 갖추어야 할 妥當性에 심각한 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바로 信賴度는 높으나 즉, 一貫性은 있으나 妥當도가 낮거나 전혀 없는 心理檢査와도 같은 것이다.

意見調查資料의 反應程度가 比率이 아니고 單純한, 直線的인 比較에 不過한 것임에도 不拘하고 25%보다 50%가 두 배의 強度를 갖고 있는 것처럼 호소할 때, 證據의 存在與否를 證據의 量으로 混同하게끔 한다. 證據를 數學에서 빌어 온 變因(數)으로 번역하고, 그 證據의 어떤 面을, 종종 그 面이 조작 가능하다는 한 가지 이유에서 選擇되었을지라도, 가장 代表的인 것처럼 우길 때, 證據가 어떤 主張에서 갖는 機能으로서의 必要條件과 充分條件이 쉽게 交替되고 만다.

實驗을 통한 證據가 反復될 수 없는 制約을 받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예언자를 모셔다 놓고 다시 예언하게 하는 식의 迷信이 證據의 一般性을 無視하고 만다. 이 一般性を 넓히기 위해 일 년살이 보리를 遺傳實驗의 證據資料로 써서 數千年이 걸릴 전나무의 遺傳實驗을 대신하고, 하루살이로 百年살이 거북이의 유전 실험을 대신하여 생물의 유전에 관한 實驗까지를 대신한다. 한편, 原因의 原因을 좇아서 종착점인 量子運動의 不規則性을 보고, 세상 만사 因果論으로 풀이할 수 없다는 主張의 證據까지 나오게 하는 實驗들이 證據의 單位概念의 存在를 의심케 한다.

한마디로, 證據가 證據로 成立되기 위한 基本假定이 檢討되지 않을 때 생기는 狀況(context)의 問題이다. 論議할 必要조차 없는 假定들 아래, 制限된 狀況 속에서 證據가 쓰여질 때 推理의 適切性を 따진다.

推理는 생각의 單位들 간의 關係를 確認해 가

* 教育課程研究部·教育方法研究室長·哲博

는 과정이다. 이 ‘確認’은 그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推理하는 사람의 머리 속에 어떤 종류의 ‘關係’들이 이미 知識의 形態로 存在하고 있을을 前提로 하고 있다. 더 말할 나위 없이, 關係 知識은 생각의 單位(여기서 事實的 知識이라고 해두기로 한다)가 두 개 이상이 있는 狀態에서 그 機能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關係 知識은 있되 事實에 관한 知識이 없을 때는 推理過程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事實 知識들이 있되 그것들이 잘못 選擇되었을 때 그 知識의 證據로서의 妥當성을 따지게 된다. 法廷에서의 證據 採擇이 좋은 例가 되겠다.

시계의 종치는 數에서 현재의 시각을 推理하는 때는, 종소리 수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과 똑같은 수가 밤낮으로 한 번씩 있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나, 일종의 推理인 假說을 세우는 때는 한 理論을 이루는 法則들의 關係와 그 法則의 바탕이 되는 概念들이 事實水準의 知識으로나마 쉽게 최소량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條件的 文章形態의 主張(argument)에 대해 贊反의 어느 하나를 擇해야만 할 때, 우리가 밟아야 할 推理過程이다. 예를 들면, ‘레이전이 배우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가 미국 대통령에 두 번 당선되지는 못했을 것이다.’에 대해 어떤 推理로 贊反을 擇할 것인가.

이 複雜한 推理過程을 單純化시키는 方法들 중의 하나로 ‘特定한 境遇’인가와 ‘個人的 判斷’을 要求하는 것인가를 따져보는 일이 있다. 이 중 個人的 判斷은, 어떤 證據를 수집하여, 어떤 推理過程을 좇을 것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役割을 하는 ‘믿음’에 좌우된다. 믿음의 강도가 아주 높을 때를 고집이라고 해 두자. 이 고집 때문에 인공 위성이 지구를 사진 찍어 동글다는 것을 보여 주어도 평면을 주장하게 된다. 귀중한 一次的 資料의 記錄文獻을 놓고 分析할 때도 결국 歷史學者 個人的 判斷에 의해 그 一部가 選擇되고, 같은 事實的 證據라도 그 適用範圍가 달라질 수 있다. 證據採擇에서부터 엄격한 法的 適用까지도 결국은 判事 個人的 判斷이 決定的 役割을 한다. 심지어 하나의 환자를 보고도 診斷이 다를 수 있는 의사의 個人的 判斷을 認定

한다면, 우리 教育에서 教育者 個個人이 갖고 있는 믿음, 즉 個人的 判斷은 너무도 큰 比重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教育에는 “一次的”資料가 없으며(教科書도 教育課程의 具現이라는 면에서 보아 하나의 資料에 불과하다), 法을 適用하듯 어떤 教育方法(教授-學習方法)이 엄격하게 適用될 수도 없으며, 청진기에 비길 만한 診斷道具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믿음이 公正한 ‘比較’를 거치지 않고 形成되었을 때 고집스런 偏見이 되어 比重을 ‘比較’할 수조차 없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 教育의 어느 한 分野나마 專門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백 개밖에 안 되는, 생명없는 부속품의 조합에 불과한 텔레비전이 고장났을 때만 해도 전자 제품의 수리 기능이 없어서 또는 텔레비전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며 수리 전문가를 찾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백억 이상의 신경 세포로 된 뇌를 가진 ‘사람’을 다루는 教育에 대해서만은, 때로는 政治, 經濟까지도 포함하여, 教育者 以上の 專門性을 띤 個人的 判斷을 서슴지 않고 내린다. 바로 믿음(고집) 하나만에 의존하여 적용 범위조차 제한하지 않은 체 증거들이 열거되고, 이 증거들 위에 임의적 해석으로까지 치달는 추리를 하여 ‘교육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주장한다. 더우기 그 주장이 教育을 전문으로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個人的 이익이나 명예를 위한 伏線을 깔고 있을 때는 어디서부터 論議를 시작해야 할지 당설이게 된다.

II.

教育研究는 어떤 形態로든지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 研究의 對象들이 具體的으로 무엇들이라고 分類하고, 그 必要性和 目的들을 나열하기보다는 가장 一般的인 性格 하나만을 學校教育과 直接 關聯된 것으로 限定하여 따져보기로 한다.

어떤 教育的 行爲의 效果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效率’을 높이기 위한 것이 바로 教育研究의 基本的이고 一般的인 性格이다. 내 자식, 남의 자녀를 가릴 것 없이 ‘사람’을 다루는 일기에 研究할 當時의 時點에서 보아, 좋은 方向

으로의 期待效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데서 出發한다. 時間은 계속 흘러가기 마련인데 效果가 없을 수도 있는 研究는 최소한 그 時間이나마 보상할 어떤 方法도 없기 때문에 特殊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例로서, 授業方法에 관한 研究에서 實驗集團과 統制集團에 投入될 서로 다른 教授-學習活動이 모두 效果는 있되, 어느 하나가 똑같이 投入된 노력과 경비에 비해, 더 많이 投入되었으면 그에 비례해서 다른 것보다 더 效果가 있기를 바라고 있어야 한다. 이런 效率性을 찾으려고 할 때 흔히 말하는 試行錯誤를 最小限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런 基本的 性格이 충분히 반영된 教育 研究가 ‘科學的’ 方法으로 遂行되었다고 할 때, ‘科學的’이라는 말의 뜻을 分明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知識의 公用性을 들 수 있다. 어느 한 個人한테만 通用되는 知識으로 研究되었을 때는 科學的일 수 없다.

둘째, 直觀에 의한 처리를 하여 주장되는 研究는 科學的일 수 없으며, 證據에 의한 探索的 處理이어야 科學的 研究라고 할 수 있다. 直觀은, 常識的인 表現을 빌면, 어떤 段階的 思考過程을 거치지 않고 문제에서 곧바로 解答에 이르는 能力을 말한다. (이래서 直觀은 個人的 判斷의 한 形態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證據는 事實的 資料로서 확인·증명해 보일 수 있는 知識의 形態로 存在한다. 따라서, 그 證據가 믿을만한 것이어야 하고, 問題와 관련(relevance) 되어야 하며, 타당한 推理를 거쳐 주어진 질문에 解答을 해야 한다.

세째, 최소한 두 變인간의 規律적 關係를 찾고 있어야 科學的 研究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規則性 發見 때문에 측정이 필요하게 되고 측정할 수 있어야만 反復의 可能性이 있게 되고, 客觀性이 있게 되며, 數量化할 수 있게 된다.

學校教育 研究들의 核인, 어떤 教授-學習活動 研究가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科學的 方法’으로 遂行되었다고 하자.

우선 證據는 研究結果가 期待에 맞건 어긋나건간에 수집되었다. 다시 말하면, 假說이 있었

다면 假說이 옳았다거나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 때이다. 假說이 틀렸을 경우, 이를 推理하기란 狀況에 따라 다르며 그 過程도 너무 複雜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肯定되었을 경우를 놓고 보기로 한다. 무엇을 推理할 것인가? 여기에 ‘믿음’의 重要性이 發揮되기 시작한다. 앞에서 논의한 ‘科學的이다’를 그 研究가 充實하게 追았다고 믿어 주고, 나의 立場에서 一般化의 可能性을 推理해야 한다. 흔히 동료 職員の 研究 結果를 평소에 그를 알아왔던 先入觀에 비추어 으레 그렇고 그런 研究가 나왔겠지 하며 지나쳐 버리는데, 推理가 갈 方向을 잘못 잡은 좋은 예가 되겠다. 그 동안 研究機關이나 現場研究發表大會에서 수많은 教授·學習活動에 관한 肯定적 研究 結果가 나왔어도 얼마만큼의 自發的 受容이 있었는가 反省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教授理論의 研究가 보리와 전나무, 하루살이와 거북이의 關係에서처럼 一般化의 可能性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좁은 땅, 한 民族, 한 言語生活圈 속에서는 무시해도 될 誤差로 一般化시킬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證據는 있되 잘못된 推理와 疑心만 있을 뿐이다. 外國의 어느 학자가 오랫동안 새로운 교수-학습의 公學적 접근을 실험을 통해 증거를 보이면서 한탄해마지 않기를 ‘...받아들이는 풍토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받아들이는 풍토가 달리 번역한다면 ‘믿음’이 될 것이다. 어떤 권위에 맹종한 믿음이 되면 고집스런 편견이 되겠으나 ‘比較’를 통한 믿음이 이루어질 때 ‘科學的 믿음’으로 진보를 보인다. 대개의 수업 研究 結果는, ‘나와 비슷한 教育적 狀況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방법이 없으면, 있더라도 충분한 證據로 뒷받침할 수 없으면, 이런 方法을 써 보십시오’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얼마나 믿어도 될 만한 ‘우리 나라’의 事情인가.

法廷에서 證據의 比重을 따질 때, 들레의 소문이나 의견이 지나치리만큼 많으면 오히려 어떤 特定한 證據에 너무 많은 比重을 두는 例가 있다고 한다. 判事 個人的 直觀的 判斷이 公正性을 잃어가는 경우이다. 學校教室의 授業에서, 賞을 받은 研究結果가, 研究機關에서 最大限의 努力을 기울인 研究結果가 소문에 휩쓸려가고,

나를 가르쳐 준 은사의 어떤 特定한 方法만을 더구나 그것이 客觀的 評價도 받지 않은 것을 고집스런 믿음 하나만으로 고수해야 할 것인가. 教育研究의 結果와 이의 實踐은 科學的 믿음 하나에 달려 있다.

외국의 어느 지방 신문 사회면에 통계 자료(평균치)를 제시하면서 표준 편차를 곁들여 발표한 것을 보았다. 이 표준 편차 제공은 바로 '科學的 믿음'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즉, 집단들 간의 최소한의 공정한 비교를 가능케 해 준 것이다. 그 나라가 우리보다 일반 사람들의 수준에서 더 통계적으로 앞섰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때, 예로서 민족 주체성을 주장할 때, 선택되는 변인들이 이와 비슷한 '科學的 믿음'을 위한 比較 없이, 판소리를 해야 하고, 가야금 산조를 탈 줄 알아야 하고, 마당극을 우리의 古語로 풀이할 줄 알아야 하는 전대·독점식의 變因인 점이 문제될 뿐이다. 한 變因의 面(dimension, component, 또는 aspect)을 假定했을 때, 그 面을 나타내 주는 指標(indicator)로서 例를 들어 줄 때 괴상한 것이어서 놀라고 혼란에 빠지는 것과 가장 代表的이지만, 그 證據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과는 區別되어야 한다. 實驗的 研究가 아닌 文獻研究에서 괴상한 부분들이 원문대로 引用되며, 原文의 앞·뒤 狀況이 제공되

지 않을 때 혼란을 겪게 된다. 이것 역시 比較 없는 믿음을 강요하는 사례인 것이다. 예로서, 미국 브루햄 상원 의원의 1828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Education makes a people easy to lead, but difficult to drive; easy to govern, but impossible to enslave."을 앞뒤 없이 인용할 때이다. 숨은 뜻은 교육이 귀찮은 存在였던 점이다.

"교사는 모름지기 藝術家와 같은 꿈을 그리며, 宗教家的인 心情을 가지고, 科學者와 같은 方法論에 익숙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社會는 教師를 존경하고, 어린이는 씩씩하고 올바르게 자랄 것이다(金宗西, 現場研究의 方法, 1965, p.10)"

宗教家的인 心情에서, 어린이를 聖職者가 信徒를 대하듯 사랑하라는 뜻 외에 하나 덧붙여 '效率性'을 높이기 위한 科學的 研究結果를 '믿음'을 갖고 實踐에 옮기자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藝術家와 같은 꿈에서, 가르치는 일의 創造的 役割을, 科學者와 같은 方法論에서, '比較'의 重要性을 또한 강조하고 싶다. 證據는 宗教的 次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存在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Now faith is the substance &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 things not seen. —————◆

初·中等學校의 地域間 教育與件 不均等

金 在 雄*

불균등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로렌즈 곡선 분석 방법의 장점이 있다.

I. 序論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1985 년도의 초·중등학교 教育與件을 중심으로 地域間에 나타나고 있는 不均等의 정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地域은 행정 구역상 시·도 구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현행 教育財政 配分이 시·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선정된 教育與件 指標는 교원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특별 교실당 학생수, 도서실당 학생수, 학생 1인당 도서수, 교구 확보율, 학교당 학생수, 변소 1동당 학생수 등 여덟 가지이다.

지역간 불균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렌즈 곡선(Lorenz Curve)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원래 이 방법은 경제학에서 富의 分配의 衡平性을 따지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기회의 균등 배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불균등의 정도는 완전 평등일 때 0의 값을 갖고 아무리 불균등이 지나치다 하더라도 이 값이 1을 넘지 않는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 값이 클수록 불균등의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교원당 학생수의 경우에 완전 평등인 상태는 시·도별로 교원당 학생수가 똑같은 경우가 된다. 즉 시·도별 학생수 구성비와 시·도별 교원수 구성비가 일치하는 경우에 지니 계수는 0이 된다.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생수, 변소 1동당 학생수 등이 시·도별로 각각 몇 명씩이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함으로써 불균등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으나 지표들 간에 나타나는

II. 平等教育과 教育與件 不均等

平等教育은 論者에 따라 다르게 定義되고 있다.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教育機會만 균등하게 배분해 주면 평등 교육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주장된다. 그러나, 교육 기회의 균등이 어느 정도 실현된 다음에는 學習者의 특성(예컨대 인종, 성별, 언어, 거주지, 특수아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 실시되어야 교육 평등이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예컨대, 인종이나 성별, 거주지 등을 이유로 학습자가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특수아에게는 적극적으로 차별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극단적인 평등 교육론자들은 출생 신분, 가족적 배경, 거주지 등의 비교육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출발점부터 다른 학습자들로 하여금 교육 결과의 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차별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듯 평등 교육에 관한 논의는 그 강조점에 따라 教育機會의 平等, 教育過程의 平等, 教育結果의 平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관점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보다는 단계적이면서 累加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의 발전 단계에 따라 평등 교육의 구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취학전 교육과

* 教育發展研究部·研究員

고등 교육은 아직 教育機會의 平等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반면에, 초·중등 교육은 교육 기회의 균등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教育過程의 平等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初·中等學校의 地域間 教育與件 不均等’은 教育過程의 평등과 관련하여 그 의의를 지닌다. 教育過程의 평등은 단순히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자질과 수요, 교육 시설, 教育課程 등에 있어서 학교간에 차이가 없을 때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教育過程 要因과 학업 성취, 情意的 態度, 상급 학교 진학을 등의 관계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밝혀질 때 教育過程의 平等은 더 큰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그 관계가 밀접하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어지는데, 최근 들어서는 학업 성취나 상급 학교 진학에 미치는 가정 배경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 教育過程의 차이가 학업 성취나 상급학교 진학에 조금이라도 의의 있는 차이를 가져온다면 教育過程의 平等은 물론 구현되어야 할 것이지만, 설사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教

育過程 要因은 그 자체가 중요한 잠재적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에서 教育過程의 平等具現은 중요한 정책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Ⅲ. 初·中等學校의 地域間 教育 與件 不均等

1. 國民學校의 教育與件 不均等

선정된 여덟 가지 教育與件 指標에 대한 로렌즈 곡선 분석 결과, 시·도별 교원당 학생수의 지니 계수가 0.1141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도서실당 학생수의 지니 계수가 0.55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원당 학생수는 전국 平均 38.3명이지만, 서울이 50.4명, 강원이 29.4명으로 그 차이는 무려 21명이나 되고 있다. 도서실당 학생수는 전국 平均 1,714명이지만, 경북이 598명, 전남이 983명인 반면, 인천과 부산이 7,068명과 5,595명으로 시·도간에 극심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표 1>과 <표 2> 참조).

<표 1> 시·도별 국민 학교 학생수 구성비에 대한 교원수 구성비(1985)

구 분	교 원 수		학 생 수		Ratio of Advantage	교 원 당 학생수 (명)
	실 수	구성비(%)	실 수	구성비(%)		
서울	21,629	17.06	1,090,330	22.45	0.76	50.4
인천	3,109	2.45	155,498	3.20	0.77	50.0
대구	4,586	3.62	227,318	4.68	0.77	49.6
부산	8,593	6.78	419,589	8.64	0.78	48.8
경기	12,995	10.25	521,713	10.74	0.95	40.1
충남	10,824	8.54	383,679	7.90	1.08	35.4
제주	1,778	1.40	61,441	1.27	1.11	34.6
경남	12,738	10.05	428,224	8.82	1.14	33.6
전북	9,286	7.32	301,214	6.20	1.18	32.4
충북	5,440	4.29	173,048	3.56	1.20	31.8
전남	15,703	12.39	493,432	10.16	1.22	31.4
경북	12,345	9.74	373,028	7.68	1.27	30.2
강원	7,759	6.12	228,238	4.70	1.30	29.4
전국	126,785	100.00	4,856,752	100.00		38.3

지니계수 0.1141

〈표 2〉

시·도별 국민 학교 학생수 구성비에 대한 도서실수 구성비(1985)

구 분	도 서 실 수			학 생 수			Ratio of Advantage	도서실당 학생수(명)
	실 수	구성비(%)	누백분율(%)	실 수	구성비(%)	누백분율(%)		
인 천	22	0.78	0.78	155,498	3.20	3.20	0.24	7,068
부 산	75	2.65	3.42	419,589	8.64	11.84	0.31	5,595
경 기	98	3.46	6.88	521,713	10.74	22.58	0.32	5,324
대 구	48	1.69	8.58	227,318	4.68	27.26	0.36	4,736
서 울	256	9.04	17.61	1,090,330	22.45	49.71	0.40	4,259
강 원	102	3.60	21.21	228,238	4.70	54.41	0.77	2,238
충 남	234	8.26	29.47	383,679	7.90	62.31	1.05	1,640
제 주	46	1.62	31.10	61,441	1.27	63.58	1.28	1,336
전 북	253	8.93	40.03	301,214	6.20	69.78	1.44	1,191
경 남	406	14.33	54.36	428,224	8.82	78.60	1.63	1,055
충 북	167	5.89	60.25	173,048	3.56	82.16	1.65	1,036
전 남	502	17.72	77.97	493,432	10.16	92.32	1.74	983
경 북	624	22.03	100.00	373,028	7.68	100.00	2.87	598
전 국	2,833	100.00		4,856,752	100.00			1,714

지니계수 0.5546

나머지 여섯 가지 지표들에 대한 지니 계수는 다음과 같다: 학교당 학생수 0.4587, 변수 1당 학생수 0.4083, 특별교실당 학생수 0.2738, 학생 1인당 도서수 0.2080, 학급당 학생수 0.1642, 교구 확보율 0.1452. 여덟 가지 지표 가운데서 교원당 학생수, 교구 확보율, 특별 교실당 학생수, 학교당 학생수의 넷을 대상으로 작성한 로렌즈 곡선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지니 계수는 한 지표에 있어서 시·도간에 불균등한 정도를 알려 주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느 지역이 더 좋은 여건에 있고 어느 지역이 더 나쁜 여건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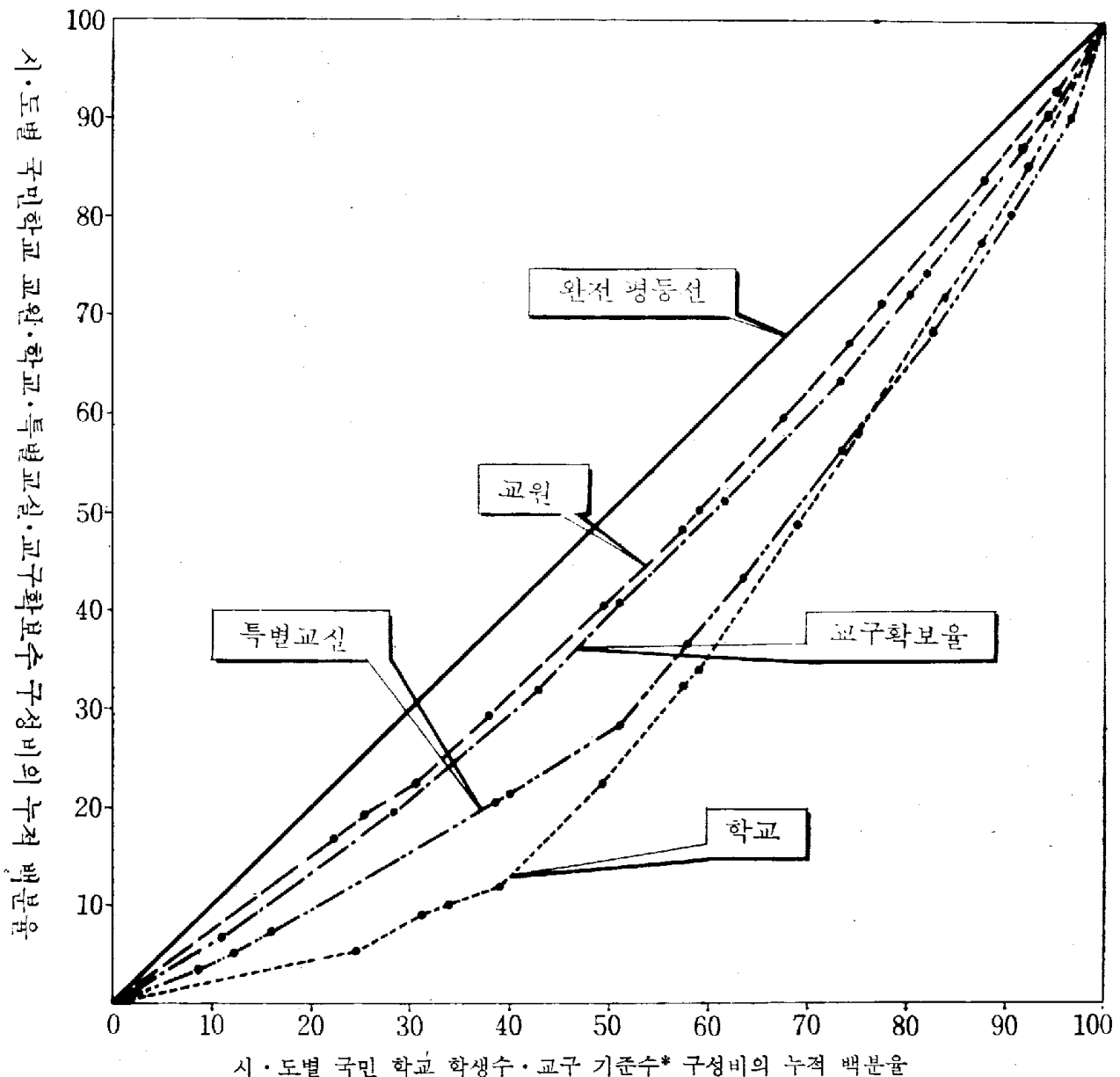
라서, 〈표 3〉에서는 각 지표에 대하여 ratio of advantage*를 기준으로 그 값이 가장 낮은 지역에 1점, 가장 높은 지역에 13점을 부여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알아보았다. 여덟 가지 지표에 대하여 시·도별로 평균을 산출한 결과, 경북이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부산이 2.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정된 여덟 가지의 지표가 教育過程의 平等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算術平均을 구한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교육 여건의 시·도별 불균등을 대체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대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국민 학교 시·도별 교육 여건 비교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변 교 구 확 학 급 당 학 생 수	소	4	1	3	2	5	10	12	8	13	9	11	6	7
	보	12	4	10	13	11	1	9	3	5	2	7	6	8
	급	1	4	3	2	5	13	11	7	9	10	12	8	6
	원	1	4	3	2	5	13	10	6	9	11	12	8	7
	교	1	2	4	3	5	12	11	6	9	8	13	10	7
	실	4	1	3	2	6	7	13	8	12	9	11	10	5
도 서 실 수	실	5	2	4	1	3	6	11	7	9	12	13	10	8
	서	5	3	6	1	4	8	12	7	10	9	13	11	2
평 균		4.1	2.6	4.5	3.3	5.5	8.8	11.0	6.5	9.5	8.8	11.5	8.6	6.3
순 위		11	13	10	12	9	4	2	7	3	4	1	6	8

* 어떤 가치의 구성비를 인구 구성비로 나눈 값으로, 학급당 학생수의 경우에는 시·도별 학급수 구성비를 학생수 구성비로 나눈 값이 된다.



[그림 1] 시·도별 국민 학교 학생수·교구 기준수에 대한 교원·학교·특별교실·교구 확보수의 로렌쯔 곡선(1985)

2. 中學校의 教育與件 不均等

중학교는 국민 학교에 비해 지역간 教育與件 不均等이 그리 심하지가 않다. 특히 교원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지니 계수는 0.0345와 0.0311로서 거의 완전 평등에 가까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 61.7명인데 최대는 서울 66.6명이고, 최소는 강원 57.5명으로서 그 차이가 9명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역간 불균등이 가장 심한 것은 학교당 학생수로서 지니 계수가

0.2040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 1,173명이지만, 서울이 2,264명이고 경북이 754명으로 ratio of advantage에 있어서 경북은 서울의 3배에 이르고 있다(〈표 4〉와 〈표 5〉 참조).

나머지 다섯 가지 지표들에 대한 지니 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도서실당 학생수 0.1953, 학생 1인당 도서수 0.1924, 교구 확보율 0.1513, 특별교실당 학생수 0.0856, 변소 1동당 학생수 0.0356.

국민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여덟 가

* 교구 기준수는 교구 확보수에만 관련되고 학생수는 교원·학교·특별 교실에 관련됨.

〈표 4〉

시·도별 중학교 학생수 구성비에 대한 학급수 구성비(1985)

구 분	학 급 수			학 생 수			ratio of advantage	학 교 당 수 (명)
	실 수	구성비(%)	누 백분율(%)	실 수	구성비(%)	누 백분율(%)		
서울	9,687	21.49	21.49	645,367	23.20	23.20	0.93	66.6
대구	2,010	4.46	25.95	130,782	4.70	27.90	0.95	65.1
인천	1,212	2.69	28.63	78,147	2.81	30.71	0.96	64.5
부산	3,645	8.09	36.72	233,938	8.41	39.11	0.96	64.2
경기	3,958	8.78	45.50	247,646	8.90	48.02	0.99	62.6
전남	5,259	11.67	57.16	320,536	11.52	59.54	1.01	60.9
경남	4,076	9.04	66.21	241,090	8.67	68.20	1.04	59.1
전북	3,104	6.89	73.09	182,620	6.56	74.77	1.05	58.8
충북	1,704	3.78	76.87	99,296	3.57	78.34	1.06	58.3
충남	3,797	8.42	85.29	220,118	7.91	86.25	1.06	58.0
경북	3,739	8.29	93.59	216,281	7.77	94.02	1.07	57.8
제주	654	1.45	95.04	37,744	1.36	95.38	1.07	57.7
강원	2,237	4.96	100.00	128,608	4.62	100.00	1.07	57.5
전국	45,082	100.00		2,782,173	100.00			61.7

지니 계수 0.0311

〈표 5〉

시·도별 중학교 학생수 구성비에 대한 학교수 구성비(1985)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ratio of advantage	학 교 당 수 (명)
	실 수	구성비(%)	누 백분율(%)	실 수	구성비(%)	누 백분율(%)		
서울	285	12.02	12.02	645,367	23.20	23.20	0.52	2,264
대구	67	2.83	14.85	130,782	4.70	27.90	0.60	1,952
부산	120	5.06	19.91	233,938	8.41	36.31	0.60	1,949
인천	45	1.90	21.81	78,147	2.81	39.11	0.68	1,737
전남	312	13.16	34.96	320,536	11.52	50.64	1.14	1,027
충남	224	9.45	44.41	220,118	7.91	58.55	1.19	983
경기	254	10.71	55.12	247,646	8.90	67.45	1.20	975
제주	39	1.64	56.77	37,744	1.36	68.81	1.21	968
전북	193	8.14	64.91	182,620	6.56	75.37	1.24	946
충북	108	4.56	69.46	99,296	3.57	78.94	1.28	919
경남	278	11.73	81.19	241,090	8.67	87.60	1.35	867
강원	159	6.71	87.90	128,608	4.62	92.23	1.45	809
경북	287	12.10	100.00	216,281	7.77	100.00	1.56	754
전국	2,371	100.00		2,782,173	100.00			1,173

지니 계수 0.2040

지 지표들에 대하여 시·도별로 평균을 산출한 결과, 전남이 3.9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경북은 11.5로 국민 학교에서와 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6〉 참조). 경북은 학급이나 학교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실, 도서실, 도서 확보 등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高等學校의 教育與件 不均等

고등 학교의 教育與件은 국민 학교나 중학교에 비하면 均等의 정도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급당 학생수의 경우에는 지니 계수가 일반계의 경우 0.0141 이고 실업계의 경우 0.0185로 나타나 학급당 교원수가 가장 균

<표 6>

중학교 시·도별 교육 여건 비교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변 교 학 학 특 도 도	구 확 보 원 교 별 교 서 서	소	7	4	1	8	6	13	9	2	10	3	12	11	5
		보	11	8	13	9	10	2	12	4	6	1	7	3	5
		급	1	4	2	3	5	13	9	10	8	6	11	7	12
		원	3	4	2	1	5	13	11	8	7	6	12	9	10
		교	1	3	2	4	7	12	10	6	9	5	13	11	8
실	6	11	8	7	10	3	12	5	4	1	13	9	2		
실	3	6	7	13	11	4	10	8	5	2	12	9	1		
서	서	3	11	10	4	6	2	13	9	5	7	12	8	1	
평	균	4.4	6.4	5.6	6.1	7.5	7.8	10.8	6.5	8.0	3.9	11.5	8.4	5.5	
순	위	12	8	10	9	6	5	2	7	4	13	1	3	11	

등한 교육 여건임을 보여 주었다. 한편 지역간 不均等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반계의 경우 도서실당 학생수로서 지니 계수가 0.1786 이었으며 실업계의 경우는 학교당 학생수로서 지니 계수가 0.2023 이었다.

일반계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대구가 59.8 명으로 최대, 경북이 55.6 명으로 최소로서 그 차이가 불과 4명 정도밖에 나지 않으며, 실업계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서울이 최대로 57.9 명, 강원이 최소로 52.8 명으로서 약 5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표 7>과 <표 8> 참조).

한편 일반계 고교의 도서실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 1,453 명이지만 서울 2,267 명, 경기 865 명으로 시·도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계 고교의 학교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 1,395 명이지만 서울 2,552 명, 경북 846 명으로 역시 시·도별로 작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9>와 <표 10> 참조).

일반계 고교의 나머지 여섯 가지 지표들에 대한 로렌즈 곡선 분석 결과 산출된 지니 계수는 다음과 같다: 학교당 학생수 0.1784, 교구 확보를 0.1150, 학생 1인당 도서수 0.1053, 특별교실당 학생수 0.0721, 변소 1동당 학생수 0.0435

<표 7>

시·도별 일반계 고교 학생수 구성비에 대한 학급수 구성비(1985)

구 분	학 급 수			학 생 수			ratio of advantage	학 학 급 생 당 수 (명)
	실 수	구성비(%)	누 백분율(%)	실 수	구성비(%)	누 백분율(%)		
대 구	1,230	5.63	5.63	73,599	5.81	5.81	0.97	59.8
부 산	1,541	7.05	12.68	91,796	7.25	13.06	0.97	59.6
서 울	5,295	24.23	36.92	315,087	24.87	37.93	0.97	59.5
경 남	1,515	6.93	43.85	89,092	7.03	44.96	0.99	58.8
인 천	542	2.48	46.33	31,853	2.51	47.47	0.99	58.8
제 주	271	1.24	47.57	15,700	1.24	48.71	1.00	57.9
경 기	1,453	6.65	54.22	83,874	6.62	55.33	1.00	57.7
충 북	826	3.78	58.00	47,432	3.74	59.08	1.01	57.4
전 북	1,604	7.34	65.34	91,822	7.25	66.33	1.01	57.2
전 남	2,520	11.53	76.87	143,825	11.35	77.68	1.02	57.1
충 남	2,094	9.58	86.46	117,690	9.29	86.97	1.03	56.2
강 원	1,049	4.80	91.26	58,831	4.64	91.61	1.03	56.1
경 북	1,910	8.74	100.00	106,239	8.39	100.00	1.04	55.6
전 국	21,850	100.00		1,266,840	100.00			58.0

지니 계수 0.0141

<표 8>

시·도별 실업계 고교 학생수 구성비에 대한 학급수 구성비(1985)

구 분	학 급 수			학 생 수			ratio of advantage	학 학 급 당 수 (명)
	실 수	구성비(%)	누 백분율(%)	실 수	구성비(%)	누 백분율(%)		
서울	2,822	17.68	17.68	163,346	18.44	18.44	0.96	57.9
부산	1,510	9.46	27.15	87,256	9.85	28.29	0.96	57.8
대구	881	5.52	32.67	50,654	5.72	34.00	0.97	57.5
인천	517	3.24	35.91	29,044	3.28	37.28	0.99	56.2
경남	1,683	10.55	46.45	93,763	10.58	47.86	1.00	55.7
경기	2,016	12.63	59.09	112,254	12.67	60.53	1.00	55.7
충북	611	3.83	62.92	33,157	3.74	64.28	1.02	54.3
전북	986	6.18	69.09	53,366	6.02	70.30	1.03	54.1
충남	1,152	7.22	76.31	61,771	6.97	77.27	1.04	53.6
경북	1,203	7.54	83.85	64,299	7.26	84.53	1.04	53.4
제주	271	1.70	85.55	14,479	1.63	86.16	1.04	53.4
전남	1,667	10.45	96.00	88,823	10.03	96.19	1.04	53.3
강원	639	4.00	100.00	33,750	3.81	100.00	1.05	52.8
전국	15,958	100.00		885,962	100.00			55.5

지니 계수 0.0185

<표 9>

시·도별 일반계 고교 학생수 구성비에 대한 도서실수 구성비(1985)

구 분	도 서 실 수			학 생 수			ratio of advantage	도 서 실 당 수 (명)
	실 수	구성비(%)	누 백분율(%)	실 수	구성비(%)	누 백분율(%)		
서울	139	15.94	15.94	315,087	24.87	24.87	0.64	2,267
부산	42	4.82	20.76	91,796	7.25	32.12	0.66	2,186
제주	9	1.03	21.79	15,700	1.24	33.36	0.83	1,744
경남	56	6.42	28.21	89,092	7.03	40.39	0.91	1,591
강원	38	4.36	32.57	58,831	4.64	45.03	0.94	1,548
전남	94	10.78	43.35	143,825	11.35	56.39	0.95	1,530
대구	51	5.85	49.20	73,599	5.81	62.20	1.01	1,443
전북	67	7.68	56.88	91,822	7.25	69.44	1.06	1,370
충남	97	11.12	68.00	117,690	9.29	78.73	1.20	1,213
경북	98	11.24	79.24	106,239	8.39	87.12	1.34	1,084
충북	49	5.62	84.86	47,432	3.74	90.86	1.50	968
인천	35	4.01	88.88	31,853	2.51	93.38	1.60	910
경기	97	11.12	100.00	83,874	6.62	100.00	1.68	865
전국	872	100.00		1,266,840	100.00			1,453

지니 계수 0.1786

교원당 학생수 0.0209.

실업계 고교의 나머지 여섯 가지 지표들에 대한 지니 계수는 다음과 같다: 도서실당 학생수 0.1850, 학생 1인당 도서수 0.1656, 특별교실당 학생수 0.1125, 변소 1동당 학생수 0.1048, 교구 확보율 0.0973, 교원당 학생수 0.0320.

초·중등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덟 가지

指標들에 대하여 시·도별 序列을 매긴 후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일반계 고교에서는 경기가 9.8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서울이 4.6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으며, 실업계 고교에서는 경북이 11.1로서 최고, 서울이 3.9로서 최소를 나타냈다(<표 11> 과 <표 12> 참조).

<표 10>

시·도별 실업계 고교 학생수 구성비에 대한 학교수 구성비(1985)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ratio of advantage	학 교 당 수 (명)
	실 수	구성비(%)	누 백분율(%)	실 수	구성비(%)	누 백분율(%)		
서울	64	10.08	10.08	163,346	18.44	18.44	0.55	2,552
대구	21	3.31	13.39	50,654	5.72	24.15	0.58	2,412
부산	37	5.83	19.21	87,256	9.85	34.00	0.59	2,358
인천	17	2.68	21.89	29,044	3.28	37.28	0.82	1,708
충남	43	6.77	28.66	61,771	6.97	44.25	0.97	1,437
전남	67	10.55	39.21	88,823	10.03	54.28	1.05	1,326
충북	27	4.25	43.46	33,157	3.74	58.02	1.14	1,228
전북	44	6.93	50.39	53,366	6.02	64.05	1.15	1,213
제주	12	1.89	52.28	14,479	1.63	65.68	1.16	1,207
경남	84	13.23	65.51	93,763	10.58	76.26	1.25	1,116
경기	104	16.38	81.89	112,254	12.67	88.93	1.29	1,079
강원	39	6.14	88.03	33,750	3.81	92.74	1.61	865
경북	76	11.97	100.00	64,299	7.26	100.00	1.65	846
전국	635	100.00		885,962	100.00			1,395

지나 계수 0.2023

<표 11>

일반계 고교 시·도별 교육 여건 비교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변 교 학 특 도 도	구 학 급 원 교 실 실 서	소	7	5	3	1	6	12	4	13	9	8	11	2	10
		보	6	9	12	10	8	1	7	4	11	3	2	5	13
		급	3	2	1	5	7	12	8	11	9	10	13	4	6
		원	3	4	2	1	10	13	9	5	8	11	6	7	12
		교	1	3	2	4	11	12	10	6	9	5	13	7	8
		실	9	5	12	10	13	4	1	7	8	3	11	6	2
도	실	1	2	7	12	13	5	11	9	8	6	10	4	3	
	서	7	8	9	13	10	2	12	6	3	5	11	4	1	
평	균	4.6	4.8	6.0	7.0	9.8	7.6	7.8	7.6	8.1	6.4	9.6	4.9	6.9	
순	위	13	12	10	7	1	5	4	5	3	9	2	11	8	

<표 12>

실업계 고교 시·도별 교육 여건 비교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변 교 학 특 도 도	구 학 급 원 교 실 실 서	소	2	3	1	10	5	11	9	13	8	4	12	7	6
		보	11	10	13	12	8	2	7	6	9	3	5	4	1
		급	1	2	3	4	6	13	7	9	8	12	10	5	11
		원	2	3	1	10	5	13	9	4	6	12	11	7	8
		교	1	3	2	4	11	12	7	5	8	6	13	10	9
		실	6	5	7	13	10	3	4	11	9	2	12	8	1
도	실	1	2	7	6	12	5	11	8	9	3	13	10	4	
	서	7	11	8	10	9	2	12	6	4	3	13	5	1	
평	균	3.9	4.9	5.3	8.6	8.3	7.6	8.3	7.8	7.6	5.6	11.1	7.0	5.1	
순	위	13	12	10	2	3	6	3	5	6	9	1	8	11	

IV. 結論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 나라의 初·中等學校 教育與件은 몇몇 지표를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시·도별로 크게 불균등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국민 학교가 가장 불균등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교육 여건 지표별로 보면 학교당 학생수와 도서실당 학생수가 가장 불균등한 상태에 있다. 가장 균등한 상태에 있는 교육 여건은 국민 학교를 제외하고 보면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당 학생수이다. <표 13>은 教育與件 지표별로 초·중등 학교의 교육 여건 불균등 지수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표 13> 초·중등 학교의 교육 여건 지표별 지니 계수

구 분	국민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변 소	.4083	.0356	.0435	.1048
교구확보	.1452	.1513	.1150	.0973
학 급	.1642	.0311	.0141	.0185
교 원	.1141	.0345	.0209	.0320
학 교	.4587	.2040	.1784	.2023
특별교실	.2738	.0856	.0721	.1125
도서실	.5546	.1953	.1786	.1850
도 서	.2080	.1924	.1053	.1656

이 글에서는 教育與件의 市·道別 不均等に 초점을 둔 나머지 우리 나라의 초·중등 학교

教育與件의 절대 수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각 교육 여건 指標別로 나타나고 있는 시·도별 不均等도 문제지만 교육 여건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 글에서 분석한 교육 여건의 시·도별 不均等に 관한 자료는 하나의 教育與件을 개선할 때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 여건 지표간에 나타나고 있는 불균등의 정도는 어느 지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平等教育의 具現을 위하여 초·중등 학교에서는 무엇보다도 教育過程의 平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高校平準化政策도 그 일환으로 보여진다. 그 정책이 더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위와 같은 教育與件의 不均等を 그냥 내버려 둔 채 학생들만 우선적으로 均等 배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教育與件의 不均等은 市·道間 그리고 위에 선정한 指標間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학교 단계까지의 義務教育實施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 시·도별, 설립별 등에 나타나고 있는 初·中等學校의 전반적인 教育與件의 均等化를 위한 政策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韓) (國) (教) (育) (開) (發) (院) (研) (究) (叢) (書) 4

☆教育隔差의 解消 ☆教育의 機會均等
教育의 質과 量의 均衡的 發展方向을 밝힌 名著

學校教育과 教育隔差

韓國教育開發院 教育社會研究室長 金炳聖 編著

豪華洋裝 크라운版 270 페이지

民族文化文庫刊行會 發行

5次 教育課程 試案의 開發을 앞에 놓고

郭 柄 善*

I. 5次 教育課程 試案開發

문교부는 1990년도부터 전국적인 현장 적용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제 5차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육 과정을 제정할 것에 대한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1차적으로 1986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하여금 유치원·초·중학교(고등학교는 제외) 5차 교육 과정 시안을 개발하도록 위촉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1986년도 연구 과제 중 제 5차 유치원·초·중학교 교육 과정 시안을 개발하는 과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향후 90년대 초반까지는 5차 고등학교 교육 과정 시안 개발이라든가 또는 문교부의 교육 과정 심의 확정에 따라, 교과서를 포함한 각종 교육 과정 자료를 개발하는 일들이 광범위한 규모로 뒤따르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처럼 학교 교육 과정을 새로이 개발하는 과제를 앞에 놓고, 여기에 관련되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 과제의 정당성과 그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좋은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담당한 우리들의 시야를 바로 세우고, 밟아 나아가야 할 일의 순서가 무엇인가를 정리해 놓아야 할 사전 준비로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교육 과정 제정이나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무수히 많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 과정을 무엇으로 본 것인가의 단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이다. 교육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정립되지 않고서 교육 과정을 만드는 일은 올바르게 되기 어렵다. 이점에 대해서 필자의 평소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教育課程에 대한 吟味

교육 과정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좀 폭넓게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교육 과정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어 결정된 산물이라는 것이다. 즉 교육 과정은 만들어진 것이고, 결정되어진 것이다. 둘째, 교육 과정은 교육적 성취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가장 명백하게 드러낸 계획이라는 점이다. 즉 학교 교육에서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기대하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실천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셋째, 교육 과정은 학교가 가르쳐야 할 내용 즉,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서 교육 과정은 우리 인류가 성취해 온 문화 유산 중 학생들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뽑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 과정은 문화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교육 과정은 다양한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표현되고 제시된다. 법률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또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와 같은 인쇄 자료로, 영화 필름, 슬라이드, 비데오 테이프와 같은 영상 자료로 표현될 수 있

* 教育課程研究部長·哲博

다. 박물관의 역사적 유물, 지역 사회의 자원 인사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 각종 사회 조직과 그 진행 과정, 실습원의 동식물과 같은 식물 자료로, 또는 학교 수업 수준에서는 교사의 발언을 통해 표현되거나 제시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이처럼 한마디로 쉽게 규정할 수 없는 다면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교육 과정의 문제가 그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면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의 핵심적 속성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성취를 겨냥하여 문화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교육적 성취」라 함은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됨의 질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성취가 있지만, 교육적 성취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치로운 인간으로서의 발달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교육이 윤리적 과업, 또는 도덕적 과업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됨의 가치를 높여 주고 그 발달을 돕는 데 있는 것이다. 「문화 내용의 재구성」이라 함은 우리 인류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만큼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본적으로 기여해 왔고, 또 그 삶의 양식으로 유지·발전시켜 온 문화적 유산 중 핵심적 요소들을 추출하여, 특정한 방식(교육적 절차)에 맞게 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통적으로 지식이라고 불리는 대상들이 이 문화 내용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으로서 대상이 되는 문화 내용은 단순히 인간의 탐구의 업적으로 성취된 지식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탐구에 동원되는 사고의 양식도 문화 내용의 중요한 대상이 되며, 삶의 양식 그 자체를 대표하는 삶의 경험도 문화 내용의 대상이 된다. 소속된 공동체 일원으로서 누구나 익혀야 될 생활 규범이 있다면 이것은 공동체 경험이 되며, 일상적인 생활에서 스스로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익히고 지켜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생활 경험이라 부를 수 있다. 이처럼 문화 내용은 지식, 사고

의 양식, 경험 등을 포함한다.

그러면,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문화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서의 교육 과정이 개정된다거나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교육적 성취를 의도한」 「문화 내용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이 교육에서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지 않는 한 쉽사리 대답될 수 없다. 한편, 교육 과정의 개정에 있어서 이 교육 과정의 기본적 성질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 비록 교육 과정 실제에 많은 외형적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육의 내실면에서는 생각한 만큼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교육 과정은 한마디로 교육의 근본을 쥐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적 성취」와 「문화 내용 재구성」간의 관계 정립을 기본 가정으로 두고 있는 교육 과정의 전제에서부터 연유한다. 예를 들어, 창의적 인간과 정답형 인간을 교육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대비시켜 놓고 본다면, 이 두 가지 형태의 인간 모습은 교육적 성취의 대상이 된다. 일단, 창의적 인간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좋은 대안을 늘 새롭게 찾아 보려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정답형 인간은 기존의 해결 방법을 최선의 정답으로 알고 그것을 답습해서 적용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두 가지 다른 모습의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어 그 교육 내용이 되는 문화 내용을 똑같이 구성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즉 문화 내용을 다르게 구성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문화 내용을 다르게 구성한다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다르게 구성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우리는 문화 내용의 재구성으로서의 교육 과정을 서로 달리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만약 정답형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 마련된 교육 과정이나 창의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 준비된 교육 과정이 별로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은 기대하는 교육적 성취에서 차이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무엇으로 문화 내용의 재구성을 달리함으로써 정답형 인간이냐 아니면 창의적 인간이냐 하는 교육적 성취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가설적 대답이 가능할 수 있다. 한 가지 대답은 이런 것이다. 즉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어 들어오는 문화 내용을 언제나 옳음 해답으로 고정시키고, 누구나 따라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느냐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또는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 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최선의 사례가 되기는 하지만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재구성된 문화 내용으로서의 교육 과정은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선정된 문화 내용을 고정되게 취급하려는 점에서 문화 내용의 폐쇄적 재구성이라 볼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개방적 재구성이라 볼 수 있다.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폐쇄적인 방식과 개방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게 될 경우, 그것이 서로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는 다음과 같이 그 대비되는 특징을 앞에서 언급한 교육 과정의 네 가지 특성에 비추어 봄으로써 짐작할 수 있다.

첫째로 교육 과정은 결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한 나라의 수준에서 누구에게 결정의 권한을 위임하느냐가 교육 과정의 재구성 방식을 폐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개방적으로 하느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교육 과정을 학부모, 학생, 교사 등과 같이 교육의 직접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교육 과정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저마다 교육을 받으려는 필요와 잘 가르치려는 의도에 있어서, 이들 교육 당사자가 가진 각자의 생각들이 교육 과정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이러한 결정은 개방적인 재구성에 가깝다.

반면,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결정권자가 교육 과정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학교가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은 권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누구나 함부로 교육 과정에 도전하

는 일은 억제된다. 이러한 경우, 그 교육 과정 구성 방식은 폐쇄적이 되기 쉽다. 교육 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결정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 과정은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 계획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는 것이다. 교사나 학생이 참여한 자신들의 계획인가 아니면 주어진 계획인가 하는 점에서 같은 계획이라도 그 계획에 따르는 교육의 실천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꾸려나가는 처지에서는 그 계획을 계획 수립자의 의지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친밀도가 깊고, 필요에 따라 수정과 보완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이 계획은 개방적 구성 방식에 가까운 교육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계획이 주어진 것일 경우, 그 계획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수동적 매개자로 떨어뜨릴 염려가 있고, 또 그 계획 결정권자의 승인없이 함부로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경직성이 생기기 쉽다. 이러한 경우, 그것은 폐쇄적인 교육 과정 구성이 될 것이다.

셋째, 문화 내용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구성된 문화 내용을 누구나 반드시 그대로 습득해야 할 고정된 것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문화 내용의 중요한 사례로서 선택된 것으로 보고, 교육 과정으로 선택되지 못한 문화 내용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교육 과정 구성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구성된 교육 내용에 다른 내용을 덧붙이거나, 덜어내거나, 그 수준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다면 그 교육 과정은 개방적인 재구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한번 결정된 교육 내용은 함부로 변경할 수 없고, 누구나 그 내용을 옳은 것으로 숙달하도록 가르쳐진다면 그것은 폐쇄적인 재구성이 될 것이다.

넷째, 교육 내용을 담아 표현하는 자료면에서 그 자료들이 얼마나 통제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방적이냐 아니면 폐쇄적이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 전문가이면 누구에게나 교육 과정 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면 그것은 개

방적인 재구성이 될 것이다. 반면, 특정인만이 교육 과정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검열을 받아서 인가된 자료에 한해서만 교육 과정 자료로서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폐쇄적인 재구성 방식이 된다.

이상은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폐쇄적인 방법과 개방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한 차원에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예시적으로 탐색해 본 것이다. 어떠한 구성 방식에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 존립하는 교육 과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 짐작된다. 아마도 이 두 가지 방식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교육 과정의 단일성과 다양성, 경직성과 유연성의 차이일 것이다. 폐쇄적인 재구성 방식이 우세한 곳에서는 교육 과정이 단일하고 경직된 경향을 많이 띄기 쉬우며, 이 경우는 정답형 인간이 보다 강조될 가능성이 있을는지모른다. 반면 개방적인 재구성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창의성 있는 사람이나 개성 있는 사람들의 발달이 보다 쉽게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창조적 인간형의 발달을 염원하면서, 교육 과정을 재구성 하는 방식은 폐쇄적 경향을 띠고 있다면, 그러한 학교 교육 상황에서 창의성 있는 사람들은 뜻대로 잘 길러지지 않을지 모른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 과정 재구성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현명성이 요구된다.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는 폐쇄적·개방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측면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문화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인간 탐구의 결과로서 성취된 지식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탐구의 과정인 사고의 과정을 강조하느냐, 과거의 문화 내용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과학 기술이나 미래의 문제를 강조하느냐, 어느 특정한 계층의 문화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보편적인 문화를 강조하느냐, 지식의 세분화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통합화의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사회 통합을 위한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각자의 개성 신장을 강조하느냐, 전통 문화를 강조

하느냐, 아니면 외래 문화를 강조하느냐 등의 차이에 따라 교육 과정은 다르게 재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그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 교육 과정은 바로 교육적 성취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영향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학교 학습을 성취하느냐의 양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인간으로 길러지느냐의 질적인 변화에 보다 깊숙이 관련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교육적 성취를 겨냥한 문화 내용의 재구성」으로서의 교육 과정이 실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생성된다고 할 때, 교육 과정의 내재적 성격에 좌우되는 교육적 성취라는 측면과 문화 내용의 재구성 방식과의 관계가 교육 과정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교육 과정 개발의 실제에서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어떠한 결정이든 그 결정은 매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러내야 할 인간형이 정답형이냐 창조형이냐 하는 것은 교육의 실제에서 그렇게 이원론적 사고로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명쾌하게 금을 그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일한 의식을 형성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독특한 해결 방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이중적 필요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다른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다. 교육은 개인적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특정한 도덕적·지적 기준에 확고하게 통합되도록 학생을 가르쳐야 할 필요를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도덕적 또는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 자신의 소신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 아름다움, 명예와 같은 이상적인 것을 제시해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동시에 부패, 폭력, 인간 불신과 같은 인간 삶의 실제 모습을 진실되게 보여 줘야 할 필요성도 동시에 인정된다. 이처럼 갈등적인 요구가 동시에 요청되는 경우는 교육 과정에서 허다하다. 즉 교육 과정 결정은 어느

한쪽을 배척하면서 다른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서로 갈등하는 요구나 원칙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결정의 과업이 교육 과정 결정의 과정이다. 따라서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오류의 하나는 그럴듯하다고 인정되는 한 가지만의 입장에 붙잡혀서 다른 입장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될 때이다.

이렇게 갈등하는 요구를 수렴하여 결단을 내리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과정이 교육 과정 결정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것은 교육 과정 개발 과정에 관한 어떤 방법·기술적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높은 지적 안목, 좋은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 인간 가치를 교육을 통해서 드높이겠다는 교육적 정열에 불타는 뜻을 가진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교육 과정은 그 자체가 계속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대상이므로, 교육 과정을 개정한다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4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정부

에서 교육 과정을 급박하게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형식을 통해 고쳐 왔기 때문에, 이번에 90년대에 적용할 교육 과정을 미리 5~6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은 역대 교육 과정 개정에 비추어 없었던 일로 문교부가 선전을 발휘하는 일로 평가될 만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미 그 개원(開院) 목적을 한국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두었고, 70년대의 교육 과정 분야에서 쌓아 올린 업적과, 지난 4차 교육 과정 제정을 담당하여 축적해 둔 경험, 그리고 그동안 교육 과정 평가, 교과별 교육 방법 개선 연구, 교육 과정 국제 비교 연구 등이 방면에 대비하여 후속적으로 추진한 기초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많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한국교육개발원 단독의 연구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관계 당국의 정책 지원과 관계 분야와 각계 전문가의 협력은 물론, 국민 전체가 이땅의 좋은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요청되는 그런 과업인 것이다. ◆

○ 教 ○ 育 ○ 故 ○ 事 ○ 成 ○ 語

○ 君子三樂 [뜻] 君子(君은 君主의 君, 子는 男子의 美稱이므로 여러 가지 美稱으로 쓰임)는 보통 사람과는 달리 특별히 三樂이 있다는 말

[출처] 孟子盡心上篇에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父母俱存, 兄弟無故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忤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而教育之, 三樂也

○ 陶 冶 [뜻] 陶工(옹기장이)과 冶工(대장장이)이 쇠를 부음(鑄)과 같이 스승이 弟子의 才藝를 육성시키는 것.

(쓰임) 인격의 도야, 품성의 도야

[출처] ① 孟子滕文公上篇에 以粟易本械器者, 不爲厲陶冶.

② 漢書董仲舒傳에 臣聞, 命者天之令也, 性者生之質也, 情者人之欲也, 或天或壽, 或仁或鄙, 陶冶而成之, 不能粹美, 有治亂之所生, 故不齊也.

中學校 3學年 學習不振學生을 위한 프로그램 開發研究

朴 文 泰*

I.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學習不振兒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학교 학습을 할 수 있는 能力이 있으면서도 선수 학습 요소의 缺損으로 인하여, 설정된 교과 교육 목표에서 요구하는 최저 학업 성취 수준에 到達하지 못한 학생들을 의미한다.

인간은 心理的·環境的으로 개인차가 있게 마련이어서 절대적이건 상대적이건 간에 학습에 있어서의 부진 현상은 불가피하다. 더더욱 1969년 중학교 무시험 進學制度 이후의 학급내 학생간의 이질화와 교육의 量的 膨脹으로 인한 過密學級이 교육 여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불가피하게 교사가 막연하게 정한 어떤 수준의 능력을 지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學習內容의 수준이나 지도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基礎學力이 부족한 학생들은 그나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기 힘든 실정으로서 계속되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 결손은 누적된다. 이들은 지적인 면에서만 缺損現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거듭되는 학습 실패의 經驗으로 말미암아 학습 의욕의 상실, 열등감의 형성 등 情緒的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知的·情緒的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학습력 신장 전략은 절실히 要請된다.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학습 부진 학생들에게 적당한 學習經驗을 제공하면 학생의 認知

的 能力과 情意的 態度를 향상시켜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밝힌 必要性和 可能性에 터해, 本院에서는 이미 8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중학교 3개 학년을 위한 학습 부진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84년에는 1학년 國語, 數學, 科學 3개 교과를, 85년에는 國語, 英語, 數學, 科學 4개 교과의 보충 학습 자료를 개발했으며, 86년인 올해에 3학년 國語, 英語, 數學, 科學 4개 교과를 개발하게 된다. 위의 교과를 개발하기로 한 주된 準據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며, 특히 수학, 과학은 그 학문적 위계가 비교적 뚜렷하여 선수 학습 요소의 추출이 가능하고 학습의 轉移價가 비교적 높은 교과이기 때문이다.

II. 補充學習資料 開發을 위한 基本前提

보충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考慮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그 중요한 要因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 잠정적으로 설정한 보충 학습 자료의 開發方向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資料의 適用對象

특정 대상을 위한 學習 資料를 개발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대상을 명백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다 훌륭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知的·情意的

* 教育課程研究部·教育方法研究室長·哲博

特性을 把握해야 하며, 동시에 자료가 기여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개발된 보충 학습 자료가 과소 평가되는 것을 防止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適用對象을 지능이 적어도 85점 이상인 학생으로 학습의 결함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학생으로 정하고, 학습 부진 학생을 교과별로 구분하여 學業成績이 중간 정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정상적인 학습 진도를 유지하기 곤란한 학생으로 한다. 따라서, 한글 이해특자, 學習機能의 결손이나 정서 장애가 심각한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의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資料의 性格 및 形態

개발할 보충 학습 자료는 다음과 같은 特性을 지닌다.

1) 先修學習要素를 補充시킨다

학습자의 선수 학습 능력은 Bloom(1971)이 제시하는 출발점 행동을 구성하는 변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先修學習의 중요성은 Gagné(1965)의 학습 위계 개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학습 과제가 위계성을 지닌다는 것은 하위 학습 과제에 缺損이 있으면 상위 학습 과제를 成功的으로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 補充學習資料의 內容은 教科書와 직접적인 關聯을 지닌다.

학습 부진아의 學業成就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수 학습 요소의 보충 이외에 정규 학습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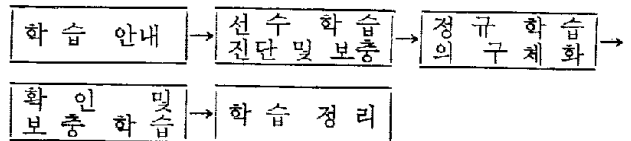
자체를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적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습 부진아들은 교과 진도에 따라 새롭게 제시되는 學習課題의 수행에서 실패할 可能性이 많기 때문이다.

3) 學習者가 自律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構成한다.

학습 자료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개발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학습 부진아들이 개인별 필요에 따라 學習量 또는 學習速度를 조절할 수 있어야 자료 활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둘째, 학교에서의 개별 학습, 소집단 협력 학습 및 가정 학습 등 다양한 場所에서 多樣하게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교사의 負擔을 가능한 한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

4) 補充學習資料의 一般적 構成形態는 5 段階이다.

보충 학습 자료의 構成體制는 교과별 特性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보충 학습 자료의 일반적 구성 형태

Ⅲ. 補充學習資料 開發 및 適用을 위한 節次 및 方法

보충 학습 자료의 개발을 위해 설정한 개발 절차와 이에 따른 研究活動 및 方法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절차	방향설정단계	보충학습자료개발단계	소규모현장적용단계	수정·보완단계
연구 활동	① 보충 학습 자료의 적용 대상에 대한 개념정의 ② 구성체제 확립 ③ 제작 지침 확정 ④ 학습부진 영역 탐색	① 학습 목표 설정 ② 선수 학습 요소 추출 ③ 내용의 범위와 계열 확장 ④ 교수·학습전략 선정 ⑤ 교수·학습자료 선정	① 자료의 타당성 검증 ② 자료의 효율성 검증	①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탐색 ② 수정·보완
방법	①, ②, ③ 문헌연구 전문가와의 협의(교사포함) ④ 학력검사 실시 의견조사(교사, 학생)	• 문헌연구 • 전문가와의 협의(교사포함)	• 전문가검토(교사포함) • 검사실시(학생) • 의견조사 실시(학생, 교사) • 전문가와의 협의	전문가와 협의

<그림 2> 연구 절차에 따른 구체적 연구 활동 및 방법

Bloom, B. S. et al. *Handbook on formative and summative evaluation of Student learning*, McGraw-Hill, 1971. Gagné, R. M., *The conditions of learning*,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1965.

위 네단계 중 소규모 현장 적용 단계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직접 학생들에게 투입해 보고 투입한 결과를 토대로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어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든지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과연 학생들의 學業成就도를 증진하는가도 調査·分析해 보고 그 잠정적 가능성을 打診해 보아야 한다. 즉, 이 단계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修正·補充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의 수집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다.

Ⅳ. 期待되는 效果

이 보충 학습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期待하는 效果는 다음과 같다. 즉, 중학교 3학년 학습 부진 학생들에게 學習缺損을 치료할 수 있는 機會를 제공하여 知的·情意的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다음 단계인 고등 학교에서 충분한 學業成就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現 場 教 育 相 談

外國教育課程 改革의 動向에 대하여

(問) 最近, 外國에서 나타나고 있는 教育課程改定の 動向에서 初等教育段階 중 教科編制 및 運營을 中心으로 알려 주십시오.

(서울 대현 국민 학교·주임교사 김 무웅)

(答) 教育課程改定の 方向을 알기 위해서는 教育 과정의 여러 측면들 즉, 성격과 양식, 개발의 과정, 문서의 체제, 교과 내용의 편성,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함이 原則이겠으나, 教育課程의 包括的인 特性으로 인해서, 초등 教育 단계 중 학교 현장과 관련이 깊은 “教科編制 및 運營”을 中心으로 하여 最近의 動向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스웨덴, 프랑스, 일본의 경우, 읽기·쓰기·셈하기와 같은 基礎技能(basic skill)의 強化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다 複雜해지고 있는 專門化로의 趨勢에 대비하여 發達初期에 충분한 기초 學業을 強化하려는 意圖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基礎技能教育으로의 復歸”(back to basics)라는 標語를 내걸 만큼 重要한 問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教科編制에 있어서는 統合的인 傾向이 우세하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傾向은 유럽의 諸國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現象으로 서독·스웨덴 등은 전통적으로 기초 기능 교과 외에 “지역 사회와 사물”, “일반 교과” 등의 이름으로 科學·社會·美術 등을 統合한 內容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基礎技能을 強化하기 위한 國語·算數 등의 基礎教科 외에 다른 교과들을 하나의 教科로 統合하여 運營하는 二重的 編成方針은 기초 기능을 착실히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주변 사물을 하나의 視角이 아닌, 統合된 視角에서 관찰·이해하기 위한 能力培養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같은 兩面的인 編成構造는 사회 요구에 反應하지 못하는 教育課程의 硬直性과 무거운 學習負擔의 弊端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서독·스웨덴)의 教科編成에서 나타나는 傾向은 初等教育段階 특히 中·高學年에서의 外國語教育입니다. “國際理解”教育의 次元에서 필수 혹은 선택 과정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教育課程運營의 傾向은 “學校特性” 또는 “學年이나 學級의 特性”을 살리기 위해 學校長에게 教育課程運營의 裁量權을 주당 10~20% 정도 부여하고 있는 점입니다. 統合教育課程으로 運營될 경우, 이같은 學校長의 裁量權問題는 매우 重要한 事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教育 과정 改訂의 方向은 한 국가의 社會·文化的 基礎 및 教育改革의 全體方向과 관련지어 이야기 될 경우,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대로 우선 초등 教育 단계 중 教科運營의 주요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本院 教科書國際比較研究室·研究員 金 英駿

國民學校 進路教育 研究·開發

韓 勝 熙

I. 序

進路教育은 학생들이 행복한 個人으로서 또 生産的인 社會成員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學校教育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學問의 세계와 일과 人生의 문제를 밀접히 연결시키려는 생각이 그 바탕이 된다. 즉 學生들로 하여금 자신의 適性和 소질을 계발케 하고 일과 職業世界的 客觀적 이해를 토대로 合理的인 진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도록 돕는 教育的 노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進路教育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21世紀를 살아가야 할 學生들을 위해서 絶실히 요구되는 教育의 方向을 제시한다.

상기의 관점에서 國民學校 進路教育 研究開發 사업은 국민 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學習과 일의 世界와의 관계를 초보적으로 認識시키고 미래의 일의 세계에 대하여 건전한 進路意識을 向上시키려는 目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유용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이의 보급을 위한 기반을 形成하는 데 과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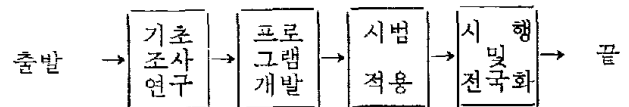
II. 研究의 基本戰略

이 사업에서는 일차적으로 국민 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進路教育이란 學校, 가정, 사회 환경 속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相互作用하는 過程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

* 教育課程研究部·研究員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프로그램은 이들 관련 變인들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進路教育 프로그램은 아동, 교사, 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되는 하위 프로그램과 관련 자료 그리고 사업 수행을 위한 세미나 교원 연수,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進路教育 프로그램 연구·개발 사업은 전형적인 研究-開發 모델에서의 절차와 같은 基礎調查研究, 프로그램 開發, 實驗適用 및 普及의 과정을 밟아 수행되었다.



국민 학교 進路教育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

상기와 같은 기본 전략으로 수행되는 이 研究事業은 '82~'86년까지의 장기 프로젝트로서 基礎研究('82~'83), 프로그램 開發('84~'85), 개발한 프로그램의 확산·보급('86)의 3 단계로 추진된다.

III. 研究의 主要內容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5개년 동안 수행한 연구 개발 활동을 위의 3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단계: 基礎調查研究

基礎調查 研究는 국민 학교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方向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82년도에 수행한 “국민 학교 아동 교

사, 학부모의 진로 의식 조사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우리의 進路教育 프로그램 개발의 方向에 많은 시사를 준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많은 아동(54%)들이 일에 대해 부정적인 態度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여기에서 부정적인 태도란 일 자체를 보람 있고 유용한 측면보다는 살아가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하는 고통스런 과업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에 대한 이러한 態度는 부정적인 직업관 또는 진로관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이와 함께 조사한 부모·교사들의 進路觀 역시 부정적이었다.

이 연구에서 부정적인 進路意識이란 職業을 일로 보기보다는 “자리”로 보는 地位指向性, 직업 자체에서 보람을 찾기보다는 그 직업의 결과가 가져다 주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結果指向性, 직업을 선택하거나 평가할 때 그 직업이 社會적으로 가치 있고 個人的으로 의미 있는 것을 중시하기보다는 체면 등 외형적인 형식을 존중하는 形式指向性, 그리고 직업 선택을 팔자 소관 등으로 생각하는 運命指向性 등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다음의 具體的인 方向을 제시해 준다.

첫째, 아동들의 건전한 進路意識을 키우기 위해, 국민 학교 수준에서부터의 프로그램 또는 教育課程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 과정에는 우리의 현실적인 맥락을 반영하는·내용을 중시해야 한다.

둘째, 아동들의 進路意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社會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과 社會의 進路意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2 단계 : 프로그램 開發

프로그램 개발의 단계에서는 基礎調查 研究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주요 자료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동용 자료로서 10종의 읽기 자료를 비롯한 비디오테이프 및 슬라이드 등의 투시 자료가 있으며, 교사용으로는

현행 教育課程의 범위내에서 效率的으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용 進路教育 指導書’와 3종의 教授-學習模型을 개발하였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계몽 자료’를 개발하였다.

3 단계 : 開發한 프로그램의 擴散·普及

이 단계는 금년에 전개될 예정으로, 전국의 13개 시·도의 17개 示範學校를 중심으로 상기의 개발된 프로그램 및 자료들을 현장에 適用하여 이를 全國化할 方案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 함께 進路指導를 위한 사회 및 학부모용 프로그램의 운영, 진로 교육의 사회적 확산과 홍보를 위한 세미나, 시·도별 고위 책임자 및 진로 교육 관계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료 개발의 일환으로 學生用 進路教育 綜合資料集(일명 아동용 직업 사전)도 계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IV. 結

이 사업의 마무리를 짓는 금년 연구의 주요 과제는 지금까지 국민 학교 進路教育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 및 모든 자료들을 전국의 17개 현장 示範學校에 투입·적용하여 그 全國化 方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進路教育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의 學校와 社會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 온 관심사였으나, 그 具體的인 方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민 학교 진로 교육 연구·개발 사업은 進路教育의 한 종합적인 方案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겠다.

특히, 국민 학교 수준에서 進路教育의 실재를 제시해 주는 이 사업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수행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다른 開發途上國들에게 進路教育의 모델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갖고 있다. —◆

大學定員의 適正化

姜 武 燮*

1. 研究의 必要性과 目的

향후 한국의 社會·經濟的 發展과 產業構造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高級人力의 수요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社會의 高學力主義의 팽배로 고등 교육에 대한 개인의 욕구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高等教育에 대한 國家·社會의 인력 수요와 개인의 欲求充足을 위한 社會 수요는 高等教育 機會擴大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國家·社會의 高等教育의 質的 秀越性의 유지에 대한 압력과 고등 교육을 통한 고급 인력의 國際競爭力 深化 등으로 고등 교육의 양적인 팽창의 억제와 질적인 통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高等教育에 대한 社會 수요와 인력 수요를 적절히 감안하여 향후 고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등 교육이 本質的으로 추구하는 秀越性을 보장할 수 있는 학생 인구의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 고등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고등 교육의 양적인 수준을 主要先進國 및 開發途上國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社會 경제적인 발전 추세 등을 분석함으로써 高等教育의 定員政策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방향에 터하여 향후 고등 교육 인구의 적정 총량 규모와 계열별, 지역별 적정 규모를 推定하고자 한다.

2. 研究問題 및 內容

상기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와 각 연구 문제에서 다루어질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韓國의 大學定員政策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가?

한국 대학 교육의 양적 성장 과정 및 양적인 규모의 분석과 향후 대학 교육 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될 社會·경제적 여건 변화 전망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大學, 專門大學 및 大學院의 정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

둘째, 향후 한국의 大學教育에 대한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의 변화에 따른 大學人口의 적정 총량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大學教育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기에 앞서 학령 인구 및 각급 학교 학생 인구의 변화와 규모를 추정한다. 대학 인구의 수요 추정에서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향후 2001년까지의 대학 교육 수요를 추정한다. 그리고 대학 인구의 적정 총량 규모 추정에서는 가능한 한 대안적인 추정을 시도하여 이러한 대안을 종합한 하나의 추정치로 제시한다.

셋째, 향후 大學入學定員의 유형별·계열별·지역별 배분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형별·계열별·지역별 그 적정 정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地域別 大學入學定員의 配分 및 規模는 그 지

* 教育發展研究部·教育計劃研究室長·哲博

역의 고등 학교 졸업자 추세를 고려하여 추정하게 되며, 系列別大學入學定員의 配分 및 그規模는 사회·경제적인 변화 요인과 과거의 추세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그리고 추정된 지역별 대학 입학 정원과 계열별 대학 입학 정원을 관련시킴으로써 각 시·도별 계열별 大學定員 규모를 추정한다.

3. 研究方法 및 節次

한국 대학 교육의 양적 성장 수준을 주요국 대학의 양적 성장 수준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대학 교육 인구 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社會·經濟的인 여건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高等教育需要와 高等教育人口의 총량 규모를 추정한다. 또한 이러한 대학 입학 정원의 총량 규모를 바탕으로 지역별 대학 입학 정원 규모와 계열별 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추정하며, 최종적으로 지역과 계열을 관련시켜서 지역별·계열별 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추정한다.

●大學教育 需要의 推定: 대학 교육 인구의 총량규모 추정에 앞서 대학 교육 수요를 추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학 입학 정원 규모와 전체 대학 교육 인구의 총량 규모를 추정한다. 大學教育 需要는 인구 자료를 기초로 각급 학교 학생 수를 먼저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고등 학교 졸업 예정자수를 추정한다. 그리고, 추정된 고등 학교 졸업 예정자수에 추정 함수를 적용하여 대학 진학 희망자라고 볼 수 있는 대학 교육 수요를 추정한다. 수요 추정 함수는 GNP, 대학 등록금, 대학 졸업자의 임금, 고졸자 대 대학 정원 비율, 그리고 高卒者 대 大卒者의 임금비를 적용하여 만든다.

●大學教育人口의 總量規模推定: 우선 대학 입학 정원 규모 추정을 위하여 과거의 고졸자 증감 추세와 고졸자에 대한 대학 입학 정원의 비율을 算出한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외국과의 비교 자료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목표 설정 방법(traget setting method)을 활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함으로써 최종안을 결정한다. 그리고, 대학교육 인구의 총량 규모, 즉 大學在學生數 규모의 추정은 대학 입학 정원 규모에 과거의 진급률을 적용하여 대학 1~4학년 학생수와 전체 학생수를 추정한다.

●大學入學定員의 類型別 配分: 대학 입학 정원의 유형별 배분은 원칙적으로 專門大學, 大學 및 大學院의 발전 방향에 따라 결정한다. 그리고 각 유형별 고등 교육 기관의 성격과 기능 그리고 전체 고등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人力需要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大學入學定員의 地域別 配分: 대학 입학 정원의 지역별 배분은 원칙적으로 각 시·도별 고등학교 졸업자수에 비등한 대학 입학 정원의 규모를 배분한다. 로렌즈(Lorenz) 곡선을 적용하여 과거 각 시·도의 대학 교육 기회를 분석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대학 교육의 불평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역별 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推定한다.

4. 研究의 期待效果

대학 학생 정원 정책의 방향 설정은 물론 정원의 적정 규모의 책정은 韓國高等教育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文敎部에서 대학 학생 정원의 규모를 정할 때마다 우리 나라의 대학생수가 많으나 혹은 적으나에 대한 논란을 매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확보되지 못하여 定員政策의 방향은 물론 정원 규모 책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대학 정원 정책의 방향 설정과 정원 규모 책정에 필요한 관련 基礎資料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國家高級人力需要計劃과 문교부의 대학 정원 정책 그리고 教育改革審議會의 고등 교육 개혁에 필요한 基礎政策資料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主要國의 教育制度 改革動向

崔 榮 杓*

I.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인간에게 있어 교육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認識됨에 따라, 교육 제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더우기 근대 이후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교육이 國家發展의 지대한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教育制度改革을 통하여 국력 극대화에 힘쓰고 있다.

우리 나라도 세계 속의 한국으로 비약하고 있는 이 때, 교육의 중요성을 재삼 인정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教育制度를 정착시키고자 「教育改革審議會」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제도 개혁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 교육 개혁의 추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동향이 우리의 教育發展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날로 국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가간 상호 교류 및 依存度가 심해짐에 따라 국제적인 教育改革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 속에서 생존·번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의 教育制度 發展過程을 살펴보면 한국 실정을 정확히 고려하지 못하고 외국의 교육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있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先例는 주요국의 교육 제도를 우리의 시각으로 재창조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의 교육 제도를 과학적인

분석 모형에 터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이를 우리 나라 교육 제도 발전의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그 동안 세계 각국의 教育制度를 비교·분석한 연구적 노력이 있어 왔으나 몇 가지 未洽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종래의 교육 제도 비교 연구가 구체적인 분석 모형에 터하여 이루어지지 못해 왔으며, 또한 지나치게 현재의 교육 제도 비교 분석에만 치중하여 教育改革의 차원에서 그 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 제도 장기 발전 구상을 서로 비교·검토해 보는 연구 노력은 거의 전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는 교육 제도 분석 모형을 구안해 보고, 이에 터해 주요국의 교육 제도를 비교 분석해 보며, 주요국의 미래 교육 제도 개혁안을 서로 비교·검토해 봄으로써 한국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코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提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제도 비교·분석에 관한 이론 정리 고찰

둘째, 국가간 교육 제도 비교 분석 모형 구안

셋째, 주요국의 교육 제도 비교 분석

넷째, 주요국의 교육 발전 계획 비교 검토

다섯째, 한국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추출

II. 研究의 內容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教育發展研究部·教育制度研究室長·哲博

- 1) 교육 제도 비교 연구 방법의 考察
 - (1) 교육 제도 비교 意義 고찰
 - (2) 교육 제도 비교·분석 방법 고찰
- 2) 교육 제도 비교 분석·모형 구안
 - (1) 교육 제도의 개념 정립
 - (2) 교육 제도의 요소 파악
 - (3) 교육 제도의 구조·기능·운영의 관계 분석
 - (4) 교육 제도 비교·분석 모형 구안
- 3) 주요국(미, 일, 독, 불, 영, 대만)의 교육제도 비교·분석
 - (1) 주요국 선정의 배경 제시
 - (2) 사회·경제적 배경 분석
 - (3) 교육 제도 변천 과정 분석
 - (4) 교육 제도 비교·분석
 - ① 교육 이념 및 목표
 - ② 교육 내용
 - ③ 학제
 - ④ 의무 교육 제도
 - ⑤ 교육행·재정
 - ⑥ 교원 체제
- 4) 주요국의 교육 제도 發展方向 및 계획 비교·분석
 - (1) 교육 제도 발전 계획 수립의 배경 파악
 - (2) 교육 제도 발전 계획 분석
- 5) 한국 교육 제도 개혁을 위한 示唆點 추출
 - (1) 교육 제도 측면
 - (2) 교육 제도 외적 측면

Ⅲ. 研究의 方法

이 연구는 비교 교육학적 접근 방법에 의하여 비교·분석하는데, 비교·분석을 위해 철학적,

역사적, 사회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文獻研究

주요국의 교육 제도 관련 법규 및 실태 분석 자료, 기존 연구물 등을 수집·분석하여 그 개혁 동향을 파악한다.

2) 面接法

주요국의 교육 제도 파악을 심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 관련 기관을 출장하여 관계자와의 면접을 실시한다.

3) 意見調査

주요국의 교육 제도 및 그 개혁 동향 비교·분석을 통해 추출된 시사점에 대해 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4) 諮問協議會 運營

연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협의회를 두어, 교육 제도 비교·분석과 그 개혁 동향 파악의 정확을 기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수행될 主要國의 教育制度 改革 動向 비교·분석 연구로서 얻어진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제도 비교·분석 모형이 구안되어 이와 유사한 형태의 후속 연구에 기본적인 틀(frame)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요국의 교육 제도가 교육 제도의 기본 요소별로 비교·분석되어, 우리의 교육 제도 개선에의 시사점 추출이 용이해질 것이다.

셋째, 주요국이 계획하고 있는 교육 제도 장기 발전 구상이 비교·분석됨으로써, 우리의 2000년대를 향한 교육 장기 발전 구상에 좀더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암시를 줄 것이다. —◆

教育行政의 自律化方案

鄭 贊 永*

I.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學校의 重要 特性은 多樣的 生活環境과 潛在 能力을 가진 學生들이 모인 組織體이며, 전문 職으로서의 敎員이 이러한 學生들을 올바로 成長·發達할 수 있도록 多樣하게 敎育活動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他律보다는 自律이, 획일성보다는 多樣성이, 타성보다는 창의성이 尊重되어야 하며 이는 民主敎育發展의 기반이 된다.

敎育行政은 이러한 特性을 가진 학교에서 敎育活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발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奉仕活動이다. 즉 敎育行政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敎育 활동의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본래의 機能에 충실하기 위하여는 自律性을 전제로 多樣성, 창의성, 전문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敎育行政體制는 의사 결정 권한이 행정 조직의 상층부에 과다하게 集中되어 있는 中央集權型으로 劃一性, 硬直性으로 인하여 地方敎育行政 및 單位學校의 행정 운영에서 자율성이 크게 제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획일성, 경직성은 學生選拔, 敎育課程編成·運營, 學生指導 및 財政的 支援 등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지역 또는 학교의 特性이 고려되어 學校敎育이 多樣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地域單位敎育行政機關 및 一線學校에서의 자율성의 증대가 요청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우

리 나라 敎育行政體制의 현황 및 문제점을 診斷·評價하여 學校長中心의 行政體制, 敎壇爲主의 행정 체제의 발전에 초점을 두어 敎育 행정의 자율성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敎育行政의 본질에 터하여 자율성 개념을 규명한다.

둘째, 敎育行政의 自律性準據를 설정한다.

셋째, 설정된 준거에 터하여 敎育 행정 제도의 현황을 分析하고 敎育 행정의 자율성을 沮害하는 요인 및 當面課題를 추출한다.

넷째, 향후 地方自治制實施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初·中等學校에서의 學校長中心의 행정 체제, 敎壇爲主의 행정 체제의 발전에 초점을 두어 敎育 행정의 자율성 증대 방안을 모색한다.

II. 研究內容

1. 敎育行政의 本質 및 敎育行政에서의 自律性 概念定立

- 1) 敎育 행정의 本質 및 機能
- 2) 敎育 행정에서의 自律性概念
- 3) 敎育 행정에서의 權限과 自律性
- 4) 敎育 행정의 自律性準據 設定
- 5) 敎育 행정의 自律化 施策 變遷 과정 分析

2. 主要國의 敎育 행정 제도 發展動向

- 1) 발전 동향 파악
대상국—미국, 일본, 프랑스
- 2) 시사점 추출

* 敎育發展研究部·敎育行政研究室長·哲博

3. 教育行政制度의 현황 파악 및 當面問題 點 抽出

- 1) 교육 행정 조직·운영(중앙, 지방)
- 2) 일선 학교 조직·운영(학교장의 기능 및 역할 분석, 직무 분석 포함)

4. 教育行政의 자율화 방향 설정

- 1) 교육 행정 조직의 分權化
- 2) 교육 행정 운영·절차의 民主化·簡素化—의사 결정의 合理化
- 3) 교육 행정 요원의 專門化
- 4) 교육 행정 업무·학교 업무의 體系化
- 5) 장학 지도의 內實化
- 6) 행·재정 지원 체제의 合理化

5. 教育行政의 자율성 증대 방안

- 1) 향후 교육 체제 변화 전망
- 2) 지방 교육 행정의 효율화 방안
- 3) 학교장 중심, 교단 중심의 교육 행정 체제로의 발전 방안

Ⅲ. 研究方法

1. 文獻研究

- 1) 교육 행정의 이론과 실제에 관련된 文獻考察
- 2) 우리 나라 교육 행정 제도에 관한 先行研究 자료 분석
- 3) 교육 행정의 자율성 및 권한 위임에 관련된 법규와 관계 자료 분석
- 4)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된 관계 자료 분석
- 5) 외국의 교육 행정 제도 및 최근의 동향에 관한 문헌 고찰

2. 教育行政 自律化實態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調查研究

1) 質問紙調查

(1) 調查對象

- 표집 방법 : 유층 표집
- 대상자 : 초·중·고 교사·교감·교장, 교육

(구)청 및 교육 위원회 일반직·전문직 1700 명
(2) 조사 도구 : 교육 행정 자율화 현황 및 요구 조사 질문지 3종

- 초·중등 학교 교사용 질문지
- 초·중등 학교 행정가용 질문지
- 교육(구)청, 교육 위원회 행정가용 질문지

(3) 자료 분석 방법

- 빈도(백분율)에 따른 내용 분석
- 내용 및 기관·대상자에 따른 변량(ANOVA)분석

2) 面接調查

(1) 조사 대상

- 표집 방법 : 유층표집
- 대상 기관 : 초·중·고, 교육(구)청, 교육 위원회

(2) 조사 도구 : 교육 행정 자율화 요구 조사 면담지 3종

- 초·중등 학교 교사용 면담지
- 초·중등 학교 행정가용 면담지
- 교육(구)청, 교육 위원회 행정가용 면담지

(3) 자료 분석 방법 : 내용 분석

3. 教育行政의 自律化方向摸索을 위한 워크숍

- 참가 대상 : 초·중·고 교원 및 행정 담당자 12명

4. 專門家協議會運營

- 1) 1차 협의회 : 연구 방향 정립 및 연구 내용·방법 검토
- 2) 2차 협의회 : 교육 행정 자율화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질문지 검토
- 3) 3차 협의회 : 교육 행정 자율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추출

Ⅳ. 研究의 期待效果

- 가. 教育行政의 自律性 概念定立
- 나. 敎壇中心, 一線學校長中心의 教育行政政體制 발전 방안 제시
- 다. 教育自治制實施時 教育 행정 제도 개선에 필요한 資料提供

教育財政의 效率的 配分方案

孔 銀 培*

1. 研究의 趣旨 및 目的

우리 나라 교육은 해방 이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해 왔다. 이와 같은 교육의 발전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教育財政의 投資라고 할 수 있다. 해방 당시의 우리 나라 문교 예산은 정부 예산의 4%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6년에는 그 비율이 20%로 나타나고 있듯이 정이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문교 예산은 소관별 정부 예산 중에서 방위비 다음으로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 받고 있으며, 여기에 학생·학부모가 교육을 위하여 직접 부담하는 公·私教育費까지 합한 直接教育費는 GNP 대비 10%를 훨씬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교육 부문에 투자하고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파생된 교육의 문제는 초등 교육에서부터 고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산적해 있다. 과밀 학급, 과대 규모 학교 등과 같이 교육 여건이 악화되어 있으며, 중학교 義務教育의 定着化와 高校平準化 등과 같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私學의 財政難, 교원의 낮은 봉급 수준 등의 문제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앞으로 대두될 국내·외적인 교육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교육 발전을 지원·가속화시키기 위한 財政需要는 한층 더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교육 재정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교

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 재정의 절대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경주도 주어진 재정을 합리적으로 配分·活用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원 확보 못지않게 확보된 재정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經費의 支出效果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도 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확보된 교육 재정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는 教育財政의 絕對規模를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 재정의 합리적 배분은 학교급별, 지역별 교육의 균형 발전을 지원·촉진시킬 수 있으며,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 재정 배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最低所要教育費를 보장하여 教育必要를 균등화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 배분의 문제는 可用財源이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대두되지만 지출해야 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하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제기된다. 왜냐하면 한정적인 교육 재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수반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 재정의 배분이란 크게 國庫를 재원으로 한 文教豫算이 국립 교육 기관, 학·예술 기관, 시·도 교육 위원회 및 시·군 교육청의 예산에 배분·계상되는 차원과 시·도

* 教育發展研究部·教育經濟研究室長·責任研究員

교육 위원회 및 시·군 교육청이 문교 예산으로부터 하달된 예산과 自體歲入을 기초로 이를 公立의 각급 학교 교육비로 배분하는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사립 학교에도 이러한 예산의 일부가 배분되고 있는 것도 감안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 나라 教育財政의 배분은 學校當·學級當 經費와 같은 單位經費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단계별로 학교 설립 형태, 지역, 학교·학급 규모 및 기타 여러 가지 학교의 특성에 따라, 배분 결과에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환언한다면 학생 1인당 교육비에는 많은 隔差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교육 재정의 배분은 학생의 교육 필요를 충족시키며, 최저 소요 교육비를 균등하게 보장해 주는 데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解決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教育財政과 관련하여 수행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교육 재원의 확보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어 왔다. 교육 재정의 배분에 관해서는 財源確保 내지는 이와 유사한 연구가 수행되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 재정의 전반적인 영역 및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考慮할 때 그 합리적인 배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한정적으로 확보된 교육 재정을 합리적으로 配分하기 위한 準據 및 模型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나라 교육 재정의 배분 방안 개선을 위한 政策判斷資料를 추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研究內容

이 연구의 목적을 達成시키기 위한 연구 내용으로는 우선 교육 재정의 配分準據 및 그 模型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한다. 均等性, 公正性, 效率性 등과 같은 準據의 고찰과 배분 모형의 종류, 재정 배분에서 중앙·지방 정부의 역

할, 행·재정 제도의 유기적 관계, 배분 모형의 변천 추세 등을 분석한다.

둘째, 우리 나라 교육 재정의 배분 실태를 분석한다. 즉 교육 재정의 配分次元과 그 過程 및 基準를 분석하고, 학교급별, 지역별, 학교·학급 규모별 재정의 배분 규모를 비교·분석하고 전체적인 문제점을 추출한다.

셋째, 교육 재정 배분의 代案的인 模型을 수립한다. 배분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모형을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모형 수립의 기본전제 및 방향에 터하여 지방 자치 단체 및 학교급별 배분 모형을 수립한다.

넷째, 代案的인 교육 재정 배분 모형의 適用可能性을 탐색한다. 지방 자치 단체 및 학교급별로 現制度와 대안적인 모형 적용시의 재정 배분의 차이를 추출하며, 대안적인 模型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다섯째, 우리 나라 교육 재정 배분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전개한다. 교육 재정 배분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추출, 관련 법규의 개정과 관련한 논거 추출, 그리고 교육의 지방 자치제와 教育財政에 관한 유기적인 관련성을 분석·추출한다.

3. 研究方法

이상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 재정·경제에 관련되는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과 각종 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교육 재정 배분에 관한 요구, 문제 의식, 배분 규모 등의 把握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대안적인 모형의 검토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수행으로 효율적인 교육 재정의 배분 모형이 설정될 수 있으며, 한정된 교육 경비의 支出效果를 極大化시킬 수 있는 교육 재정 배분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 판단 기초 자료의 추출이 期待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教員資質向上 및 處遇改善方案 研究

朴 德 圭*

1. 研究의 必要性

학교 교육에 있어서 그 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매우 많으나 그 중에서도 교사의 教育的 役割과 기능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교육 내용과 방법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교육 여건이 갖추어 진다해도 教師의 質이 낮거나, 혹은 질 높은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教育行爲에서 투철한 사명감에 의한 교육자적 역량이發揮되지 않는다면 학교 교육 본질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教育的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예컨대 우수한 교사의 특성을 규명하고, 교사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학습자의 學習成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연구는 물론 教員政策에 관한 양성 제도, 자격증 제도, 현직 교육 제도 등 인사 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고, 교원 정책 전반에 걸쳐 資質과 處遇關係를 동일 차원에서 상호 분리시킬 수 없는 한가지 領域으로 고찰하여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인 교사의 모든 것을 정립한 연구는 없었다.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고교 졸업생들이 교사 교육 기관에 입학 하여 교사로 교육되고, 資格證을 받아 임용된 후 한 평생을 배우며 가르치는 교직에 奉職하도록 하는 데 자발적인 동기 유발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제도에 必須的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직에 몸담고 있는 당

사자들의 生業에 불만 요소가 없도록 하는 보수, 승진, 후생 복지, 근무 조건 그리고 기타 사회적으로 교사를 優待하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제도가 현대 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側面에서의 교원 정책적인 차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교직 유인 체제의 강화라고 할수 있다.

교직을 인기있는 직종으로 만들어 누구나 教師가 되고자 원하도록 한다면 人間教育의 중요성 만큼 교육의 본질적 문제는 거의 解決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직 풍토는 “사기 저하”, “교권 확립”, “교직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격하” 등등 教育의 危機를 내포한 현기증 나는 많은 낱말들이 증명하듯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더우기 교직 유인 체제의 허약성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경제적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높은 離職率을 나타냈고, 이러한 일시적 현상의 높은 이직율은 교원 정책에 있어서의 수급 계획의 눈을 멀게 하여 景氣沈滯와 함께 과잉 공급의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교원 적체 현상까지 몰고 왔으며, 급기야는 교원 양성 기관의 입학 정원의 미달 현상을 야기시켰다. 미달 현상 자체는 별 문제가 없으나 支援者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교원의 사기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은 다시 근본적인 유인 체제가 더욱 약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약화된 유인 체제와 저하된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教師후보의 선발, 교사 직전 교육, 자격 부여 및

* 教育發展研究部·教員教育研究室長·教育學博士

임용 과정, 현직 교육 등을 통하여 질을 통제하여 아무나 교사가 될수 없게 하며 다른 한편, 敎員處遇에 속하는 보수, 승진, 후생 복지와 근무 조건을 개선하여 질 좋은 교사들이 敎育者의 矜持와 優越性, 생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며, 평생을 제자들과 함께 지낼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구상된 것이며, 동시에 敎育改革審議會에서도 교원 양성 제도와 질적 향상 및 사기 양양 향상 방안과 현직 교원 재교육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연구로 遂行될 것이다.

2. 研究의 目的

앞에서 기술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질 높은 교원을 確保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할 수 있는 敎員政策 方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였다.

- 1) 교사 교육 기관의 학생 선발,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 자격 제도, 임용 방법상의 문제점을 敎師의 質 관리의 측면에서 추출
- 2) 교직의 社會, 經濟的 지위 측면에서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추출
- 3) 추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敎員의 資質向上 및 처우 개선 방안 수립
- 4) 양성 제도, 질적 향상, 사기 양양 방안과 現職敎育制度 개선안을 교육 개혁 심의회에 답신 형태로 報告
- 5) 교원 정책의 종합적인 代案 提示

3. 研究內容

이 연구는 크게 두가지 영역의 연구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資質向上을 위한 모든 내용이며 둘째는 유인체제 강화를 위한 처우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구체화 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부 資質向上方案

1. 학생 선발 방법
2. 양성 제도
3. 자격 및 임용 제도
4. 현직 교육 제도

제 2 부 處遇改善方案

1. 보수
2. 진급
3. 후생 복지
4. 근무 조건
5. 기타 사회적 우대 방안

4. 研究方法

위와 같은 연구 내용에 따라 연구 방법의 핵심은 文獻研究가 될 것이며, 문제 의식의 확실한 정립을 위하여 조사 연구가 포함된다. 研究過程에서 충분한 학술적인 참고 자료와 증언, 여론 수렴을 위하여 위 방법에 전문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며 특히, 敎育改革審議會와 상론하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충분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5. 期待되는 效果

교원 문제 및 교원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로서 다음의 효과를 誘導할 수 있을 것이다.

- 1) 敎員政策의 종합적인 청사진 제시
- 2) 자질 향상 및 處遇改善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 할수 있으며
- 3) 敎育改革審議會에 정책안 제시

韓國教育政策의 理念分析 研究(第2次年度)

鄭 永 壽*

I.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해방 이후 한국의 教育政策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教育政策의 수립과 변화는 어떠한 教育理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여 보는 것은 향후 한국 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하여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教育政策이나 教育計劃의 수립은 현존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교육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또한 미래 지향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가 자라고 변천하여 온 삶의 歷史를 갖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社會 역시 歷史의 소산물이란 것을 생각할 때에 인간의 교육 역시 歷史의 소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 한국 社會에 전개되고 있는 教育政策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의 나아갈 바를 밝히기 위하여는 한국의 教育政策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하여 왔으며, 그것의 이념적 배경은 무엇이었던가를 규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의 教育政策을 살펴보면 표면화된 教育理念과 教育目的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구현 방법도 일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教育理念이 명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부재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념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명시된 이념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모든 활동에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教育理念은 교육적 행위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근

본원리로서 그것이 교육 실천으로 구체화될 때에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된다. 따라서, 教育理念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설정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의사 집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教育理念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문화적 전통과 역사적 사상이 함께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社會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본적인 價値體系가 스며들어야 한다. 즉, 教育理念은 단순한 문서나 구호에 그치지 말고 교육 활동 전반에 내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教育政策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教育政策이 어떠한 社會·경제·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형성되었고, 실제 교육 활동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教育政策이 내포하고 있는 이념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러한 教育政策의 理念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教育政策의 수립과 教育理念의 형성 및 그 변천 과정을 시기에 따라 3 개년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차년도인 1985년에는 해방 이후 1960년까지의 教育政策을 분석하고, 그것이 추구하였던 教育理念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제 2 차년도인 금년에는 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마지막 해인 1987년에는 80년대의 教育政策과 教育理念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시기 구분에 따라 3 개년에 걸쳐 수행되어질 전반적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教育政策 형성의 要因分析
2. 教育政策의 수립 과정 分析
3. 教育政策에 반영된 教育理念考察

* 教育發展研究部·教育史·哲學研究室長·哲博

4. 教育理念이 學校教育 현실에 미친 영향
5. 教育理念, 教育政策 및 學校教育의 연계성 고찰을 통한 教育理念의 공과 분석
6. 한국 교육 이념의 방향 및 教育理念이 教育政策 및 學校教育에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

II. 研究內容

(연구 대상 시기 : 1960년~1979년)

1. 教育政策 형성의 要因分析
 - 정치·경제적 배경
 - 사회·문화적 배경
2. 主要教育政策 분석
 - 향토 학교 운동
 - 과학·기술 교육
 - 새마을 교육
 - 안보 교육
 - 국민 교육 현장
 - 유신 교육
 - 중학교 무시험 입학
 - 고교 평준화
 - 고등 교육의 개혁
 - 사립 학교의 제도 정비
3. 教育政策이 學校教育에 미친 영향
 - 교육 목표 측면
 - 교육 내용 측면
 - 교육 방법 측면
4. 教育政策의 理念에 대한 논의
 - 국가 발전과 교육(근대화)
 - 국민 의식 개혁과 교육(정치 사회화)
 - 교육의 양적 팽창과 교육 제도의 개선(학교 교육 정상화)

III. 研究方法

1. 文獻研究
 - 교육 이념 및 교육 정책에 관한 국내·외 문헌 분석

—한국의 교육 이념 및 교육 정책의 전개 과정에 관한 문헌 분석

2. 基礎資料 分析

-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관한 기초 자료 : 문교 법령, 판보, 국회 속기록 등
- 주요 일간 신문 기사
- 정기 간행물 : 새교육, 사상계, 신동아, 등

3. 協議會 開催

- 연구 계획 상세화를 위한 협의회
- 교육 정책의 형성 배경 분석을 위한 협의회
- 교육 정책에 제시된 교육 이념 추출을 위한 협의회
- 교육 정책의 이념에 대한 논의를 위한 협의회

4. 面談調査 實施

가. 목적 : 교육계 원로들로부터 교육 정책 수립 과정, 교육 정책의 이념에 관한 의견 수집

나. 조사 내용

- 주요 교육 정책의 수립 과정
- 교육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 요인
- 교육 정책의 바탕이 되는 교육 이념
- 교육 정책의 학교 교육에 대한 효과
- 교육 이념 및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5. 質問紙 調査

가. 목적 : 당시의 일선 교육자들로부터 교육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의견 수집

나. 조사 내용

- 당시의 학교 교육 현장 실태
- 교육 이념 및 교육 정책의 학교 현장 반영도
- 교육 이념 및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IV. 期待되는 效果

1.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의 수립에 기여
2. 한국 교육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 제시
3. 국민의 올바른 교육관 형성에 기여 ◆

特殊教育 振興方案 研究

尹 點 龍*

I.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特殊兒童은 항상 존재해 왔다”. 현대의 과학이나 醫術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특수 아동의 出現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이 민주적 교육이념으로 강조된 이후로 特殊教育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최근들어 특수 교육은 한 나라 文明의 尺度로서, 이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나라는 발전된 教育制度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90여 년의 연륜을 쌓은 우리 나라의 특수 교육은 福祉國家를 지향하는 제 5공화국 출범 이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 수준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10% 정도의 就學率, 15명 이상을 강요하는 학급당 인원 수 專擔機構의 不在, 경험에만 의존하는 교수 방법, 취업과 동떨어진 직업 교육, 사회 전반의 이해 부족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文敎部에서는 지난 '80년 「特殊教育 綜合振興計劃」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本院에서도 '88년 '특수 교육 현황 분석 연구'에 이어 특수 아동 지원 체제 개선 연구', '정신 박약아 직업 교육 과정 모형 개발', 그리고 특수 아동 관별과 교육적 조치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여 特殊教育發展에 이바지하여 왔다.

복지 사회 건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88 서울 국제 장애인 올림픽' 개최를 앞둔 現時點에서 지금까지 수행한 특수 교육의 정책 및 교육 내

용을 다각적으로 진단해 보고 새로운 發展方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現行特殊教育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특수 아동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수 교육 발전 방안을 構案하는 데 그 目的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특수 교육의 現況과 問題點을 파악하고

둘째, 주요 선진국의 특수 교육 發展過程과 動向을 비교·분석하여

셋째, 특수 교육 發展方向을 설정하고 이에 더한 振興方案을 수립한다.

II. 研究內容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研究하고자 한다.

1. 우리 나라 特殊教育 現況과 問題點 把握

전국 특수 교육 기관과 市·道敎委를 대상으로 學校 現況, 교육 과정 教材, 敎具의 활용 判別業務, 직업 교육 현황, 그리고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건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分析한다.

2. 先進國의 特殊教育 發展過程과 動向比較 分析

미국, 일본, 서독을 대상국으로 특수 교육 발

* 教育發展研究部·研究員

전 과정, 관계 법규와 財政支援, 특수 교육 기관의 現況, 敎育課程, 특수 교원 양성, 早期敎育 現況, 특수 아동의 직업 敎育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3. 特殊敎育 發展方向 設定과 振興方案 樹立

- 1) 발전 방향 설정
- 2) 진흥 방안 수립
 - (1) 효율적인 특수 교육의 行·財政的 支援體制
 - 특수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 시설과 설비 기준의 合理化
 - 關係法規의 정비
 - (2)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敎授-學習方法
 - 교육 과정의 효과적인 운영
 - 교재·교구 개발
 - 個別化 프로그램의 다양화
 - (3) 특수 교육 專門人力 養成方案
 - 특수 학교 교원의 자격 제도 개선
 - 전문인력 養成課程의 개발 및 개정
 - 특수 교사 再敎育 프로그램 개발
 - (4) 特殊兒의 早期敎育 實現方案
 - 障礙兒童 신고의 의무화
 - 임신부의 정기 건강 진단의 제도화
 - 특수 아동 유아원 설치 운영
 - (5) 特殊兒의 職業敎育 育成方案
 - 障礙領域別 직업 敎育 과정의 정상화
 - 장애인 고용 촉진법
 - 직업 敎育과 產學協同體制 구축

III. 研究方法

1. 名種 文獻 및 情報資料 蒐集分析

국내·외 특수 교육 관련 문헌을 연구하여 3개국(미국, 일본, 서독)의 특수 교육을 내용별로 비교·분석하며, 90개 특수 학교의 學校要覽을 分析해 본다.

2. 專門家協議會

연구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특수 교육 전문가

10여 명을 초빙하여 '86년 2월말경 협의회를 개최한다.

3. 現況把握을 위한 出張

우리 나라 특수 교육 現況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市·道敎委, 특수 학교, 특수 학급, 특수 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지 출장을 통한 자료 수집 및 面談調查를 '86년 3월 중순경 실시한다.

4. 세미나 開催

1) 講演內容

- (1) 기초 강연: 特殊敎育의 發展方向과 課題
- (2) 주제 강연: 효율적인 특수 교육의 行·財政的 支援體制

-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敎授-學習方法
- 特殊敎育 專門人力養成
- 特殊兒童의 早期敎育實現
- 特殊兒童의 職業敎育育成

2) 發表者: 22명(기초 강연 1명, 주제 강연 5명, 사회 및 토론 15명 종합 발표 1명)

3) 參席對象: 170명(문교부 및 교육 개혁 심의회 8명, 시·도 교위 담당 장학사 13명, 특수 敎育과 敎수 20명, 특수 학교 敎장 90명, 특수 학급 담당 교사 30명, 관계 연구 기관 및 기자 9명)

4) 豫定日時: '86년 5월 말경

IV. 期待되는 效果

이 研究의 結果는 특수 敎育 政策樹立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며 특수 敎育의 發展方向 제시와 質的向上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特殊兒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韓國人의 教育觀

裴 天 雄*

1. 研究目的

教育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또한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 바람직한 인간의 발달을 촉진함에 있으나 '인간다움'과 '바람직함'의 구체적인 면은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教育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때 사회와 유리되거나 고립된 教育活動은 존재하기 힘들다. 教育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과 교육 활동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우리 나라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제측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성장하여 왔다. 해방 후 수립된 公教育制度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왔으며,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온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의 目的, 內容, 方法, 制度 및 그 운영 등 많은 영역에서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학교 교육의 목적과 내용의 적합성의 미흡, 교육의 질적 저하, 과잉 입시 경쟁 등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解決하거나 改善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개편, 교육 제도의 개혁 등 많은 政策들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교육 자체의 내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政治, 經濟, 社會 등의 외적 변

수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또한 위의 제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教育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교육의 문제는 구조 기능상의 문제로 把握할 수도 있지만 교육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화를 통하여 어떤 교육 현상이 문제로서 대두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 의식은 국민들의 教育觀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教育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 분석은 우리 나라의 장기적인 교육 발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의 목적 활동은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期待와 要求를 수렴하여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教育觀이 教育發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教育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教育觀을 밝히려는 연구의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歷史的, 哲學的 입장에서 한국인의 전통적 사상에 흐르는 교육의 이념을 탐색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인 접근으로, 조사 방법을 통하여 社會構成員의 教育觀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弘益人間, 선비 사상 등으로 표현되는 교육의 이념은 우리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 속에서 생성된 교육의 이념으로 한국인의 教育觀의 기저를 이루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教育의 理念을 제시하는 면이 강한 반면, 현재의 教育觀을 분석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즉 사회의 근대화와 함께 가치관

* 教育發展研究部·教育社會研究室長·哲博

이 변화하는 것을 認定한다면 문화 전통적인 측면에서만 한국인의 교육관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오도된 교육관' '출세 위주의 교육관' 등 한국인의 교육관에 대하여 批判하고, 이러한 교육관이 우리 나라의 교육 문제를 유발하거나 학교 교육이 기대하는 목표를 實現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學校教育의 목표, 내용, 방법, 제도 및 운영으로부터 문제를 보는 시각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다양한 교육 현상에 대한 국민의 교육관을 실증적인 調查研究를 통하여 밝히고,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 및 활동에 대한 국민의 價値評價와 합일점을 알아내며, 나아가 교육 발전에 가능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遂行되는 것이다.

2. 研究內容

위와 같은 목적에서 수행되는 이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관의 개념 정의 및 유형화
2. 한국인의 일반적 교육관 분석
3. 한국인의 학교 교육에 관한 교육관 분석

4. 한국인의 교육관 형성 배경
5. 현재 대두되는 교육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6. 바람직한 교육관 형성을 위한 시사점 제시

3. 研究方法

이 연구의 연구 방법은 調查研究, 文獻研究 및 關聯專門家의 협의회이다. 먼저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관 조사를 통하여 일반적 교육관, 학교 교육관, 교육 문제 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집단별로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文獻研究를 통하여 한국인의 교육관의 형성 요인을 歷史的, 社會的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이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교육관 형성을 위한 방안을 摸索하고자 한다.

4. 期待되는 效果

이 연구를 통하여 韓國人의 教育觀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밝히고, 그 형성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나라 국민의 교육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誘導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教育發展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韓)(國)(教)(育)(開)(發)(院)(研)(究)(叢)(書) 1

☆廣範한 研究領域 ☆豐富한 事例研究
教育行政體系의 새 構案書

教育行政制度의 發展

弘益大 教授 徐 廷 華 編著
豪華洋裝 크라운版 235 페이지
民族文化文庫刊行會 發行

平生教育 振興方案 研究

趙 錫 浩*

I.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현대 사회의 多樣하고 가속적인 변동의 특성들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평생에 걸쳐 계속하여 학습하도록 만드는 주요 動因으로 작용한다. 변동의 주된 樣相으로는 급격한 科學技術의 변동과 지식·정보의 폭증, 직업 세계의 구조적 변모와 전문화 등과 같은 원초적 변동과 그로 인한 파생적 변동 양태 즉, 餘假概念의 변화와 증대, 문화적 욕구의 상승 가치의 다원화와 인간 소외, 교육의 위기 도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변동의 제 양태와 그로 인한 도전과 위기들은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 체제만으로는 克服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된다. 일생의 한 시기에 받게 되는 일회적인 학교 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변동하는 사회에 適應하고 대처하기 어려우며, 기존의 교육 체제는 이들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요구들을 수렴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많은 한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모든 社會構成員의 평생에 걸친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를 提供하는 책임을 학교 교육에게만 전가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기존의 教育體制가 처해있는 세계적인 교육의 危機와 관련하여 Coombs는 교육 재정의 한계성, 극심한 교육 자원난, 교육 산출의 부적합성, 교육 체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라는 네가지 현상을 논의하였으며, 危機克服의 전략으로서 비형식 교육의 강화와 형식·비형식 교육의 균형

발전을 역설하고 있다(Coombs, 1968).

學校教育의 한계성과 역기능에 대한 비판론들은 Coombs가 지적한 것 외에도 教育機會 및 산출의 불평등성, 획일성, 폐쇄성이라는 몇 가지 새로운 측면에서 논의를 첨가하고 있으며, Illich나 Rheimer 등의 급진적인 비판자들은 탈학교론, 학교 교육 사망론 등의 학교 교육 부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대 이후 학교 교육의 限界성과 逆機能성에 대한 비판론이 회자되면서 이들 각성과 비판의 움직임들은 평생 교육이라는 교육 이념으로 수렴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平生教育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자주 논의되어 왔으며, 教育實踐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평생 교육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논의나 실천적 교육 활동들은 충분한 이론적 기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이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체계적인 발전이나 효율화를 期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평생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평생 교육 이념의 형성 배경이나 개념 정립 또는 단편적인 실태 조사나 要求調查의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다양한 평생 교육 활동과 현상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이들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한 평생 교육 발전의 基本方向이나 체제 정립 및 구체적인 발전들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평생 교육의 진흥을 위한 일차적 과제로서 평생 교육의 이념 체제, 교육 내

* 教育發展研究部·平生教育研究室長·責任研究員

용·방법·운영의 세차원에서 평생 교육 발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터하여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平生教育理念 및 體制模型을 탐색한다.

둘째, 평생 교육 실태를 유형별로 분석한다.

셋째, 이론적 모형과 실태 분석 결과에 터하여 平生教育發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넷째, 설정된 기본 방향에 터하여 평생 교육 진흥을 위한 長·短期 發展戰略을 이념, 체제, 내용 및 방법 운영의 측면에서 수립한다.

II. 研究內容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생 교육 이념 형성 및 발전 과정에 작용하는 社會·文化的 배경 요인 분석
 - 과학 기술의 변동과 지식 정보의 급증
 - 職業構造의 변모와 지식 산업의 팽대
 - 가족 구조의 변모와 생애 주기의 변환
 - 여가 시간의 증대와 수명 연장
 - 교육적 욕구 수준의 향상
2. 기존 교육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限界性和 逆機能 分析
 - 교육 시기의 한정성
 - 교육 기회 제한성
 - 교육 기회 배분의 불균형성
 - 교육 제도의 폐쇄성과 경직성
 - 교육 운영의 획일성
 - 교육 내용의 편포성
 - 교육 부문, 영역간의 연계 결여
3. 平生教育의 機念 및 體制定立을 위한 이론적 모형의 개발
 - 기존 유관 문헌에 제시된 평생 교육의 개념 모형, 조직 모형, 제도 모형의 검토
 - 한국의 평생 교육 개념 및 체제 모형 개발
4. 韓國의 평생 교육 체제와 교육 실태 분석

- 평생 교육 유관 법규와 행정 체제 분석
 - 평생 교육 실시 기관 유형별 실태 분석
 - 평생 교육 내용 領域別 實態 分析
 - 평생 교육 주 대상 집단별 실태 분석
5. 平生教育 發展의 저해 요인 및 문제점 분석
 - 평생 교육 이념 정립의 측면
 - 평생 교육 체제의 측면
 - 평생 교육 내용 및 方法·運營의 側面
 6. 외국의 평생 교육 체제 및 發展戰略, 최근의 改革動向 分析
 - 대상국의 평생 교육 체제, 발전 전략, 개혁 동향의 비교 분석
 - 한국의 평생 교육 發展方案 추출을 위한 시사점 도출
 7. 평생 교육 발전의 基本方向設定
 - 교육 이념의 측면
 - 교육 체제의 측면
 - 교육 내용 및 방법·운영의 측면
 8. 평생 교육 발전의 長·短期戰略 및 方案探索
 - 평생 교육 이념 측면에서의 발전 전략과 방안
 - 평생 교육 체제 측면에서의 발전 전략과 방안
 - 평생 교육 내용 및 방법·운영 측면에서의 발전 전략과 방안

III. 研究方法

1. 관련 문헌 및 資料檢討·分析
 - 연구 내용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유관 자료 검토·분석
2. 實態分析을 조사 실시
 - 조사 도구: 기관용, 교육 참여자용 질문지 각 1종
 - 조사 방법: 현지 방문 조사 및 우편 조사
 - 조사 내용: 평생 교육 체제, 실시 목적, 내용, 방법, 운영 방식 등
 - 조사 대상: 평생 교육 실시 기관 및 교육 참여자
3. 델파이 調査

《특 집》

- 조사 대상 : 전문가, 정책 결정자, 실무자 등
- 조사 방법 : 2회에 걸친 회의 형식의 델파이 조사(Conference Delphi)
- 조사 내용 : 평생 교육 發展 및 實施上의 障礙 요인 및 문제점
- 평생 교육 발전의 기본 방향 및 장·단기 전략

4. 전문가 協議會 運營

- 1차 : 연구 계획 확정을 위한 협의회
- 2차 : 실태 분석을 위한 조사 도구의 개발 및 검토 협의회

- 3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
- 4차 : 장·단기 전략 및 振興方案을 수립을 위한 협의회

Ⅳ. 期待되는 效果

- 한국적 상황에서의 평생 교육 개념 및 체제 모형 정립
- 평생 교육 정책 결정의 기본 방향 제시
- 평생 교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現場教育相談問題 公募

教育現場에서 겪는 問題나 그 밖의 教育에 관한 質疑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적어(形式:自由) 보내 주시면 專門家의 명확한 應答과 함께 本誌에 掲載해 드리겠습니다.

단, 內容에 따라 公開應答해 줄 필요가 없는 質疑에 대하여는 質疑者에 個別的으로 應答해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事項을 보내실 때는 所屬, 職位, 姓名을 明記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江南區 牛眠洞 山 20-1

韓國教育開發院 出版室

우편번호 : 135

教育施設 國際比較 研究

崔 清 一*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教育의 質을 결정하는 要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人的 要素로서 教育 制度 내 에 투입되는 학생의 질을 들 수 있겠고 또 다른 인적 要素로서 교사의 질 역시 教育의 成果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要素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過程的 要素로서의 행정 운영의 질도 教育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要素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 못지 않게 중요한 教育의 질 결정 要素의 하나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인 教育施設·設備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우수한 學生과 教師가 있다고 할지라도 教育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기대하는 바 教育의 成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 간 韓國의 教育 시설·설비에 관하여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는 바 특히 그것의 기준령이 각급 학교의 教育 기능과 적절한 調和를 이룬 明瞭한 것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다. 또한 그 기준령에 있어서도 적절성의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현행 教育 시설·설비의 概念 및 分類上의 모호성(김 영철·공 은배 1981), 시설·설비의 地域間隔差(박 태길, 1980), 시설·설비의 共用的 多目的 기능의 미흡(유 향산, 1984) 등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함께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 教育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설비의 基準를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자료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러한 판단에 기초가 될 만한 연구들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것이다. 한국의 현행 教育 시설 기준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우리의 教育 현실을 보다 客觀化하기 위해서는 主要國의 그것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진 主要國 및 한국과 發展速度가 유사한 국가의 教育 시설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教育 여건 개선에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研究目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主要國의 教育 시설의 개념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主要國의 教育 시설 비교 분석을 위한 준거 모형을 작성한다. 셋째, 설정된 준거 모형에 터한 主要國의 教育 시설 설비 현황을 비교·분석한다. 넷째, 한국의 教育 시설 기준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研究의 內容

이 연구에서 비교되는 대상국으로는 잠정적이거나 경제 수준(GNP)을 기준으로 10여 개국으로 정하였다. 선진국에는 美國·西獨·英國·프랑스·日本 등이, 중진국에는 대만·싱가폴·멕시코·브라질 등이 포함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주요국의 교육 시설의 개념 분석

- 각급 학교별 교육 기능 분석
- 교육의 기능에 따른 시설 개념 분석

2) 교육 시설의 유형별 비교 분석 준거 작성

- 교육 연구 기능 시설
- 실습 기능 시설
- 학생 지원 시설
- 복지 후생 기능 시설
- 관리 지원 기능 시설
- 공용 시설 등

3) 한국의 교육 시설 현황 실태 조사 및 문제 분석

- 각급 학교별 시설 현황
- 각급 학교별·유형별 교육 시설 문제 분석

4) 주요국의 교육 시설 기준령 분석

- 법적 근거
- 활용 실태
- 기준치 비교 분석

5) 주요국의 교육 시설 확보 현황 조사 및 비교 분석

- 외곽 시설 현황
- 내부 시설 현황

6) 한국의 교육 시설 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 적 시사점 도출

3. 研究方法 및 節次

1) 文獻 및 資料蒐集分析

비교 대상국의 교육 시설 기준령집, 교육 시설 보유 현황, 교육 시설의 개념 분류에 관련한 기존의 문헌을 수집·분석한다. 比較對象國의 駐韓大使館의 협조를 구하여 주로 문헌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비교·분석을 위하여 개발한 준거 모형에 의하여 분석한다.

2) 諮問委員會構成運營

시설에 관련되는 각계(학교 보건·위생, 건축학, 교육 시설, 교육 행정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연구의 방향 정립, 교육 시설의 국제 비교를 위해 개발한 준거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3) 教育施設現況 및 實態調查를 위한 國內外出張實施

각급 학교 교육 시설 기준령에 터한 교육 시설 확보 현황과 그 문제점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 출장을 실시하고 주요국의 교육 시설 관련 자료 수집 및 기준에 근거한 현장 실태 조사를 위하여 적어도 일본·대만 등의 해외 출장을 실시한다.

4) 研究用役

한국의 교육 시설의 기준 개선을 위하여는 교육 시설에 관련한 다양한 분야(建築·保健·衛生·看護 등)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구 용역 의뢰는 불가피하다. 그 이유는 이들 전문가로부터 韓國教育效果의 極大化를 위한 학습 환경의 최적화 및 시설·설비의 적정화를 유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4. 研究效果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 시설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2) 주요국의 교육 시설 현황 조사 및 한국과의 比較分析을 통하여 한국 교육 시설 개선에의 政策資料를 제공한다.

3) 교육 시설 설비의 투자 우선 순위 결정 및 投資의 效率化를 도모한다. ◆

教育放送 活性化方案 研究

洪 基 亨*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現代社會의 특징은 變化와 情報化로 대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보의 다양성은 물론 이를 전달하는 미디어의 발달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인류는 新聞, 雜誌, 라디오, 텔레비전 등 각종 미디어에 접하지 않고는 하루도 生活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들 미디어는 知識과 情報의 源泉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며,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言語生活은 물론, 思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教育 및 社會化에 기여하여 이차적 教育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尖端技術인 通信技術의 발달과 함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放送技術이 본래는 주로 오락과 상업성, 그리고 보도를 중심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그 강한 傳達技能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계층 등 각종 장벽을 쉽게 초월하여 모든 수용자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教育的 潛在力을 지니고 있어서 최근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教育媒體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즉, 放送媒體는 언어는 물론 각종 영상적 부호를 사용하여 시청자의 지적·정의적 학습에 영향을 주고, 사회화의 과정을 촉진시키며 다양한 間接經驗을 제공함으로써 學習能力을 향상시키고, 학습 내용의 이해를 증진하며, 구체적 學習情報를 제공하는 등 教育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放送媒體를 통한 전달 방법이 일방적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어 教育적 자극이 감소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락에 치중하여 快樂과 安逸만을 추구하는 수동적 인간을 形成하거나 價値의 混亂과 犯罪의 刺戟 등 비교육적인 역기능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내·외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教育效果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可能性과 信念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이것을 이용하여 教育의 효과를 올리고자 노력하여 왔다. 우리 나라도 최근 30여 년간 教育의 質的 改善을 도모하고자 그 教育적 기능을 教育 현장에 活用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81년 7월 30일 教育 개혁 조치에 따라 教育 전용 방송 채널이 확보되면서 방송을 통하여 學校教育을 위한 학습자료와 전 사회 성원의 지속적인 자기 성장이나 社會生活에의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 왔다. 이는 우리 社會의 現代化를 가속화하고 양적으로 증대된 學校教育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국가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教育放送이 기대한 만큼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教育放送에 대한 사회 각계층의 인식 부족과 정책적 배려의 미흡 등 제반 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다.

요즈음 세계 각국은 國家發展 戰略의 최우선 순위를 教育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

* 教育放送本部長·哲博

한 投資를 경쟁적으로 해가고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인식되어 가고 있다. 더우기 發展途上에 있는 우리 나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對處하기 위하여 학습의 계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教育體制의 構築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즉, 교육의 의미를 광역화하여 교육의 기회를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수직적으로 연장하여 學校教育和 學校外教育의 연계를 통한 繼續教育體制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教育放送의 活性化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教育體制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教育放送 活性化를 저해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研究의 內容

教育放送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教育放送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방송은 보도, 오락, 교육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방송이 곧 教育放送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송 쪽에서 보는 教育放送과 교육 쪽에서 보는 教育放送의 실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교육 쪽에서 보는 教育放送의 개념도 다양하여 그 개념의 혼란이 教育放送 活性化의 저해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教育放送에 대한 사회의 인식 부족 현상도 教育放送 발전의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教育放送에 대한 사회나 학교 현장의 수용 형태와 요구는 어떤 것이며, 그 개선 방향을 밝히는 것도 이 연구의 중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더우기, 教育放送에 관련된 정책적 배려는 물론, 연구 풍토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教育放送制度나 內容, 그리고 教育放送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제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추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 教育放送 活性化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과제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教育放送이란 무엇인가?

(2) 教育放送 運營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教育放送의 제도면

— 教育放送의 내용면

— 教育放送의 수용 실태 및 요구면

3. 研究의 方法

주로 문헌 연구를 통하여 教育放送의 개념을 정립하고 외국의 教育放送制度 및 운영 현황과 우리의 教育放送制度和 운영을 비교·분석하며 우리 나라 教育放送의 수용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각계의 요구 등을 설문으로 조사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集團思考를 통한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각계 專門人士들이 참여하는 광장을 마련하여 教育放送 活性化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4. 研究의 期待效果

위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과 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우리의 教育放送 운영을 점검하여 노출된 문제점을 밝히고,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教育放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여 教育放送 活性化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게 될 것이다. —————◆

컴퓨터 教育強化方案 研究

李 相 珞*

I.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1. 컴퓨터 教育의 必要性

20 세기에 들어, 중요한 社會變化 現象들 중에서도 우리 人間과 社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아마 컴퓨터의 보편화 現象일 것이다.

컴퓨터의 普遍化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면서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모든 사람이 컴퓨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초적인 操作能力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특히 도널드 마이클은 컴퓨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래의 情報化 社會에서 컴퓨터에 대한 무지는 읽기, 쓰기, 셈하기에 대한 무지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기능적 文盲이 되게 한다고 한다.¹⁾ 세계 각국이 서둘러 컴퓨터 교육의 실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까닭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21 세기를 대비하는 미국의 教育改革案에서는 사고의 도구 즉, 意思傳達能力, 고도의 問題解決能力 그리고 科學技術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과제에의 接近方法으로 컴퓨터의 활용 능력 배양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²⁾ 유럽에서는 프랑스나 영국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호주, 싱가포르가 눈에 띄이게 국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³⁾

컴퓨터 교육은 사회 변화의 측면에서 보아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 사회에 適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知的能力을 발달시키기 위하여서 강조되기도 한다. 페이퍼트는 학생의 논리적 사고 능력이나 認知의 發達을 가져 오는 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⁴⁾ 이 외에도 학생들의 컴퓨터의 조작 능력 습득은 컴퓨터를 통한 補助學習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未來社會에의 적응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라고 본다면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컴퓨터에 대한 知識과 技能을 길러 주기 위한 컴퓨터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研究의 必要性和 目的

우리 나라에서의 컴퓨터 教育의 歷史는 15 년이나 된다.

근래에 이르러 컴퓨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文敎部는 컴퓨터 교육 강화 방침을 세우고 84 학년도부터⁷⁾ 상업 고교에 情報處理科, 공업 고교에 情報技術科를 신설·운영하여 情報化 社會가 필요로 하는 저변 인력을 養成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국민 학교에까

* 教育資料部·研究員

1) Michael, D. N., *Cybernation: The Silent Conguest*, Santa Barbara, Calif.: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tic Institutions, 1962.

2) 권 낙원 외 역, 『21 세기를 대비하는 미국의 교육 개혁안』, 교학사 1984.

3) APEID, *Computers in Education: Final Report of the third Asian Seminar on Educational Technology in Tokyo*, 1984.

4) Papert, S., *mindstorms: Children, Computers and Powerful ideas.*, New York. Basic Books inc., 1980.

지 컴퓨터 교육이 확산되어 이의 실시가 적극 勸獎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급 학교에서 實施되고 있는 컴퓨터 교육에서 많은 문제점을 發見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류완영 외⁵⁾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내·외 컴퓨터 교육의 전반적 實態分析과 이에 대한 각 학교급 및 학년별 교육 목표 및 내용을 設定하고 실시 방안 등에 대한 많은 기초 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敎師 및 學生用 敎材의 개발, 敎사 훈련 및 양성 방안,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施設·設備要件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컴퓨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관한 폭넓은 論議가 절실하다 하였다. 이상락 외⁶⁾는 실업계 高等學校를 제외한 각급 학교에서 교육 과정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초·중·고등 학교의 컴퓨터 교육 과정안을 研究·開發하기도 하였다. 또, 박상근⁷⁾은 국민 학교의 경우 컴퓨터 교육을 담당할 전문 요원의 부족, 敎材와 시설의 未備 등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상근의 지적에서와 같이 비교적 좋은 敎育環境을 갖추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서울이 이렇할 진데 다른 지역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더욱 많은 問題點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어느 일부의 학교급이나 한정적인 문제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각급 학교의 컴퓨터 교육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檢討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컴퓨터 교육 強化方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급 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의 目標, 學習內容 및 여러 가지 支援體制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물음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문제점을 추출한 후 이를 解決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研究의 目的이 있다.

II. 研究의 內容

앞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서 현재의 각급 학교에서의 컴퓨터 敎育의 目標, 學習內容 및 여러 가지 지원 체제에 관하여 많은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급 학교 컴퓨터 교육의 目標와 方向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가 또, 컴퓨터 교육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敎과 내용은 필요하고도 충분하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敎과 시간 배당이나 施設擔當 敎사의 양성과 같은 지원 체제는 효과 있게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등의 물음을 제기할 수 있겠다. 이들 물음에서 어떤 問題點을 추출하고 解決方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이 研究內容에 포함된다.

1. 現在의 컴퓨터敎育 現況把握

각급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이 교육 과정상에서 보아 어떤 형태로 실시되고 있고 시설과 준비는 어떠한가 이의 실시에 있어 어떤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또, 社會企業·公公機關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의 성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滿足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2. 컴퓨터敎育의 目標方向 設定

학교, 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 제분야에서 바라고 있는 컴퓨터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조사하여 이를 土臺로 올바른 目標와 方向을 설정한다.

3. 問題點抽出

컴퓨터 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이, 컴퓨터 교육이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라

5) 류완영 외, 『초·중등 학교 컴퓨터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컴퓨터 교육 지도 자료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1983.

6) 이상락 외, 초·중·고등 학교 컴퓨터 교육과정안의 연구·개발, 한국교육개발원, 1984.

7) 박상근, “컴퓨터 교육의 효율적 일반화 방안: 서울 시내 국민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85.

면 목표의 設定은 도달해야 할 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이들 두 지점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있게 한 原因이 되는 문제점을 把握한다.

4. 解決方案의 提示

문제점을 추출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것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필요한 政策代案을 제시한다.

연구 내용의 選定에서 한 가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이 연구는 모든 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 학교를 제외하고 일반 초·중·고등 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을 위하여 84년도에 “初·中·高等學校 컴퓨터 敎育課程案의 研究·開發”을 통하여 필요한 政策代案들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다시 이러한 내용의 연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의 소지가 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연구의 方向이나 內容 및 주요 焦點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論議가 先行되어야 하겠다.

Ⅲ. 研究되는 方法

이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의 意見이 하나의 提案으로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겠다.

- 면담과 설문 조사
- 문헌 연구
- 전문가 회의
- 세미나

Ⅳ. 期待되는 效果

우리의 컴퓨터 교육이 그 목표를 明確히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誘導하고 목표 도달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의 解決方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컴퓨터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고 效果를 거둘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國家的 노력의 政策代案으로 活用될 것이다.

본원 간행물 전국 보급 서점 안내

보급처 : 민족문화문고간행회 (675-1981~3)

서울 : 교보문고 (730-7891)
 인천 : 중앙서점 (93-7274)
 춘천 : 학문사 (2-6769)
 대전 : 교학사 (253-9757)
 광주 : 동아교재사 (55-0419)
 마산 : 동아서점 (2-1355)
 진주 : 강남서점 (52-3492)

부산 : 문교서적 (44-0151)
 대구 : 학원사 (253-0204)
 청주 : 유신상사 (2-2542)
 안동 : 스쿨서점 (2-2044)
 울산 : 동아서점 (2-2485)
 전주 : 민족문화문고지사 (2-7568)

自然的 探究의 信賴價値度查定을 위한 準據探索(Ⅱ)*

翻譯 張 錫 敏**
李 花 貞***

I. 信賴價値度 評價領域

Guba 와 Lincoln(1981)은 信賴價値度 문제와 관련하여 네 가지 관심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 네 영역이 바로 준거가 적용될 부분이다.

● **眞理價(Truth Value)** : 탐구 대상(반응자) 및 탐구 상황에 대하여 탐구 결과의 진리 여부를 어떻게 確信할 수 있는가?

● **適用可能性(Applicability)** : 상이한 探究狀況 및 探究對象에 대하여 특정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一貫性(Consistency)** : 遂行된 연구를 동일한(또는 유사한) 피험자 및 실험 사태에 반복 실시한다고 할 때, 탐구 결과의 일치 정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中立性(Neutrality)** : 연구자의 偏見, 動機, 興味, 觀點 등을 배제하면서 탐구 결과를 오로지 피험자(반응자)와 탐구 조건 사이의 함수로서 파악할 가능성은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가?

위의 네 項目은 모두 합리적 패러다임 영역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이다. 다음 <表 1>에 이들 각각에 대응되는 자연적 패러다임의 항목을 제시한다. 다음은 이러한 “翻譯”작업에 대한 일종의 정당화로서 제시된다.

● **眞理價(Truth Value)** : 합리적 패러다임에서 내적 타당도는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자료와 자료가 나타내는 현상간의 일치도(isomorphism)

또는 근사성(verisimilitude)을 보여줌으로써 결정 가능하다. 탐구가 수렴되는 실재가 단일하다는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논리가 불합리한 기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同形異性(isomorphism) 현상을 직접 검증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제 세계의 본질에 관한 절대적 지식(absolute knowledge)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신에 합리주의자들은 모든 그럴듯한(plausible) 대안을 하나씩 기탁해 나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가설을 직접 검증하기란 불가능하여(동형이성 현상의 검증 불가) 오직 대안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때 그것을 기각해 버릴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동형이성의 개념은 자연주의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 실제에 대한 동형이성적 관계란 결국 반응자의 지각 현상(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실재)에 대한 관계로 유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眞理價를 확립하기 위하여 自然主義者들은 자원 인사들과 더불어 그들이 발견한 사실과 그 해석에 대한 信用度 檢證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신용도 검증 작업은 자원 인사들과 함께 자료를 檢證하는 성원 점검(member checks) 활동을 통해 遂行된다.

● **適用可能性(Applicability)** : 합리적 패러다임에서 적용 가능성(외적 타당도 또는 일반화도)은 발견 사실들이 시간적, 상황적 변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探究가 進行되어 질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발견 사실들은

* 이 논문은 인디애나대학 스미스 연구 센터의 교육학 교수 Egon G. Guba가 ERIC/ECTJ의 9차 Annual Review Paper로 쓴 것이다.

** 教育課程研究部·職業教育研究室長·哲博

*** 教育放送本部·研究員

〈表 1〉 信賴價値度나 領域에 대한 科學的
・自然主義的 用語

領 域	科學的 用語	自然主義的 用語
진리가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신용도
적용 가능성	일반화도	전이도
일관성	신뢰도	의존도
중립성	객관도	확증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히 그 적합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합리주의자들은 일반화 명제를 영구적인 것으로 把握한다. 일반화 명제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되지 않으며 상황 배제적인 眞理命題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Cronbach(1975)는 모든 일반화 명제는 반감기를 갖는 방사성 물질처럼 붕괴되기 마련이라고 논박하고 있다. 한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반화 명제는 科學的이기 보다는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하게 될 따름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判斷은 자연주의자들의 기본 가정, 현상이란 그것이 발견되는 時代 및 狀況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까닭에 자연 사태의 다양성에 대한 일반화란 도대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再確認해 준다고 하겠다.

비록 위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本質的으로 類似한 어느 두 狀況 사이에 轉移가 일어날 수 있다는 可能性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이하는 狀況 및 그것을 받는 상황에 관한 상당한 知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Geertz(1973)에 따르면 각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술(thick descrip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런 기술을 통해 두 상황 사이에 유사성이 발견되면 상황 A의 잠정적 결과가 상황 B에서는 有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비록 안전을 기하기 위해 모든 기술에 대해 경험적 검증이 요구되지만). 일반화도(generalizability)(외적 타당도)의 개념에 대칭될 수 있는 自然主義的 概念으로 轉移度(transferability)의 개념을 들 수 있다. 두 상황 사이의 전이 가능성은 그 유사한 정도(적합성)에 따라 결정된다. 자연주의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유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제를 성립시키고

자 하지는 않는다. 단지 상황 사이에 適合性 程度에 따라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轉移 가능한 작업 가설을 설정하고자 할 따름이다.

●一貫性(Consistency) : 합리적 패러다임에서 일관성에 대한 관심은 道具의 信賴度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즉 연구 결과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도구가 안정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妥當度는 信賴度와 직접적인 함수 관계를 갖는다. 한 도구의 타당도가 그 신뢰도 계수의 平方根(square root)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Gulliksen, 1950). 신뢰도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기 보다는 타당도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전제 조건일 따름이다. 自然主義者들 역시 일관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동일한 이유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 또한 합리적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一貫性을 유지하지 못하는 한 신용할 만한(credible) 타당한(valid) 결과를 산출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일관성의 개념은 자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훨씬 미묘한(trickier) 의미를 갖는다. 探究란 단일 실재에 수렴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확신을 갖는 합리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道具의 變化란 단지 오류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러나, 다양한 실재의 존재를 믿고, 인간이란 도구(오류-피로 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직관력 또는 감수성으로 인해 변화되는 도구)를 활용하는 자연주의자들은 탐구로부터 관찰된 불안정한 결과의 얼마간은 “실재적”이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自然主義者들에게 일관성의 개념은 불변성(invariance)이 아니라 원인 추적이 가능한 변산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오류나 실재의 변화, 도구 기능의 향상(직관력의 증진)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주의자들은 일관성의 의미를 依存度(dependability)의 개념으로 파악하는데 이 속에는 合理主義的 용어로서 “信賴度”가 함의하는 안정성(stability)의 의미와 더불어 도구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변산의 추적 가능성(trackability)의 의미가 포괄된다.

●中立性(Neutrality) : 중립성은 합리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보통 객관성이란 용어로 표현된다. 객관성이란 연구 방법에 의하여 보장되

는 것으로 상정된다. 즉 연구 방법이 공적 사정에 의하여 合理的인 것으로 예증될 수 있고, 반복 실험이 가능하며 그리고, 연구자-피험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수만 있다면 객관도를 보장하기란 어려운 일은 아니다(즉, 연구자의 偏見을 效果的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방법은 필연적으로 연구자의 性向을 反映하게 된다. 그 예로, 물리학에서 빛의 本質이 波長(wave)이나 粒子(corpuscular)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실험자가 어떤 종류의 실험을 택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런 사실은 이미 그 사회에서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Young의 이중구멍(double-slit) 實驗에서 빛은 파장처럼 나타나지만 Einstein의 광전자 효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빛의 소립자적 성질을 나타내 보여 준다(zukav, 1979). 社會科學分野의 경우, 문화적·인종적 편견이 연구 결과에 반영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대표적인 예로 IQ 측정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자연주의자들은 우리가 마주치는 실재가 다양하며, 스스로를 도구로 활용하게 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性向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理解하고 있는 까닭에 이 문제를 주목하게 된다. Scriven(1972)에 따르면, 자연주의자들은 要求者 자신이나 방법을 보장하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집된 자료의 確證성(confirmability)을 요구하면서 確證성의 짐을 그들로부터 資料로 떼어 넘기려는 傾向性을 보인다고 하겠다.

II. 合理的 패러다임에 있어서 信賴價値度의 查定方案

〈表 2〉에는 합리적 패러다임에서 발전시켜온

信賴價値度의 4가지 영역을 취급하는 방식이 요약·제시되어 있다. 〈表 2〉의 각 行(row)은 內的 妥當度, 外的 妥當度, 信賴度, 客觀度에 해당한다(네제列(column)의 항목을 보시오). 각 열 처음에는 각 칸(cell)을 보는데 지침이 될 만한 제목(headings)이 나타나 있다. 보는 순서는 우선 제 1열의 제목을 읽은 다음 제 1행의 첫째칸을 읽는다. 그런 다음 제 2열의 제목을 읽고 제 1행, 둘째칸을 읽어 나가는 식으로 제 1행의 칸들을 전부 읽어 나가면 된다. 나머지 행에서도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실제로 본 〈表 2〉는 信賴價値度 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 방식의 네가지 입장을 대표한다. 먼저 제 1행의 칸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탐구는 방해(masking) 요인 또는 경쟁(competing)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은 주로 복합 효과(effects of confounding)를 산출하게 된다.

이런 現象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변인을 통제하거나 무인화시키는 활동을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내적 妥當度를 높이고 순수한(contamination-free) 연구 결과를 얻게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表 2〉에서 관찰할 수 있다.

1. 제 1열의 항목은 소위 完璧한(perfect) 탐구를 저해하게 되는 오류의 원천들을 나타낸다. 이들은 探究에 침입하는 일종의 外生的(extraneous) 요인으로서 탐구의 正常的 進전을 방해하게 된다. 방법론이 요구되는 것은 이런 요인들을 설명하는 데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들 존재로 인하여 야기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함에 있다고 하겠다(Campbell & Stanley, 1963).

〈表 2〉

信賴價値度 確立을 위한 合理的 接近

탐구는 다음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요인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	그러한 효과를 제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다음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방해 또는 경쟁 요인	복합성 효과	변인의 통제 또한 무선회	내적 타당도	오염이 방지된 결과
상황적 변산 요인	부정형성	확률 표집	외적 타당도	상황적 영향이 배제된 결과 불일치성이 방지된 결과
도구의 변화 및 오염도	불안정성	반복 시행	신뢰도	연구자의 편견이 배제된 결과
연구자의 편견	편향성	연구자의 격리	객관도	

2. 제 3 열에 對應策(counteraction)을 제시한 목적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연구보증(study-proof)의 증명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가 誤謬, 實驗狀況, 道具, 研究者(제 5 열) 등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은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합리적 패러다임에서는 이런 중요한 과제의 해결을 연구자의 직관이나 전문 지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방법론에 위임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3. 제 3 열에 완벽한 fool proof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提示된 조치(actions)들은 다음 질문에 대한 理想的 또는 教科書的 對答이라고 할 수 있다. “內的 妥當度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外的 妥當度는?” “信賴度는?” “客觀度는?” 모든 變因을 통제 또는 무선회시켰으며, 피험자를 무작위적으로 選定·割當하였고, 반복 시행을 통해 도구의 신뢰도를 확립하였고(비록 반

분 신뢰도에 불과할지라도), 그리고 客觀的 道具를 사용함으로써 연구자 자신을 탐구 현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성공한 연구자들만이 위의 質問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으리라.

4. 研究計劃 또는 研究報告의 신뢰 가치도를 평가하거나, 신뢰 가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실험, 설계 과정을 조정하고자 할 때, 제 3 열의 항목들을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評價者 그리고 調整者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變因을 통제하거나 무선회시켰는가?” “확률적 방법에 의거해 標本을 추출하였는가?” “實驗을 반복 실시하였는가?” “연구자와 현상 사이에 도구층을 내상하였는가?” 이들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研究計劃書—研究過程—研究報告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서 信賴價値度 문제는 매우 滿足할 만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韓(國)教(育)開(發)院(研)究(叢)書 3

☆우리 高等教育的 先進國化를 앞당기기 위한☆

☆質的 秀越性 向上策을 總網羅한 名著☆

高等教育的 秀越性

서울대 教授 尹正 — 編著

豪華洋裝 크라운版 471 페이지

民族文化文化文庫刊行會 發行

授業 및 教科書 體制改善 研究

權 致 純*

I. 緒 言

한 나라 또는 사회에서 교과서가 어떻게 발행되고, 또 학교 수업에 어떻게 活用되는가는 教育課程의 운영 방식과 교과서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나라 현행 국민 학교 교과용 도서는 모두 문교부에서 발행하는 國定教科書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다른 學習教材는 사실상 거의 금지된 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만이 唯一無二한 教授-學習資料로 活用되는 학교 수업의 현실을 만들어 왔다. 그러한 현실은 교과서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서 中心의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 교육의 체질을 형성하여 왔다. 더우기 연합 고사, 학력 고사 등 각종 학교 교육의 평가 기준이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과서 내용을 풀이한 각종 참고서의 범람은 이러한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教科用圖書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교육적 현실은 우리 교육의 根本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 연구는 이처럼 우리 나라 현행 교과서가 학교 교육의 內實을 다지는 데 적합하지 못한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교과서를 教育課程 資料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는 教科書觀의 입장에서 현행 교과서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새 교과서 체제를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교과서 체제의 수립을 위해 현재의 교과서관은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가?

둘째, 외국의 교과서 체제는 어떠한가?

셋째, 우리 나라의 현 교과서 체제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네째, 교과서 체제의 문제점을 改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文獻研究를 통하여 교과서 체제에 관련된 교과서관, 교과서 역할과 기능을 考察하였으며, 외국의 교과서와 교수-학습 자료를 조사하였고, 우리 나라 교과서 체제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국민 학교 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전국의 국민 학교 중에서 類層無選 標集하였으며 표집 학교 수는 全集의 1.5%에 해당되는 101 개교이었으며, 표집 교사 수는 全集의 0.5%에 해당되는 606 명이었다. 의견 조사 결과는 SPSS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 처리되었으며 χ^2 검증 방법이 적용되었다.

II. 研究의 背景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들의 주된 교재(문교부, 1983) 또는 교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구현하는 하나의 學習資料로서 학생들이 배우는 教科領域의 學習內容을 책자로 엮은 것(Deighton 1971) 등과 같이 그 定義가 다양하나, 그 본질적인 특성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하기 위하여 쓰여진 자료라는데 있다. 그런데, 教科書는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할 표준적인 내용을 인쇄하고 견고하게 제본하여 여간해서는 잘 마모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는 하나의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관에 대한 變化가 요청되고 있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읽고 학습할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어

* 教育課程研究部·研究員

면 교과나 학년에 있어서는 하나의 표준적인 교과서를 제공하는 것보다 학교나 교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學習資料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며, 실제로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교과서는 연습장, 각종 참고 문헌, 실험 안내서, 사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그 자체를 배우고 익혀야 할 目的物이 아니라 教育課程의 目標와 內容을 실현하기 위한 教育 과정 자료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教科書觀의 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教育 과정 자료는 학생용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학생용 학습 자료(연습장, 실험 안내서, 실험 실습지, 공동 또는 개별 학습장 등), 각종 평가지(진단, 형성, 총괄), 보충 학습 자료, 심화 학습 자료 등의 교사·학생용 인쇄 자료를 포함하여 각종 실험 기구, 모형, 패드, 슬라이드, 필름,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 보조 학습 프로그램 등을 포괄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교과서를 教育 과정 자료의 개념에 가까운 형태로 유도하는 절충적 접근으로 '教科書體制'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교과서 체제는 학생용 主教材로서의 교과서는 물론 교과서를 대치하거나 또는 보충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예컨대 연습장, 실험 실습지, 실험 안내서, 공동 또는 개별 학습장, 보충 심화 학습 자료, 각종 평가지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교과서 체제를 사용하였다. 이들 教授-學習資料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조직되며 그 궁극적인 가치는 教育課程을 보다 적절하고 풍부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과서 체제로의 發展은 교과서 하나에만 의존하는 수업 방법을 벗어나 教育 과정에서 의도하는 바 教育 본래의 目標達成에 충실한 教授-學習過程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이와같이 교과서가 교수-학습 과정에 활용되는 방식은 수업 방법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教育課程研究部 各 教科研究室에서 수행하는 수업 방법 개선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遂行되었다.

각 교과 연구실에서 수행한 수업 방법 개선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國語教育研究

室에서는 한글의 초기 독서를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고 현재의 초기 독서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學習資料를 개발하기 위하여 초기 讀書能力伸張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數學教育研究室에서는 문제 해결력을 규명하고 그 신장을 위한 수업 전략의 기본 원리와 방안을 제시하며, 수학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학과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수업 방법 改善研究가 이루어졌다.

社會科教育研究室에서는 사회과 학습 지도 방법의 실태를 분석하고 수업 과정 모형 및 수업 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과 수업 방법 개선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科學教育研究室에서는 정보 제공 중심 학습의 수업 과정 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에 따르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과학적 탐구 능력 신장을 위한 학습 지도 방법 개선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藝體能教育研究室에서는 체육 프로그램 구성 방법을 개선하고 교과서 내용의 기술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학교 체육 교과용 도서 개선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3~4학년 음악과 수업 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시범용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민 학교 음악과 수업 방법 개선 연구가 각각 遂行되었다.

Ⅲ. 外國의 教科書體制

외국의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는 수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또 教育課程은 어떻게 運營되고 있는지 자세히 把握하기는 꽤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韓國教育開發院 教育자료부에 소장된 자료를 중심으로 외국 몇 나라의 교과서와 그에 관련된 교수-학습 자료, 즉 교과서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인공 위성 발사 이래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과학 교육 혁신 운동의 일환으로 연구·개발된 초등 과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ESS·(Elementary Science Study), SAPA(Science -A Process Approach), SCIS

(Science Curriculum Improvement Study), Concepts in Science 등이 있다. ESS 초등 과학 프로그램은 미국의 교육 개발 센터(Education Development Center)에서 개발된 것으로 교수-학습 자료로는 학생용 학습 활동 지침서, 교사용 지도서, 여러 가지 학생용 보조 도서, 필름, 실험 실습 키트(kits) 등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태의 교과서는 없다. SAPA 초등 과학 프로그램은 科學의 增進을 위한 미국 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教授-學習資料로 학습 활동 안내서(A-E), 학습 보조 키트, 교사용 해설서, 교수-학습의 안내서, 학습 보충 자료, 평가 모형 및 적용 등이 있다. 역시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학생용 교과서는 없다. 국어(Addison-Wesley pub., 1967) 학습 자료로는 학생용 교과서 이외에 교과서 내용을 補完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指導할 수 있도록 읽기, 쓰기, 말하기 자료 등이 開發되어 있으며, 그 자료 형태는 배움책 또는 연습책과 같이 되어 있어서 학생 스스로 自學自習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국민학교 산수(Elementary School Mathematics)(Addison-Wesley pub., 1967) 학습 자료로는 학생용 교과서 이외에 연습책이 있으며, 이 연습책은 한 장씩 따로따로 떼어서 活用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英國의 초등 과학 프로그램인 Science 5-13 (Schools Council pub.) 교수-학습 자료는 학생용 교과서가 따로 없으며 실험 탐구 안내서, 교사용 지도서, 학습 자료집, 실험 키트, 관찰 기록지, 필름, 각종 참고 문헌 등이 있다. 국어의 “지그재그”(Zig Zag)교수-학습 자료는 읽기책, 학생용 배움책, 교사용 지도서, 시, 노래, 이야기 등이 담긴 카세트 등이 있다.

산수의 “산수 공부”(Let's discover mathematics) 교수-학습 자료로는 학생용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배움책 등이 있다.

프랑스의 초등 과학(Les Lecons De Choses) 教授-學習資料로는 학생용 교과서, 실험 지침서,

실험 보고서 등이 있으며, 산수(Classiques Hachette, 1983)의 교수-학습 자료로는 학생용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연습책 등이 있다.

호주의 ASEP(Australian Science Education Project)과학 프로그램의 教授-學習資料에는 학생용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각종 학생용 학습 자료, 교사·학생을 위한 참고 도서, 실험 키트, 필름, 시청각 교재 등이 있다.

日本의 국민 학교에서 활용되는 教授-學習資料는 우리 나라와 같이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가 주요 자료이며 그 밖의 교수-학습 자료는 各市縣 教育위원회 또는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授業에 활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외국 몇 나라의 教科書體制를 살펴본 결과 외국의 교과서 체제는 학생용 교과서 이외에 교사용 지도서, 읽기책, 쓰기책, 배움책, 연습책, 실험 활동 안내서, 실험 실습 지침서, 실험 보고서, 학습지 등의 인쇄 자료를 포함하여 필름, 실험 키트, 시청각 교재 등의 학습 자료 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우리 나라의 教科書體制

우리 나라의 현행 교과서 체제에 대해서는 교과서관, 교과서 내용, 외형적 체제, 활용 방식과 아울러 교과서 제도에 대한 교장·교사의 의견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分析하였다.

먼저 교과서관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95.0%)의 교사가 교과서를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교사들의 이러한 教科書觀은 학교 수업에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만 의존하는 수업 방식이 시급히 改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에 관해서는 현행 3~6학년용 國語, 算數, 社會, 自然 教科書를 대상으로 그 내용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준거, 즉 ① 학생들의 읽기와 이해 정도 ② 학습에 대한 흥미 및 동기 유발 ③ 창의적 및 탐구적 사고의 신장 ④ 배당 시간에 따른 교과 내용의 분량 ⑤ 학습 자료의 제시

정도 ⑥ 자율 학습을 돕는 내용의 제시 정도에 비추어 본 조사 결과 현행 교과서들은 결정적으로 큰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형적 체제에 있어서는 교과서의 편찬 방식, 판형 등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것이指摘되었으며 삽화, 지질, 색도 등은 앞으로 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分析되었다.

교과서 활용면을 보면 대부분의 教師들이 교과서를 절대시하지 않고 있으며, 教師의 判斷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삭제, 첨가, 재조직하여 가르치는 교사가 많았고(68.0%) 교과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教師는 그리 많지 않았다. 學校授業에서 교과서 이외의 학습 자료 활용 정도를 보면 대부분(75% 이상)의 교사가 10회의 수업 시간 중 3회 정도도 教科書 이외의 學習資料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과서 발행 제도에 대해서는 全教師의 53.8%, 校長의 61.9%가 현재와 같은 단일 교과서 제도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있는 것보다는 교과서와 관련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普及이 더 중요하기 때문임'을 가장 많이 들었다. 또한, 全教師의 42%, 校長의 37%는 복수 교과서 제도가 더 좋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지역의 차이, 학교의 사정,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알맞는 教科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들었다. 교과서의 研究·開發制度에 있어서는 많은 교사가 교과서의 연구 개발 기간과 연구 비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밖에 우리 나라 학교 수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과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로는 자연과의 실험 안내서, 실험 보고서, 과학 동산, 과학 클럽 활동 안내서, 해양 탐구 학습 자료집 등이 개발되어 있으나 학생 스스로 문제를 發見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각 교과 학습에 필요한 더욱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研究開發이 요구되고 있다.

V. 새 教科書體制의 探索

우리 나라 教科書體制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改善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전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과서는 학습 내용을 담을 수 있는 唯一無二한 자료로서가 아니라 교육 과정의 실현을 돕는 자료들 가운데 中心이 될 수 있는 자료로 理解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교과서 체제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 과정과 교과서, 교과서와 수업에 대한 보다 綜合的인 시야를 가져야 된다.

셋째, 교과서에 실리는 학습 내용을 확고 불변의 고정된 진리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成就한 지적 정신적 유산 가운데 最善의 것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은 代案이 있을 수 있다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한다.

네째, 인간은 그의 감각 기관을 多樣하게 驅使함으로써 그를 둘러싼 외부의 세계를 보다 충실히 把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 전제하에서 國語, 社會, 自然科의 새 교과서 체제를 探索하였다. 새 교과서 체제에서는 각 교과목의 수업 방법과 교수-학습 자료와의 관계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수업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教授-學習資料가 활용되는 예를 제시하였다.

• **國語科** 학습 내용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領域의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요구된다. 여러 가지 교수-학습 자료가 실제 수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1학년 "바른 생활" 내용 중 3차시분의 授業指導의 예를 제시하였다.

• **社會科** 학습 내용은 사회과를 구성하고 있는 학문 영역의 특성에 따라 一般社會, 地理, 歷史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학문 영역의 특성에 따라 그에 알맞는 수업 방법을 탐색하고 그러한 授業의 效果를 높이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5학년의 교과서 내용 중 一般社會, 地理, 歷史分野의 내용을 각각 한 단원씩 選定하여 실제 수업 과정에서 교수-학습 자료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예를 제시하였다.

· 自然科 학습 내용의 특성에 따라 그에 적합한 수업 모형, 즉 경험 수업 모형, 발견 수업 모형, 탐구 수업 모형을 설정하고, 각각의 수업 모형을 適用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主題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실제 수업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수-학습 자료가 활용되는 예를 제시하였다.

VI. 結 言

이 연구는 학교 교육의 모든 목표를 교과서 하나로 達成하려는 경직된 교과서관을 시정하고 보다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模索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탐색한 새 교과서 체제가 학교 교육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첫째, 여기서 探索된 새 교과서 체제가 구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관한 制度的, 法律的, 財政的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육 과정·교과서의 연구 개발과 동시에 그에 관련된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교과서가 교육 과정 자료 가운데 하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 과정·교과서의 연구 개발과 동시에 교사용 지도서, 학생용 학습 자료, 각종 평가지, 보충 또는 심화 학습 자료 등이 開發·普及되어야 한다.

셋째, 새 교과서 체제의 적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수업에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이외의 여러 가지 교수-학습 자료가 전국에 일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시에 많은 財政的 負擔을 가지게 되므로 산간 도서 벽지 지역에서부터 漸進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교수-학습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때 각종 학습 자료는 학생 스스로 창의력과 비판력, 문제 해결력을 伸張시킬 수 있도록 考案되어야 하며 교과서 내용을 풀이한 학습 참고서 형태는 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

○(韓)○(國)○(教)○(育)○(開)○(發)○(院)○(研)○(究)○(叢)○(書)○ 6

우리 나라 教育課程의 變遷을 整理하고
그 未來를 設計하는 最新의 指針書

韓 國 的 教 育 課 程

韓國教育開發院 教育課程研究部長 郭柄善 編著
豪華洋裝 크라운版 478 페이지
民族文化文庫刊行會 發行

放送通信高等學校 學生을 위한 基礎學力 프로그램 開發*

朴 仁 鍾**

I. 緒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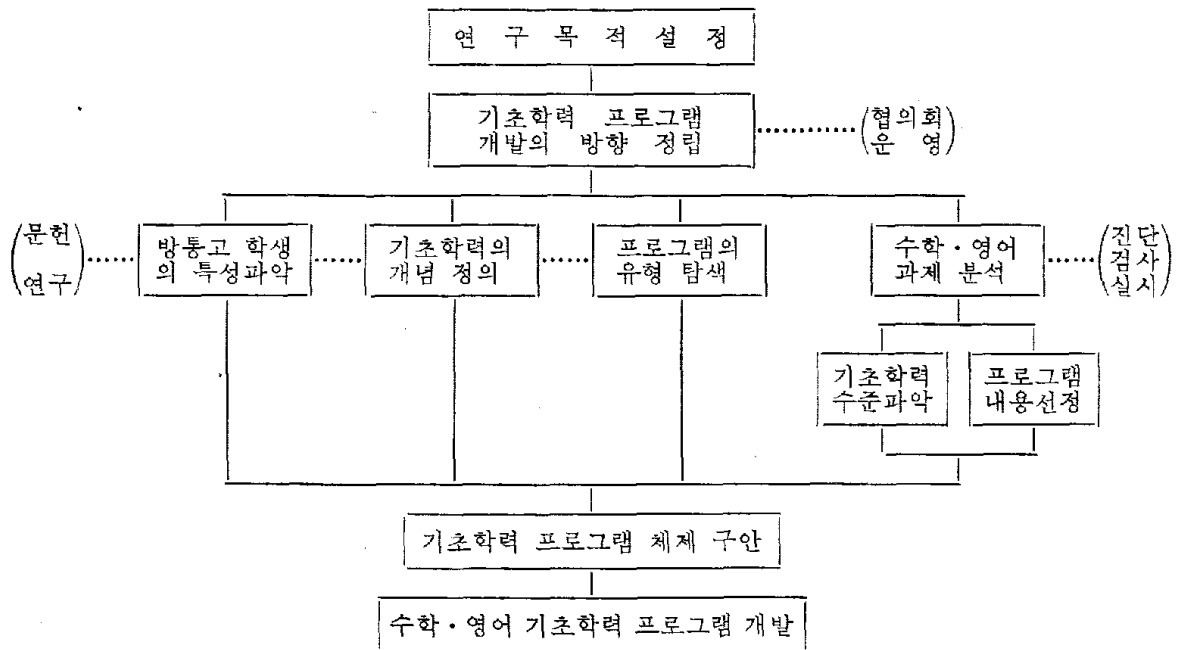
放送通信高等學校(이하 “放通高”로 약칭함)는 연령, 직업, 학습 능력 등이 다양한 학습자에게 正規高의 教育課程을 準用하여 방송과 통신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多樣性 때문에 그 동안 放通高는 교육 과정의 정당성의 위기와 학력 저조, 높은 중도 탈락률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基礎學力 缺損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放通高 학생들은 입학 당시부터 기초 학력 결손으로 인하여 고등 학교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학습 의욕을 잃고 학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 자신의 열등감을 증대시키고 부정적인 自我概念을 갖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면서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정교화하여 교수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며, 둘째는 기초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 전략에서 그들의 學習缺損을 정규 교과 수업에 임하기 전에 補充·矯正해 주는 방안이다. 전자의 방법은 지금까지 계속해 온 방법으로 꾸준히 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 내용 자체는 정규 고등 학교 교육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보완적인 기능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放通高 학생들이 중학교 수준의 기초 학력이 부족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방법으로, 방통고 학생들에게 그들의 학습 능력에 적합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基礎學力을 증진시켜 입학하면서 겪게 되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고등 학교 과정의 學習課題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과목은 기초 학력이 특히 저조하다고 판명된(洪基亨 등:1976, 崔鍾運 등:1982) 영어, 수학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文獻研究, 협의 회 운영과 진단 검사를 사용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의 認知的·情意的 特性을 살펴보고 基礎學力에 대한 조작적인 概念定義를 내리고, 프로그램의 類型을 분석하여 이 연구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協議會는 교육학 전문가, 교과 전문가, 현장 교사, 교과 연구원으로 구성하였다. 교육학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教授-學習理論 및 開發原理를, 교과 전문가와 현장 교사는 교과의 특성과 내용 선정, 연구원은 프로그램 體制構案과 프로그램 내용의 전반적인 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협의회에서는 프로그램의 方向設定, 수학·영어의 學習課題 分析 및 診斷檢査 結果 分析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 선정, 프로그램 體制案 확정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진단 검사를 위한 과제 분석은 방통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 면에서 정확한 위치를 정해 주고, 基礎學力 프로그램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분석되었다. 이 학습 과제 분석을

* 이 글은 85년도 연구보고서인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기초 학력 프로그램 개발(CR85-3)’을 요약·정리한 것임.

** 教育發展研究部·研究員



[그림 1] 기초학력 프로그램 개발 설계

토대로 진단 검사 문항을 제작하고 이를 실시하였다. 진단 검사 조사 대상은 대도시·중도시·소도시로 나누어 1개교씩 대표 표집하였고, 도시별 1개교는 모두 남·여 공학인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별로 1학년 남·여 각 2개 학급씩을 무선 표집하였다. 표집된 학급은 모두 12개 학급이며 대상 학생수는 모두 530명이었다. 이를 통해 응답자가 學習到達 程度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영역 및 요소별 정답률은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한편 이 연구는 재정, 적용 방법, 연구 능력을 포함하는 여건상의 어려움 때문에 학생 능력의 수준별로 個人差를 고려하지 못한 制限點을 갖고 있다.

II. 理論的 背景

1. 放通高 學生의 認知的 및 情意的 特性

放通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습상의 오랜 공백 기간을 갖고 있으며, 적령기를 지난 18세부터 25세 연령층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의 83%가 직업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주어진 고교의 과제를 학습하는 데에 투입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방통고 학생의 인지적 특성인, 결여된 기초학력을 보충하기란 더욱 힘든 형편이다. 실제로

방통고 신입생의 基礎學力은 정규고 신입생의 그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英語, 數學教科의 기초 학력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洪基亨 등 : 1976, 崔鍾運 등 : 1982).

방통고 학생은 연령상의 차이가 크고 대다수가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經濟的 事情 및 기타 사정으로 학업상의 連續性을 갖지 못한 채 방통고에 입학하고 있으며, 適齡期의 학생도 高校入學 연합 고사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異質性과 配배감을 강하게 갖게 되는데, 이것은 뚜렷한 自我像을 세워, 그에 맞춰 행동하기 위한 同質的인 준거틀 (frame of reference)의 정립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뚜렷한 자아상은 비교적 동질적인 또래 집단 속에서 정립되기가 용이한데, 그것은 동일한 成就目標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인이 갖는 수단(準備性, 動機誘發, 적극적 태도)이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放通高의 경우 人的 構成의 다양성은 학습에 불리하게 작용된다. 직업인으로서의 社會的 役割과 학생으로서의 役割 사이에 종종 役割葛藤(role conflict)을 느끼기도 하고(평균 한달에 두 번 이루어지는 학교 出席授業時에 많이 발생함), 동일한 生活樣式과 共感帶를 공유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부정적인 自我概念과 配배감 및 학생에 대한 社會的 認識不足은 그들의 周邊化(marginalization)를 초래

한다. 즉, 고등 학교 학력 취득 등의 必要와 目的上 放通高에 몸담고 있으면서, 부정적인 사회의 인식으로 몇몇하게 방통고 학생으로서의 自己同一視(self-identification)를 할 수 없게 되는 二重性·周邊性을 띠기 쉽다. 또한 學習意欲, 學習技術, 學習態度로 구분한 情意的 特性에서 학습 의욕·학습 기술 면에서는 정규고 학생보다 방통고 학생이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崔鍾運 등: 1982). 學習技術은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 수단 또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放通高 학생이 正規高 학생보다 학습 기술이 높다는 것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自救策으로 볼 수 있으며, 職業이나 사회적 경험에서 얻어진 요령이 學習으로 轉移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學習態度 면에서는 정규고 학생들이 방통고 학생들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 基礎學力의 概念定義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放通高 학생의 기초 학력이란 고교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중학교 과정의 교과에서의 學業成就度(academic achievement)를 말한다. 이 기초 학력이란 개념은 先修學習(prerequisite learning)이란 개념과 相衡되는 개념은 아니다. 기초 학력이란 “教育課程”상의 분류로서, 고교의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적인 중학교 교육 과정의 교과에서의 學業成就도를 의미한다면, 先修學習은 “學習課題”상의 분류로서 고교 교과의 한 특정 學習課題를 이수하기 위한, 位階的으로 관련된 先行 학습 과제의 학습을 의미한다.

주어진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先修學習을 認知的 投入行動(cognitive entering behavior-Bloom: 1976)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技能(skill or ability) 측면과 學力(achievement or knowledge)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 측면은 發達的 學習技能과 學問的 學習技能으로 세분할 수 있고(金亨立: 1984), 學力 측면은 內容關聯 學習力(金彥柱: 1976) 또는 學習課題關聯 學習力을 의미하는데, 이 학력 측면이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초 학력의 개념과 동일한 의

미를 갖는다. 즉, 내용 관련 학습력 또는 학습 과제 관련 학습력이란 한 학습 과제(내용)의 학습을 통해 얻어진 능력으로, 그 특정의 과제를 학습할 수 있거나 또는 특정 과제의 학습을 바탕으로 보다 고차적인 後行의 과제를 학습해 내는 힘을 가리킨다.

3. 學習 프로그램의 類型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준거로는 ① 적절성(액면 타당성, 목적) ② 동기 효과 ③ 질 ④ 도구화 ⑤ 가격과 사용 횟수 ⑥ 평가가 있다(Reese & Schmidt: 1976). 그 중에서 학습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유형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적절성이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유형은 教授方向 측면(Marsh & Gearheart: 1978)에서, 學習問題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치료하는 治療 프로그램(Remediation Program)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적 자료를 투입함으로써 학습의 必要條件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補充·調整 프로그램(Compensation & Accommodation Program)의 일종이다. 또한, 學習課題 分析을 토대로 기초 학력에 대한 診斷 檢査를 통하여 기초 학력의 부진 영역과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보충해 주어 새로운 학습 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發達的 프로그램(Developmental Approach-Swanson & Reinert: 1979)이라 할 수 있고, 또한 強化理論 등 行動主義的 技法(Behavioral Approach-Treiber & Lahey: 1983)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Ⅲ. 課題分析 및 診斷檢査 結果

1. 數 學

수학 과제 분석은 系列性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 상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1)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學習要素를 확인한다.

2) 고등학교 수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先行 學習課題를 추출해 낸다.

3) 추출된 학습 과제에서 必須的인 과제만을 선정하여 系列化하고 位階에 따라 구성한다.

4) 선정된 학습 과제에서 학습 문제를 추출해 낸다.

이와 같은 절차로 추출된 학습 과제로 진단 검사 문항을 제작하고 이를 실시하였다. 진단 검사 결과 전체 학습 요소별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출제된 문항의 학습 영역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할 때 이들은 수학 기초 학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학습 도달 수준은 30~40% 사이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 다만 集合 영역만이 전영역에 비해 상위 수준에 있었다. 이 진단 검사 결과에 터하여 수학 프로그램의 내용을 選定할 때 고려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자료는 고등 학교 과정을 충분히 이수하기 위해 基礎學力이 부족한 학생에게 선수 학습 능력을 보충해 주는 자료이므로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중학교 과정으로 하되, 국민 학교 과정에 있는 분수 및 소수의 개념, 사칙 연산 등은 진단 검사 결과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內容을 다루어 주었다.

2) 모든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진술하고, 그 구체적인 사실의 理解를 통해 原理나 法則을 알게 하며, 생활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학적 소재를 선택하였다.

3) 이 자료의 내용은 고등 학교 교과 내용과 連結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英 語

영어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는 듣기, 말하기 기능이 강조되는데, 이는 학습자의 흥미 유발이나 외국어 능력의 기반 형성이란 점에서 바람직하나, 많은 어휘, 숙어와 복잡한 구조를 가진 장문을 읽고 理解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能力은 아니란 점이 고려되었다. 따라서, 고등 학교 영어에서 강조되는 言語能力인 읽기 능력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 때, 독해 능력 양성에 매우 중요한 주요 구문이나 문법 사항들을 특정한 文脈 없이 개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적절한 문단, 지문을 選定하여 그 문맥 속에서, 제시하여 어휘와 구문,

그 밖에 독해에 필요한 綜合的 能力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였다.

영어 診斷檢査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가 25점~38점 사이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통고 신입생들의 영어 기초학력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정답률을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生活英語 영역이 4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語彙·熟語 領域 37.1%, 發音領域이 32.8%, 文型·文法領域이 32.7%, 讀解領域이 32.7%, 英作領域이 28.5%로 가장 낮았다. 이 진단 검사 결과를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영어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였다.

1) 프로그램의 본문을 이루는 지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는 완전한 글을 선정하였다.

2) 프로그램의 본문을 이루는 자료는 현재 사용되거나 과거에 사용되었던 중학교 2,3학년 교과서 및 그것과 동일한 水準의 타 자료에서 선정하였다.

3) 프로그램의 지문은 첫째, 그 내용의 자연스러움, 흥미, 유익성과 둘째, 기본적인 주요 구문의 포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選定되었다.

4) 단원의 배열은 선정된 자료의 길이, 사용된 구문들의 位階性 등에 따라 段階的으로 배열되도록 하였다.

IV. 基礎學力 프로그램 開發

1. 프로그램 開發方向

1)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先修學習要素 중 진단 검사 결과 분석에서 판단된 과제의 기본 개념, 원리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放通高 학생들의 기초 학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2) 프로그램의 내용은 學習課題 分析을 통하여 결정하고, 그 수준 및 영역에 관한 범위의 조정은 診斷檢査에 의해 결정한다.

3) 自學自習과 放送講義 및 出席授業에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되, 주로 自學自習에 의한 학습이 강조되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反復學習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數學 프로그램 執筆原則

1) 자료의 내용은 學習位階에 따라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각 영역 간에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2) 큰 단위의 학습 과제는 적절하게 소과제로 나누어 구분하고 단계별로 빈번한 피이드백을 주어 확인 학습의 機會를 제공한다.

3) 例題·問題를 細分化하여 반복·제시함으로써 基礎概念과 계산 기능, 기호 등의 이해를 갖도록 한다.

4) 중단원마다 數學과 관련된 읽을거리를 두어 학습에 흥미를 갖고 학습 활동에 적극 參與할 수 있도록 한다.

3. 英語 프로그램 執筆原則

1) 발음편에서는 發聲器管에 대한 상세한 圖解와 풍부한 예를 제시하여 정확하게 발음을 익히도록 한다.

2) 주요 構文에 대한 학습 내용은 그 위계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적절히 반복이 되도록 한다.

3) 構文 및 文法說明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고 문장 이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枝葉的인 문법 사항은 배제한다.

4) 單語 및 語句풀이는 본문에 나오는 用法를 중심으로 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예문을 함께 제시한다.

5) 本文은 3~4개의 단락(part)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V. 프로그램 活用方案

1. 入學前 프로그램 活用方案

이 방안은 학생들이 放通高에 入學¹⁾하기 전 일정한 시기(2월 10일경~3월 8일경)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즉, 이 프로그램의 투입 시기는

- 1) 입학일은 지역 및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월 둘째 주 일요일로서 대개 3월 10일 전후가 된다.
- 2) 종래의 경우 3학년의 졸업 시기는 대개 2월 10일 전후였다. 따라서, 2월달에 하는 3학년을 위한 특집방송은 실질적으로 그 방송 청취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을 하게 되며, 졸업 전이라 하더라도 2월초부터는 그 방송을 청취하는 학생은 극히 적은 실정이다.

바로 입학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입학 시기 전까지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사 일정에 따른다면 그 기간은 불과 1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實際로 프로그램 투입을 위해서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현재 2월말로 되어 있는 입학 허가일을 앞당겨 2월 10일경으로 할 수 있다면, 3월 入學時期까지 약 1개월간의 시간을 確保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放送講義 시간 확보는 현재 3학년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特輯放送’시간²⁾과 방통고 신입생을 위한 안내 방송으로서의 ‘特輯放送’시간을 효율적으로 압축시켜서 ‘기초 학력 프로그램 방송’으로 활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처럼 3학년과 1학년의 특집 방송 시간을 본 프로그램 방송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 약 20여 일(20회)의 시간 확보가 可能하게 된다.

2. 入學後 프로그램 活用方案

입학 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입학 전 활용보다 어려움이 더 따른다. 왜냐하면, 현재의 교과별 담당 시간이 正規高에 비해 극히 적으므로 해당 학년의 교과를 학습하기에도 負擔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부족한 시간에서 이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란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학업 성취면으로 볼 때, 이러한 시간 부족이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學習能力不足이라고 생각되어, 기초 학력을 증진시키는 일이 보다 우선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될 때 프로그램 활용 기간은 대체로 3월 10일(입학)부터 4월 30일까지로 할 수 있다. <표-1>은 放送講義 및 出席授業 담당 시간이다.

<표-1>에 의하면 입학 후의 프로그램 활용 시간 배당이 입학 전보다 다소 적다. 그러나 강의 내용을 보다 집약하여 실시하면 가능할 것이고, 입학 전에 비해 출석 수업이 數學, 英語 각각 4시간씩 배당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시간은 출석 수업 시간으로 相殺될 것이다. 물론 이 방안은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표-1〉 수학·영어 방송강의 및 출석수업 배당시간

구분 과목	방 송 강 의		출 석 수 업		계
	3 월	4 월	3 월	4 월	
수 학	4	6	2	2	14
영 어	6	8	2	2	18
계	10	14	4	4	32

방송 강의는 30분을 1시간으로 하고 출석 수업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

VI. 提 言

이상에서 放通高 教育의 質 改善이란 면에서, 放通高 학생들에게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기초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開發節次, 方向, 프로그램 내용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초 학력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할 수 있다.

첫째, 放通高 學生들이 본 기초 학력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에서 제기한 入學前 또는 入學後 活用方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택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그 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학습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좋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학습자가 最大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여건을 마련하여 실행하지 못한다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앞의 V장에서 제시한 入學前·後 活用 方案과 결부되어 언급하자면, 이 基礎學力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서에 의한 것도 아니며, 活用時期 또한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서는 입학과 관련된 원서 접수 및 교부 기간의 조기 실시에 따른 文敎部, 市·道 教育委員會, 학교와의 긴밀한 행정적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適期에 프로그램 교재의 준비를 완료하고, 교재 제작 및 공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徹底히 점검해야 한다.

둘째,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반응 및 다양한 평가를 통해 最大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改善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통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해마다 投入하여 이들의 기초 학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입 이후에 항상 학생들의 反應과 成就度를 수합하여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 特性을 살릴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은 改善되고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방통고의 독자적인 教育課程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방통고 학생들이 높은 중도 탈락의 현상을 보이고, 기초 학력의 보충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현 방통고 교육 과정이 그들에게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방통고 학생은 그 修學目的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직장을 갖거나 학습상의 불연속성을 갖고 있는 등 불리한 學習特性으로 학습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준용하고 있는 현재 教育課程은 오히려 학생들의 중도 탈락과 학습 부진을 助長하는 셈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방통고는 독자적인 教育課程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

參考文獻

- 金彦柱, 「基礎學習力 增進研究(II)」, 『行動科學研究』, 9卷 2號,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6.
- 金亨立, 「學習 不振兒 프로그램 開發方向」, 『教育開發』, 6卷 3號, 韓國教育開發院, 1984.
- 崔鍾運 外, 『放送通信高等學校 教科書體制 改善研究』, 韓國教育開發院, 1982.
- 洪基享 外, 『1976年度 放送通信高等學校 新入生の 基礎學力評價研究』, 韓國教育開發院, 1976.
- Marsh, G. E., Gearheart, D. K., Gearheart, D. R., *The Learning Disabled Adolescent: Program Alternatives in the Secondary School*, The C. V. Mosby Company, 1978.
- Sabatino D. A. (ed.), "Learning Disabilities Handbook: A Technical Guide to Program Development", Northern Illinois Univ. Press, 1976.
- Swanson, H. Lee, & Reinert, H. R., *Teaching Strategies for Children in Conflict: Curriculum, Methods, and Materials*, The C. V. Mosby Company, 1979.
- Treiber, F. A. & Lahey, B. B., "Toward a Behavioral Model of Academic Remediation with Learning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vol. 16, No. 2, 1983.

硬筆書藝의 指導方法

尹 亮 熙*

I. 緒 言

書藝란 文字를 예술 표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하나의 필법이다.

그 語源은 ‘아름답게 쓰기’를 뜻하는 희랍어의 칼리그라피아(kalligraphia)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처음부터 쓰기는 機能的 쓰기와 粧飾的 쓰기로 구분하여 인식되어 왔다.

前者의 쓰기는 조직 사회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소한 일들을 기록하던 단순한 書寫를 말하며, 後者는 서두에서 밝혔듯이 문자를 쓸 때 쓰는 사람의 個性과 感情을 나타내어 아름답게 쓰는 오늘날의 書藝에 접근되는 것이었다.

前者의 기능적 쓰기는 학교나 사회 생활의 실상에서 보는 것처럼 점점 확대되었고, 여기에 사용되는 용구도 매우 다양해졌다.

筆記用具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필과 펜(볼펜 포함), 백묵 그 밖에 붓(毛筆)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털로 만든 용구 이외의 筆記具를 사용하여 쓰는 글씨를 총칭하여 硬筆이라 하며 연필과 펜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글씨를 쓴다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필요 불가결한 기능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볼 때 硬筆書藝의 중요성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硬筆書藝의 指導는 文字를 전달 수단으로서 實用的인 입장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쓰는 글씨를 목적별로 나누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① 말을 받아쓴다.
- ② 記錄된 것을 다시 베껴 쓴다.
- ③ 아름답게 쓴다.

이 가운데 ① ②는 실용적인 면에, ③은 문자의 실용성보다 造形性에 주체를 주는 것이다.

硬筆書藝는 國語教育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쓰기 지도는 소홀히 하였고, 붓글씨를 통한 서예의 기초를 경험하는 정도였다. 硬筆 글씨는 다만, 문자를 익히고 어휘를 외고 이해하게 하는 방편으로만 여겨왔다. 어린이들에게 정도에 지나친 많은 분량의 보고 쓰기와 받아쓰기를 시켜 왔기 때문에 쓰기 교육은 더욱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받아쓰기에 주력하게 되면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바른순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쓰기에는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교사 또한 이의 지도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문자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고, 書寫의 기초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硬筆書寫能力이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硬筆指導에 대한 관심과 指導方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학생들의 書寫能力을 신장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단계로 硬筆指導의 기초에 대한 考察을 시도하고자 한다.

* 教育課程研究部 · 研究員

II. 用具와 執筆姿勢

1. 종이와 잉크의 起源

後漢의 蔡倫이 최초로 종이를 발명하기 전까지 기록을 남길 때 돌, 찰흙, 금속, 동물의 가죽이나 뼈, 나무껍질, 목판, 대나무 등을 사용하였다.

이집트에서는 나일 강변에 야생하고 있는 갈대 비슷한 파피루스(Papyrus)의 줄기를 겹쳐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였고, 아라비아에서는 羊皮에 기록을 남겼다.

AD 105년 채 룬이 麻, 나무껍질, 어망 등을 원료로 종이를 만드는 방법을 발명하였기 때문에 그 최초의 이름을 蔡侯紙라고 했다.

잉크는 油煙이나 목탄을 원료로 한 탄소의 덩어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것은 물에 녹여서 사용하여는데 질이 좋은 파피루스는 이것을 흡수하지 않았으므로 잉크가 쉽게 지워져 종이는 다시 사용할 수 있었다.

中世에 들어와서는 沒食子의 즙에 황화철, 아라비아 고무 등을 혼합하여 만든 잉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것은 카본으로 만든 잉크가 양피지에 스며들지 않고 빛깔이 바랬기 때문이었다.

푸른 색을 띤 액체가 공기와 접하게 되면 검게 변하는 原理는 오늘날 블루·블랙 잉크의 起源이 되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색깔 가운데 글씨를 쓰는 데는 반드시 붉은 색과 검정색 만을 사용하였다.

이집트의 붉은 색 잉크는 빨간 흙 또는 아연을 원료로 하였는데 중세에 와서 朱砂·辰砂가 사용되고, 그것이 오늘날은 카아민(洋紅)으로 변하게 되었다.

2. 연 필

양피지에 글씨를 쓸 때에는 界線을 그었는데 여기에 아연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中國이나 우리 나라에서도 寫經을 할 때 쓰여졌고 오늘날의 연필을 사용하기 시작할 시초로 볼 수 있다. 연필이 지금의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은 1760년 독일의 카스파·카

아바가 흑연의 분말에 유허을 섞어 芯을 만든 후 나무 칼집에 끼워 쓰는 방법을 생각한 데서 비롯되었다.

현재의 연필심은 1800년경 프랑스의 화학자 콩테(Conté)에 의하여 발명된 것이다. 연필은 글씨를 썼다가 지울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문자를 처음 배우거나, 글씨 모양이 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알맞은 필기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연필은 사용 목적에 따라 H와 B 두 종류로 구분하여 繪畫用, 필기용, 제도용, 속기용 등으로 구분된다.

H와 F(hard, firm)는 硬芯, B(Black)는 軟芯을 의미한다.

硬度 및 濃度에 따라 9H, 8H, 7H, 6H, 5H, 4H, 3H, 2H, H, F, B, 2B, 3B, 4B, 5B, 6B, 등이 있는데, 큰 숫자의 H 芯일수록 단단하고 열으며 가늘게 써진다. 큰 숫자의 B 芯은 부드럽고 진하며 글씨도 굵게 써진다.

종 류	용 도
9H—7H	금속, 돌 등의 경질면
6H—3H	정밀 제도, 설계
2H—B	학습, 사무 등의 필기
2B—3B	속기
4 —6B	스케치

좋은 연필은 종이와의 마찰이나 芯의 마모가 적고 부러지지 않으며, 잘 깎이는 나무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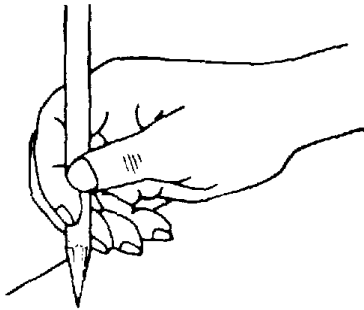
글씨쓰기 입문기에는 2B 정도가 좋으나 이 시기가 지나 연필 사용이 익숙해지면 2B를 B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2H나 3H 등의 굳은 芯의 연필을 사용하면 피로를 가져오기 쉽다.

3. 執筆法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연필을 잡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안쪽을 받치는 것이 일반적인 연필의 집필 방법이다. 이것을 單鉤法이라 하는데 紙面에 대하여 50°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글씨를 쓰면서 연필의 방향을 적당히 돌려 쓰면 일정한 굵기를 유지하게 된다. 또 너무 세워 쓰면 연필심으로 종이를 상하게 하거나芯이 끊어져 쓰기에 불편하고, 너무 뉘어서 <지면과 40° 이하> 써도 손목의 움직임이 둔하고 연필심이 부러지기 쉬우며 점획을 정확하게 쓸 수 없다.

펜도 연필과 마찬가지로 펜의 배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두 쪽으로 갈라진 축의 끝부분이 똑같이 지면에 닿도록 써야 한다. 따라서, 펜 끝에서 3cm 정도 되는 부분을 잡고 40° 정도 비스듬히 유지하여 너무 힘을 주지 않고 가벼운 기분으로 손목을 움직여야 한다.



4. 腕法

연필과 펜대를 잡을 때 새끼손가락의 둘째 관절과 일부가 가볍게 지면에 닿게 하고 팔 전체가 지면에 미끄러지듯한 자세여야 한다.

Ⅲ. 硬筆書藝 指導目標 및 內容

글씨쓰기는 文字學習의 기초이며 글짓기의 초보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쓰기 지도는 의사 표시 記號의 여러 가지 약속 즉 正書法의 훈련이 되며, 개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人格이나 品格陶冶를 위해 매우 유익한 학습활동이다.

국민 학교 쓰기(경필)지도의 목표는 바르게 쓰는 방법과 태도, 용구에 대하여 이해하고 바르고, 빠르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기능을 배양하는 데 있다.

국민 학교 教育課程의 국어과 쓰기 지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나타난 지도 내용을 요약하면 저학년에서는 바른 자세와 용구의 사용법, 筆順, 字形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중·고학년에서는 저학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른 글씨를 紙面과 格式에 맞게 쓰며,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쓰는 것을 학년별로 심화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 학교 쓰기 지도 내용>

학년	지 도 내 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로 글씨를 쓴다. ◦ 필기 도구를 바르게 잡고 글씨를 쓴다. ◦ 글자를 바른 순서와 바른 모양으로 쓴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를 바른 순서와 바른 모양으로 쓴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씨를 바르게 쓴다. ◦ 지면과 격식에 맞게 글자를 쓴다. ◦ 여러 가지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씨를 바르게 쓴다. ◦ 지면과 격식에 맞게 글자를 쓴다. ◦ 여러가지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씨를 바르게 쓴다. ◦ 지면과 격식에 맞게 글자를 쓴다.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씨를 바르게 쓴다. ◦ 지면이나 격식에 맞게 글자를 쓴다.

Ⅳ. 入門期의 硬筆指導

입학 초기의 학생들의 글씨에서는 여러 가지 지각 오인에 의하여 점획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든지 字母를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글씨를 써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글씨쓰기는 대개 입학 후 2~3개월 후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지만 성장 발달의 정도에 따라 준비성(Readiness)을 고려한 후 알맞은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강한 인상에서 오는 지각 오인과 손운동의 미숙으로 글씨의 上下, 左右, 筆順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運筆의 연습이 필요하다.

글씨를 쓸 때에는 긴장을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연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본 연습 즉 선긋기 연습을 많이 시켜야 한다.

경필의 특징이라면 線質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 경필을 공부할 때는 글씨를 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향의 선을 자유롭게 긋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平行 또는 水

平으로 굽거나, 等間으로 굽거나, 선과 선을 연결하는 연습의 반복이 있어야 한다.

1. 字形

글씨를 바르게 쓰게 하는 것이 書寫教育의 근본이라면, 바른 글씨를 쓰기 위하여 먼저 수평, 수직, 평행, 均齊, 분할 등의 원리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各文字의 概形을 익혀야 한다.

물론 개형만을 익혀서 바르고 아름다운 글씨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점획의 방향이나 길이, 간격, 조합의 방법을 잘 관찰하여 써야 한다.

글자의 모양을 처음부터 視覺的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운동 감각을 통하여 익히는 방법 중 손가락으로 공중에 쓰게 하는 스카이 라이팅(Sky Writing)법이 있다.

손놀림이 미숙하고 字畫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수준에서는 이미 쓴 글자 위에 덮어쓰는 방법이 字形을 파악하고 손놀림을 조장하는 데 효과적이다.

2. 筆順

필순이란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점과 획을 쓰는 순서를 말하며 이것을 지킴으로써 쓰기 쉽고 字形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筆順은 左右·上下의 순서로 쓰는 것이 기본이며 스카이 라이팅을 통하여 지도하는 방법이 좋다.

특히 입문기에 나타나는 鏡映文字(mirror writing) 현상은 筆順指導를 통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자음과 모음 중 ㄱ, ㄴ, ㄷ, ㄹ, ㅂ, ㅅ, ㅈ, ㅋ 등은 鏡映으로 쓰기 쉬운 문자들로 필순의 좌우 교정을 통하여 바로 잡을 수 있다.

V. 硬筆書藝의 特質

1. 글씨체의 固定化

경필은 문자를 실용적인 목적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字形의 글씨를 쓰는 것이

이상적이다.

일본의 경우는 教科書體라 하여 활자체 자체가 붓글씨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익히게 되나, 우리 나라는 경필의 고유한 書體가 없다. 편의상 활자의 明朝體를 그대로 쓰고 있으나 그것은 우리 궁체의 아름다움에 비하여 조형적으로 거슬리는 점이 있다.

字形을 확실히 익혀 自己化하려는 반복 연습을 통하여 整齊된 글씨를 쓸 수 있다.

2. 用具의 特性

경필의 용구는 그構造와 성질상 모필과 같은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다. 그러나, 경필에는 경필 특유의 특성이 있어 毛筆처럼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굵기가 같고 탄력이 없으며 字形이 획일적인 것이 모필과 다르다. 그러나, 그 특성을 충분히 살려 쓸 때 능률적이고 아름다운 글씨를 쓰게 된다.

3. 運筆의 特性

경필은 執筆法이나 腕法에서 경필 나름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것은 첫째, 문자의 크기가 작고 글자 수가 많은 점과,

둘째 용구의 특성에서 오는 것으로 운필의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필에서와 같이 탄력과 可變性이 없기 때문에 筆壓을 일정하게 하여 섬세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집필법과 완법을 익혀야 한다.

4. 硬筆練習에 注意할 點

1) 날마다 연습한다.

날마다 연습하기 위해서는 체본이나 용구를 항상 가까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연습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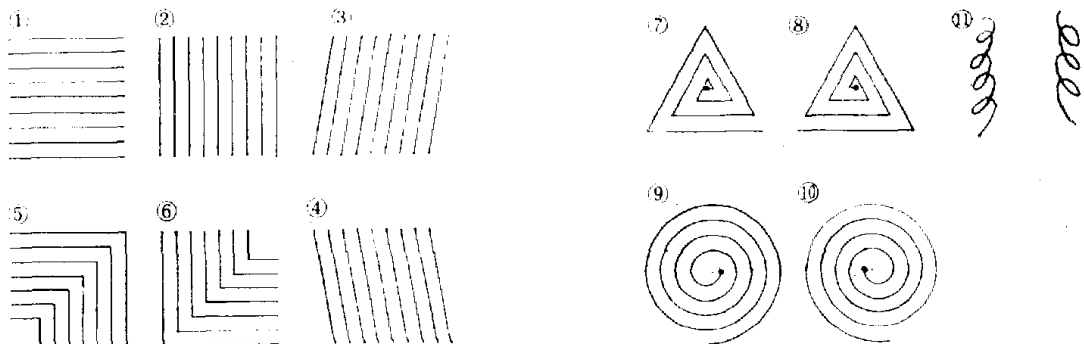
2) 연습의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조금하게 서두르면 아름다운 글씨를 쓰기 어렵다.

글씨를 연습하는 것이 즐거울 때 좋은 글씨를 쓰게 된다.

〈한글 자모의 구조 분석〉

자모	기준	쭈은선(ㄱ)	쭈은선(ㄴ)	가로선(ㅡ)	세로선(ㅣ)	사선(/)	사선(ㄱ)	원(○)	점(·)
ㄱ		1							
ㅋ		1			1				
ㄴ			1						
ㄷ			1	1					
ㅌ			1	2					
ㄹ		1	1	1					
ㅍ		1		1	1				
ㅂ				2	2				
ㅃ				2	2				
ㅅ						1	1		
ㅆ						1	1		
ㅇ				1				1	1
ㅈ				1				1	1
ㅊ				1					
ㅌ				1					1
ㅍ				1					1
ㅂ				1					1
ㅅ				1					1
ㅆ				1					1
ㅇ				1					1
ㅈ				1					1
ㅊ				1					1
ㅋ				1					1
ㆁ				1					1
ㄷ				1					1
ㄹ				1					1
ㅁ				1					1
ㅅ				1					1
ㅆ				1					1
ㅇ				1					1
ㅈ				1					1
ㅊ				1					1
ㅋ				1					1
ㆁ				1					1
계		4	4	18	14	3	3	2	10

〈자모 분석에 따른 선긋기 연습 자료〉



또 많은 글자를 몇 번 쓰는 것보다 적은 수의 글자를 많이 쓰는 것이 효과적이며, 경필은 빠르게 써야하는 조건이 있으나, 연습은 한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정성들여 씬으로 아름다운 글씨를 쓸 수 있다. 또 문자를 능률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손의 움직임이 빨라야하며, 손의 근육을 빨

리 움직이기 위해 일정 기간을 계획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문자를 構成하는 점획은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모양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선을 고루 익혀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자의 점획을 분석하여 요소를 추출하고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빨리 쓸 수 있게 練習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運筆의 기초 단계에서는 선을 익숙하게 긋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그 단계가 지나면 빨리 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선을 연속하여 길게 반복하면 저절로 하나의 리듬이 생겨 즐겁고, 글씨를 쓰는 基礎를 익힐 수 있다.

Ⅵ. 結語

쓰기 교육은 모든 교육 활동 속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教科의 학습이든 쓰기의 언어 기능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쓰기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의 硬筆書藝의 지도는 형식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이 글에서는 경필 지도에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을 考察하여 도움을 주고자 했다. ———◆

〈參考 文獻〉

文敎部, 國民學校 敎育課程,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2.

——, 쓰기(1. 2. 3), 서울: 교학도서주식회사, 1969.

윤양희, 한글 書藝指導方法 改善을 위한 研究,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5.

崔聖鎬, 새로운 國語科 敎授法, 서울: 文賢閣, 1985.

文部省, 小學校 指導書(國語編), 大阪: 大阪書籍株式會社, 1983.

上條信山, 新訂 現代의 書敎育, 東京: 木耳社, 1980.

二玄社, 펜書法, 東京: 二玄社, 1976.

韓(國)敎(育)開(發)院(研)究(叢)書 ②

敎育發展을 위해 財政需要의 增大를!

그 所要와 效果를 파헤친 會心の 力著

韓國의 敎育財政

서울大 敎授 尹正一 編著
豪華洋裝 크라운 版 421 페이지
民族文化文庫 刊行會 發行

漢文科의 構造的 學習指導*

南 大 祐**

I. 序 言

우리 祖上들은 漢文文化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固有文化와 思想은 自然히 漢文이 根幹이 되어 形成되었으며, 오랜 동안 漢字를 借用하여 썼던 우리 국어는 漢字語가 全體 語彙의 半 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固有文化와 우리의 국어가 重要하고 所重하다면 위와 같은 脈絡에서 漢字·漢文教育은 그 意義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그래서, 中·高等學校의 教育課程에 漢文科日을 設定, 中·高等學生에게 이를 履修시키고 있다.

漢文으로 된 典籍만 工夫하면 社會에 適應할 수 있었던 漢文萬能時代와는 달리 科學文明이 發達한 現代에 있어서 漢字, 漢文만을 工夫하는 것은 時間的·經濟的으로 容納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國語, 英語, 數學 등 많은 教科를 同時에 學習해야 할 現代教育에서 漢文科만 學習하도록 強要할 수도 없고 強要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많은 時間이나 努力으로 漢字·漢文 工夫만을 하도록 허용되었던 過去의 暗記式 學習方法은 現代에 있어서는 不可能하다는 것이 昨今の 中·高等學校 漢文科 教授-學習의 問題點으로 提起되어 왔다.

그러면, 學習者가 적은 時間과 적은 努力으로 쉽게 漢字, 漢文을 工夫할 수 있는 方法은 무엇일까? 筆者는, 漢字와 漢文은 構造로 되어 있는 만큼 構造的으로 學習하는 것이 가장 效果的이고 科學的인 學習方法이라고 생각한다.

表音文字인 한글이나 英語는 形과 音의 두 가지 要素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文字의 結合으

로 이루어진 單語가 最少의 意味 單位가 되지만 表音文字인 漢字는 形과 音과 意, 세 가지 要素로 이루어져 하나의 文字가 뜻을 나타내는 意味 單位가 된다. 그리고, 이들 形·音·意는 相互 聯關性을 가지고 있는데, 形이 音을 나타내며 形에서 뜻까지를 쉽게 抽出해 낼 수 있는 境遇가 많다.

예를 들면, 「門·間·聞」의 音은 「門」에서 나오며 뜻은 「間」의 境遇 「口」字에서 「입(口)으로 묻는다」는 뜻이 되고, 「聞」의 境遇 「耳」字에서 「귀(耳)로 듣는다」는 뜻이 된다.

이와 같은 漢字 構造上의 特徵을 漢字 指導에 適用시키면 漢字에 대한 根本的인 原理를 興味롭게 理解시킬 수 있는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指導方法이 될 것이다.

또한, 漢文의 文型도 漢文 나름대로의 獨特한 構成體系가 있다. 漢文은 語尾의 活用이나 屈折(inflexion)이 없이 다만 語順에 의하여 그 職能과 意味가 달라지며 文章에서 成分도 決定된다. 그리고, 國語에서는 敘述語가 文의 맨 뒤에 오는데 漢文에서는 目的語나 補語가 文의 뒤에 온다.

위와 같은 語順이나 文章 成分의 配列 體系를 構造的으로 學習하는 것이 漢文을 科學的으로 學習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過去의 無條件 暗記式 學習方法의 障壁을 무너뜨리고 現代的인 言語學習의 原理에 의한 漢文科 學習指導를 試圖해 본 것이 構造的 學習指導方法이며, 이러한 構造的 學習方法을 適用한 漢字, 漢字語, 漢文指導法의 事例를 紹介해 본다.

* 全南高等學校·教師

** 이 글은 投稿되어온 原稿中 本院 出版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掲載한다.

Ⅱ. 漢字, 漢字語, 漢文의 構造的 學習指導

1. 漢字의 構造的 學習指導

漢文科 學習에서 가장 基礎가 되는 學習이 漢字를 익히는 段階이다. 漢字語나 漢文을 學習할 때 먼저 그것들을 構成하고 있는 漢字들의 音과 訓을 理解하지 못하면 學習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漢字의 音과 訓 중에서도 音이 더 重要하다. 얼른 생각하면, 漢字는 뜻글자이므로 音보다 뜻이 더 重要할 것 같으나 漢字를 學習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序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말의 半數以上이 漢字語이다. 그런데, 高等學生들이 使用하고 있는 우리 말의 語彙 중 漢字로 쓸 수도 읽을 수도 없으나 뜻을 알고 쓰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漢字語를 學習함에 있어서 讀音을 알면 그 漢字語의 뜻을 짐작할 수가 있고 그 漢字語의 뜻을 알면 그 漢字語를 構成하고 있는 各各의 漢字의 뜻을 推理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독서」란 말은 高等學生들이 이미 알고 늘 使用하는 漢字語이다. 「독서」라고 한글로 써 놓으면 「책을 읽는다」는 뜻으로 모두 알지만, 「讀書」라고 써 놓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高等學生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讀書」의 讀音만 읽을 수 있다면 「독서」란 말의 뜻은 日常 國語生活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으므로 「讀書」의 뜻을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또한, 漢字語의 뜻은 그 漢字語를 構成하고 있는 各各의 漢字의 뜻에 의하여 決定되기 때문에 漢字語의 뜻을 理解시킨 다음에 그것을 構成하고 있는 各各의 漢字의 訓을 推理해 내도록 指導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注意할 것은 極少數에 한하지만 「秋毫」와 같이 그 漢字語의 뜻과 그 漢字語를 構成하고 있는 各各의 漢字의 뜻과 無關한 漢字語도 있다는 點과 위와 같은 方法은 國語科 時間에 漢字를 指導하는 方法이라는 點이다.

漢文科 時間에는 漢字의 構造와 關聯하여 漢字學習을 시켜야 한다. 漢字의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構造이기 때문이다.

構造面에서 漢字를 體系化한 것이 六書인데, 六書 原理 중에서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形聲字이다.

形聲字는 音을 나타내는 部分과 뜻을 나타내는 部分으로 構成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指導할 수가 있다. 「梅」字에서 「木」은 뜻을 나타내고 「每」는 音을 나타내므로 「木+每」로 그 構造를 分析하고 綜合하는 過程을 통하여 音과 뜻을 익히도록 한다. 이러한 方法이 構造的 漢字學習 方法이다.

勿論, 漢字의 構造的 學習을 위하여 基礎字인 部首字를 徹底히 이해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部首字 214個의 大部分이 事物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象形字이므로 字源을 밝힌 視覺資料를 活用하여 部首指導를 하면 部首學習에 興味가 誘發되고 構造的 漢字學習의 基礎도 닦아질 것이다.

部首를 잘 理解하면, 배우지 않은 漢字라도 그 뜻과 音을 推理하여 알아 낼 수 있는 能力도 생기고 筆順이나 字典 찾기도 쉽게 할 수 있는 技能이 생기게 될 것이다. 가령 部首字 「木」은 나무를 거꾸로 세운 모양을 본뜬 象形字이다. 따라서, 「木」을 包含하고 있는 漢字들은 대개 「나무」의 뜻과 關係가 있다. 「本」字는 「木」의 밑 部分에다 한 획을 그음으로써 나무의 뿌리의 뜻이 되고 (나무 뿌리→근본 또는 바탕) 「木」을 두 번 연이어 쓰면 「林」자가 되는데 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 「숲」의 뜻이 된다. 「木」에 「支」字를 이어 쓰면 「나무 가지」의 뜻이다.

部首字는 위와 같이 漢字에서 뜻과 關聯되는 例가 많았다. 그러나, 모든 漢字가 위와 같은 方法으로 說明되고 學習되는 것은 아니라는 點에 注意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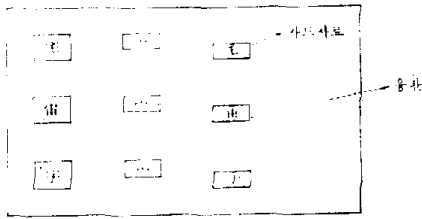
이 事例는 部首字 先行 指導가 이미 된 高等 學生들을 對象으로 한 것이므로 部首字 指導의 方法에 대한 言及은 避했다.

漢字學習에서 構造的 方法을 構造的 分析段階→綜合段階→代替段階 등의 三段階로 나누어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分析段階

아래 그림과 같이 兪판 資料를 活用한 操作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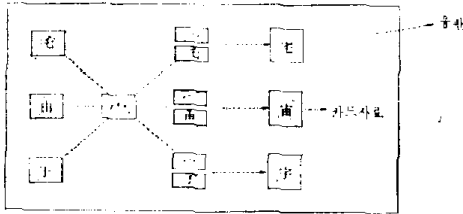
程(카드 資料를 떼었다 붙였다 反復하는 活動)을 통하여 音과 訓을 指導하였다.



위에서 「ㅈ」의 뜻은 모두 「집」으로서 뜻 部分이고 나머지 部分은 「ㅍ→택→택, ㅁ→유→주, ㅅ→우」와 같이 音を 나타내는 音 部分임을 깨닫도록 指導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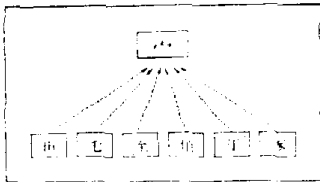
2) 綜合段階

綜合段階는 分析段階의 逆過程으로서 分析段階에서 익힌 訓과 音を 強化하는 段階이다.



3) 代替段階

共通된 部分(대개 部首가 共通된 部分에 該當됨)을 固定시키고 나머지 部分은 代替시켜 音과 訓을 確認시키는 過程이다.



代替段階는 「宙, 宅, 室, 宿, 宇, 家」의 뜻과 音を 再確認시키는 強化段階라고 할 수 있다.

2. 漢字語의 構造的 學習指導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祖上들은 漢字, 漢文의 文化圈에서 살아왔다. 따라서, 우리의 國語 現實이 漢字로서 語源을 이루어 生成된 漢字語들과 우리의 固有語와 漢字가 配合되어 造語된 낱말들이 많은 것은 否認할 수가 없다. 위와 같이 造語된 漢字語가 우리 國語語彙의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다.

漢字語는 그것을 構成하고 있는 글자 한 자 한 자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構造的으로 分析, 綜合할 수 있다. 例를 들면 純粹한 우리 말의 「사랑」이란 語彙는 「사」와 「랑」으로 分析

할 境遇, 意味가 없어져 버리지만, 漢字語「洋服」은 「洋」과 「服」으로 나누어도 各者의 意味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漢字와 結合하여 새로운 語彙를 만드는 能力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漢字語는 構造的으로 學習할 수 있다.

漢字語의 構造的 學習도 分析段階→綜合段階→代替段階가 있는데 이를 詳說하면 다음과 같다.

1) 分析段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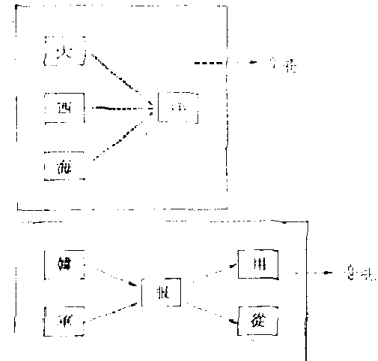
용관에 「洋」字를 붙이고 音과 訓을 새긴 후 「洋」字를 떼고 「服」字를 붙이어서 音과 訓을 새기고 「服」字 앞에 「洋」字를 붙이어서 意味를 짜맞추도록 指導하였다. 이것이 意味構造 分析인데, 意味構造 分析에서 文法構造를 誘導하여 指導했다. 위의 「洋服」의 境遇 「서양식의 옷→洋服→冠形語+名詞類」의 順序로 構造成分間의 關係까지 밝혀 指導하였다.

2) 綜合段階



分析段階의 逆過程으로 「洋」字와 「服」字를 綜合하여 造語하는 活動을 통하여 ㉠의 境遇 漢字語가 成立되나 ㉡의 境遇는 漢字語가 成立되지 않음을 學習者가 스스로 깨닫게 하였으며 ㉠의 境遇 成分間의 關係를 明確히 밝혀 意味構造와 文法構造를 指導하였다.

3) 代替段階



위에서 처럼 「洋」字 앞에 「大」「西」「海」字를 차례로 代替하면서 새로운 漢字語가 造語되는 것을 學習시켰고 또, 「服」字 앞에 「韓」「軍」字를 그리고, 「服」字 뒤에 「從」「用」字를 代替시

켜서 造語하는 過程을 살피게 하여 語彙擴張 指導를 하였다.

3. 漢文 文型的 構造的 學習指導

一般的으로 言語는 獨特한 體系를 가지고 있다. 漢文도 例外는 아니다. 漢文은 語順에 의하여 그 技能과 意味가 달라지며 文章의 成分도 決定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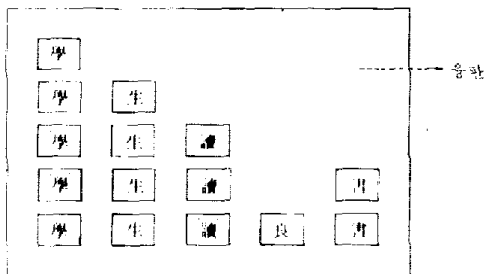
「山高」는 主語와 敘述語가 配合된 主述 文型으로서 「山이 높다」라는 뜻이고, 「高山」은 冠形語와 體言이 配合된 修飾 文型으로서 「높은 山」의 뜻이 된다. 곧, 「高」字가 「山」字 위에 오면 敘述語가 되고 「山」字 앞에 오면 冠形語가 됨을 알 수 있다.

漢文에서 위와 같은 語順 關係를 整理하여 體系化한 「틀」이 文型이며, 文型에는 基本文型和 擴張文型이 있다. 基本文型은 「主體」「行動 目標」「行動」의 세 가지 成分만으로 構成된 「漢文의 틀」이며, 擴張文型은 이 基本文型에 冠形語 副詞語 등의 補充成分이 添加되는 「漢文의 틀」이다.

基本文型이든 擴張文型이든 위와 같이 語順에 의한 構成體系를 가지고 있다. 또한 「春來→陽春來→陽春方來」처럼 基本文型에 副隨的인 補充成分들이 점점 添加되어 擴張文型이 構成된다.

一定한 構成體系를 가지고 있고, 基本文型和 基本文型에서 점점 擴張되는 擴張文型으로 되어 있는 漢文을 效果的으로 學習하는 方法은 構造的 分析, 綜合, 代替의 過程을 통하여 學習하는 方法이라 생각한다. 이들을 詳說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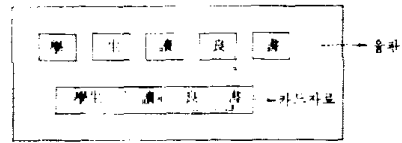
1) 分析段階



「學」字부터 차례로 카드를 붙이면서 그 意味를 새기어 意味構造를 分析, 읽고 뜻풀이를 한 다음, 文法構造를 誘導하고 構成成分間의 關係를 살피어 構造圖까지를 指導하였다. 特히, 成分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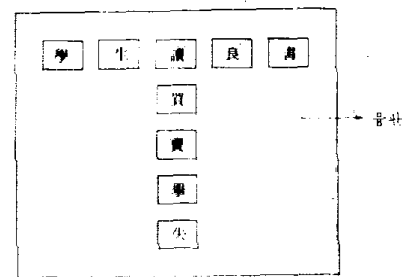
位置가 國語와 差異가 있음을 留意하여 指導했다.

2) 綜合段階



意味構造로부터 文法構造를 짜맞추어 構造圖까지를 提示하면서 指導했으며, 또한 基本文型에서 擴張文型으로 段階的인 指導를 했다.

3) 代替段階



위 圖에서처럼 成分別로 차근차근 代替시켜 應用하는 過程이다. (主語, 冠形語, 目的語 成分의 代替 過程을 圖로 보이는 것은 省略하였다)

4. 虛字의 構造的 學習指導

漢文科 學習에서 虛字의 指導는 必須的이다. 虛字는 學者에 따라서 虛詞 또는 虛辭라고도 하는데 語와 語의 關係나 文의 語氣를 調節하고 文脈과 文意를 돕는 役割을 하는 形態素를 말하며 主로 文法的 職能을 가지고 있는 前置詞, 接續詞, 後置詞, 終結詞를 말한다. 따라서, 漢文을 正確하고 빠르게 解得하기 위해서는 虛字의 用法을 아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 가령 「父母之愛子」와 「父母愛之」에서 「之」는 앞 文에서는 主格助詞 구실을 하고 뒷 文에서는 代名詞 구실을 하며 文의 語氣를 調節하는 虛字임을 알아야 解釋이 可能할 뿐만 아니라, 두 文의 文意를 正確하게 區別할 수가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虛字는 文 속에서 文法的 職能을 하므로 虛字의 指導는 文 속에서 指導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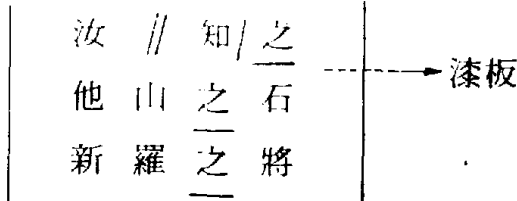
1) 分析段階

學習할 虛字가 들어 있는 文型的 意味構造를 分析한 後, 文法構造를 이끌어 내게 하였고 虛字의 職能이나 뜻을 把握하도록 指導했다. 例를

들면 「汝知之」의 意味構造는 「너+안다+之」인데 여기에서 「之」는 「之」의 本來의 意味 「갈(㉔), 이(㉕), 이(㉖), ~의(㉗), ~은(가, 는)(㉘)」중 「이(㉕)」로 풀이해야 「너는 이를 안다」로 解釋이 可能함을 알도록 指導했다. 또한 「之」가 「이 지」로 풀이되므로 目的語임을 알게 되고 「汝知之」의 文法構造도 理解하게 된다. 勿論 「之」의 本來의 意味는 學生들이 字典에서 스스로 찾도록 指導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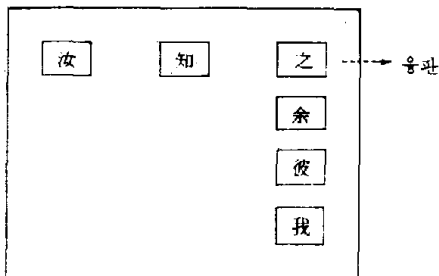
2) 綜合段階

分析段階에서 分析된 「汝知之」를 全體의으로 읽고 풀이하며 既習했던 「之」의 用法에 대하여 여러 가지 例를 綜合的으로 漆板에 提示 前段階에서 成就한 學習內容을 強化했다.



3) 代替段階

다음 그림과 같이 兪판 자료를 活用하여 「之」字 대신에 다른 漢字 카드를 交替하면서 뜻을 새기는 過程을 통하여 「之」字의 意味와 쓰임을 確實하게 理解하도록 指導했다.



Ⅲ. 結 言

漢字, 漢字語, 漢文은 一定한 體系와 構造가

있다. 따라서, 漢文科 學習에서 構造를 「分析→綜合→代替」하는 過程을 통한 構造的 學習方法은 興味를 誘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漢字, 漢字語, 漢文을 쉽게 익힐 수가 있는 效果的인 學習指導 方法이다.

勿論 漢字學習에 있어서 構造的 學習을 하려면 漢字에 대한 基礎學力이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構造로 分析할 수 있는 形聲·合意字가 全體의 80%나 된다는 事實을 생각하면 漢字學習에서의 構造的 學習指導의 重要性은 再論할 餘地가 없다.

言語를 익히는 데는 反復이 重要하다. 漢文도 言語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構造的 學習은 言語의 反復學習이란 점에서 漢文科 學習의 能率을 높이는 데 알맞는 學習指導法이라 생각되었다.

漢字語는 漢文科 學習의 內容이면서 國語의 語彙임을 否定할 수가 없다. 따라서, 漢字語 指導는 國語와 關聯하여 指導되어야 한다. 위의 構造的 學習指導方法은 漢字語의 造語力 곧, 國語의 語彙力向上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매우 바람직한 學習指導法이라 생각된다.

構造的 學習指導法은 漢文工夫를 어렵다고 아예 포기해 버렸던 學生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꾸어 놓는 契機가 되었다. 漢文도 工夫해 보니 재미있다고 하는 學生이 점점 늘어갔다.

漢文科가 엄연히 獨立科目인데도 불구하고 非專攻教師가 時間에 구기式으로 指導하는 事例가 지나치게 많음이 一線現場의 實情임을 생각할 때 漢文科를 擔當하고 있는 一線教師로서 착잡함을 禁할 길이 없다.

끝으로 이 事例 報告書를 作成함에 「鄭愚相의 中學校 漢文指導의 方向」(國語教育 第35號 pp. 203~219)을 參考했음을 밝혀 둔다. —◆

TV 教育 프로그램 活用을 통한 發表討論 指導事例*

全 炳 教**

I. 머리말

작년에는 5학년 1반을 담임하다가 금년에도 그 반 담임을 계속하고 있다.

나름대로는 현재, 우리반 兒童들이 상당한 發表討論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그렇게 지도하기까지의 事例를 적어 본다.

나의 교육 실천적인 면을 반성해 볼 때, 작년 초까지만 해도 月末考査에 試驗點數만 올리면 된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학습 지도 방법은 지식 주입적인 방법이었고, 學習資料라고는 교과서와 문제집 그리고, 성적이 좋지 않은 아동을 때려 주는 회초리만이 필요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학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고, 학습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은 非能率的이라고 외면하며, 아동들로 하여금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知識習得의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II. 말 못하는 天才를 길러 온 授業

5학년 1반 담임이 되어 成績을 최고로 올려 보려고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있던 중 우리 학교가 教育放送 活用 시범 학교로 지정을 받았다. 얼마 후에 학급별로 TV를 갖추고, TV 教育放送 活用에 대한 職員研修가 거의 매일 계속되더니, TV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하라는 교장선생님의 지시가 있었다.

나는 속으로 아동의 실력은 언제 올리고 TV 수업을 하느냐고 거부감을 느꼈다.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나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다.

그런데, 6월말에 나에게 TV 교육 방송을 활용한 研究授業을 하라는 별도의 지시가 내려졌다.

이제까지 TV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을 經驗해 보지 못한 나에게 研究授業을 하라니 매우 난처하였다.

그러나, 研究學校 교사로서 연구 수업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나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수업을 공개했다. 검토 협의회 시간에 校長, 校監 선생님께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았다. 그 중에도 아동들의 발표가 가장 문제가 되었다. TV를 視聽한 뒤 내용의 요점이나 의문점 등을 물으니 고개만 숙이고 전혀 발표가 되지 않아 수업의 효과는 보통 때만큼도 거두질 못했다. 다른 선생님들께 부끄럽기도 하고 스스로 뉘우쳐지는 바도 있었다. 이제까지 점수따기식의 수업만을 해 왔으니 말 못하는 天才를 길러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더 연구해서 9월에 다시 수업을 공개해 보라는 격려 섞인 지시에 나는 3개월 계획으로 研究授業 준비를 시작했다.

III. 段階的 發表訓練

TV를 활용한 수업을 잘하려면, 발표 토론 능력이 있어야겠다는 판단 아래 TV를 활용한 發表討論 訓練을 시작했다.

어린이들의 發表力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면 모두 아침 자습 시간에 시청시키고 발표 훈련을 했다. 남보다 일찍 出勤해서 기재실의 VTR을 교실로 옮겨 놓고 어린이들을 기다렸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발표를 시켰다.

* 이 글은 投稿되어온 原稿中 本院 出版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掲載한다.

** 忠北 江外國民學校·主任教師

우선 1 단계로 약 15일간은 TV 視聽內容 중 한 가지씩을 말하게 했다. 다음에는 두 가지 이상, 그 다음에는 생각하고 느낀 것을 발표하도록 훈련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의견 첨가하기, 수정해 주기, 차이점 이야기하기, 비판하기 등으로 발전적인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어린이들의 發表能力이 놀랄 만큼 향상되었다.

9월 研究授業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다. 어린이들과는 많은 發表와 討議를 하라는 약속을 거듭하고 수업을 공개했다. 그런데,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 등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나 학습 내용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많았다. 이번 研究授業도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아니, 나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고, 校長, 校監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께도 큰 실망을 드리게 되었고, 나 자신은 망신을 당하는 꼴이 되었다. 자신을 反省해 보니, 어린이들을 탓할 수도 없었다. 무엇이든지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심어 준 것은 담임인 나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짜증이 날 만큼 거의 매일 계속되는 教育放送 活用に 대한 職員研修를 남의 일인 양 젓혀 두고, 고집스럽게 발표 훈련만 시킨 것이 후회스러웠다.

IV. 放送 프로그램을 中心으로 한 討議學習

1,2차 연구 수업을 실패한 나는, 3차 연구 수업은 성공하겠다는 목표로 치밀한 計劃을 세워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훈련 방법을 달리했다. 어린이들의 發表力은 어느 정도 길러졌으니, 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발표와 토론이 되기 위하여는 TV를 활용하는 수업 과정에서 훈련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판단 아래 訓練을 시도했다.

教師研修 때 나누어 준 유인물을 다시 들추어 研究主任과 상의하여 이론을 정립했으며, 시청 전 지도, 시청 중 지도, 시청 후 지도에 중점을 두고, TV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사전에 시사·분석하여 수업에 投入할 내용을 選定하였다. 다

음에는 분절, 중복 등의 투입 방법과 투입 시기를 정하여 授業段階에 적절히 활용을 해 보았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체계가 서는 듯했다. 그때부터 방영되는 教育放送 프로그램은 전부 수업에 활용을 하였다. TV를 視聽하기 전에는 반드시 思考하고, 탐구할 문제 의식을 갖도록 시청 전 지도를 철저히 했고, 시청 후에는 주어진 문제 해결 활동으로 討論을 시켰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학년별로 실시되는 TV 프로그램 分析 및 試寫作業에도 열심히 참석하였다. 어느 정도 성공적인 TV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을 즈음, 교내 연구 수업보다 더 급한 郡內 중간 발표 계획이 확정되었다. 道 지정 시범 학교의 1차년 발표였다. 이 날의 수업에서 나는 參觀하신 선생님들에게 흠족한 수업은 보여 드리지 못했지만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授業模型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였다.

V. 努力的 結實을 거두고자...

10월의 중간 발표를 마치고 여러 가지 行事に 쫓기다 학년말을 맞았다. 나는 본교 근무 5년으로 동일교 근무 만료가 되었으나, 研究學校 教師라는 特惠로 1년간 유예가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 1년 동안 다른 어느 해보다 열심히 學習訓練을 시키고 가르친 어린이들과 떨어지기가 아쉬웠다. 공들여 길러 온 花草를 남에게 빼앗기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무언가 조금 손에 잡히다 놓치는 듯한 안타까움에 마음을 죄었다. 오늘이 있기까지 나와 어린이들이 쏟아 온 努力的 結實을 맺기 위해 교장 선생님께 懇請을 드려서 금년에 6학년 담임을 배정 받게 되었다.

새 학년이 되어 조금은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나는 오로지 教育放送 활용 수업에만 골몰하였다.

작년에는 발표력 신장에 주력했던 것을 올해는 한 단계 높여서 교육 방송 활용 수업을 통한 학력 제고를 教授目標로 정하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나는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TV 教育放送授業 자체를 부정하던 내가 타의에 의해 수업을 하면서 방송 수업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곤란을 겪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體系를 잡고 보니, 그 과정이 너무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TV 방송 프로그램 중 教材內容과 兒童水準에 맞는 자료를 선정하는 문제, 녹화 과정에서의 화질 문제, 투입 방법과 투입 시기의 결정, 시청 전·후 지도 방법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 그럴 때마다 研究主任이나 동학년 선생님들과 상의하여 한 가지씩 문제를 解決해 가면서 나는 착실한 본교의 研究要員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Ⅵ. 努力한 만큼의 보람

TV 교육 방송을 가정에서도 어린이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教室에 교육 방송 안내판을 설치하고, TV 시청 노트를 정리하게 하여 學習經驗을 확대시키기에 노력했으며, 우리 반 어린이들의 공부하는 모습이 청주 MBC TV 에 녹화 방영되고 85년 7월 12일 제 3 TV 에서 방영되자 兒童들의 士氣와 學習意慾은 더욱 높아져 갔다.

분단별로 과제를 제시하면 방과 후 어린이들 스스로 錄畫 프로그램을 찾아 자율적으로 시청하고 학습하는 자율적인 풍토가 조성되었다.

지난 해에 발표 토론의 기본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學習活動이 심화되어 교과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 증거로 교내 1차, 2차, 3차 學力考查에서 전교 1위를 하였고, 교내 수학 경시 대회에서도 최고의 成績을 올리게 되었다. 현재는 어린이들의 학습 활동과 발표 토의 능력이 많이 향상되어 언제나 TV 방송 프로그램 活用 授業을 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過程을 겪고 나니 교육이란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이제야 教師로서 철이 들고 있다는 생각

이 든다. 이러한 좋은 眞理를 터득하기까지 고충도 많았지만 보람된 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오로지 研究授業을 잘하기 위해 발표 토의 학습 훈련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 어리석게도 생각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듯이 아동들의 學習活動에서는 자신의 意見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矜持와 보람을 느낀다.

며칠 전에 학부모 한 분이 찾아와서 아들이 야기를 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바보스럽고 말도 못해서 저 녀석이 커서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도 했었는데 요사이는 아는 것도 많아지고 말도 제법 조리 있게 한다는 이야기였다. 學父母들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아이를 맡기면 걱정이 없다는 말과 내년에도 우리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럴 때마다 누구보다도 教師로서의 보람을 느낀다. 確實히 우리 반 어린이들은 많이 성장했다. 말로 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제법 意思表示를 잘하게 되었으며, 學習力도 많이 길러졌고, 知識과 常識도 많아졌다. 또한, 하나의 학습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토론이 벌어질 때 흐뭇함을 느낀다.

TV 교육 방송을 수업에 적용하면서 어린이들이 단편적인 지식 획득에서 탈피하여 왕성한 문제 의식과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日常生活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해결해 가는 것을 지켜볼 때 TV 교육 방송 活用의 心要性을 절실히 느낀다.

급변해 가는 미래의 高度産業社會에 대처하고, 고등 정신을 계발시키기 위하여, 探究力과 想像力이 왕성한 아동으로 이끌어 가려면 일선 교사들이 좀더 많이 TV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視聽覺 經驗을 하도록 TV 教育放送 活用に 대한 關心이 높아져야겠다. ◆

統一安保教育의 特性과 指導方法*

宋寅誠**

I. 統一安保教育의 特性

통일 안보 교육에 대한 概念의 定義가 통일 안보 교육의 存立根據와 그 방향을 示唆해 준다고 보면 特性을 파악하는 일은 내용의 構成과 指導方法을 摸索하는 側面에서 매우 重要한 일이다.

그런데, 統一安保教育은 다음과 같이 다른 敎育과 區分되는 몇 가지의 特性을 갖는다.

첫째, 통일 안보 교육은 어느 한 敎科만으로 取扱될 수 없는 綜合性을 갖는다는 점이다.

통일 안보 교육의 內容은 道德, 社會, 國語 등 모든 敎科에서 취급되는 것으로 이들 領域間에 一貫性, 統一性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 內容은 모든 生活領域에서 具現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그 폭이 넓다.

따라서, 통일 안보 교육은 理念, 價値, 傳統, 現實, 未來를 연결하는 肯定的 애국심을 포함하여 共產主義 理論과 北韓共產集團의 正體, 그리고 北韓의 實情 등을 포함하는 反共精神과 統一觀 및 安保觀 등을 綜合的으로 취급하는 敎育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 안보 교육은 思想敎育의 中核을 담당하는 敎育이다.

思想敎育은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指向하는 人間敎育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 敎育의 目標을 設定하는 데는 한 나라의 傳統的 價値觀과 政治理念들이 조화적으로 結合하는 국가 이념이 作用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人間敎育은

넓은 의미의 思想敎育의 범주에 속하며 또한 道德敎育 내지 價値敎育도 思想敎育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나 그 나라가 택하는 政治理念이 있고 體制의 安定과 維持를 원하며 이를 위하여 국민이 思想的 支持를 요청하기 마련이다.

셋째, 통일 안보 교육은 時事性이 强하다.

南北對話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쌍방의 合意에 따라 서로 비방을 삼가면서 왔다. 그리고, 크고 작은 武力挑發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北韓共產集團은 계속 우리를 비방해 왔으며, 무력 남침을 위한 땅굴을 파고, 급기야는 버마 아웅산 事態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強化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II. 國民學校 敎育課程에서 본 統一安保敎育

1. 敎育課程의 特性과 敎育目標에서

1) 82年 개편된 敎育 과정에서는 국민 학교 敎育의 特性을 “民主國家 國民으로서 必要한 資質을 기르는 基本敎育이다”라고 規定함으로써 民主市民의 生活 영위에 필요성을 들고 있고,

2) 국민 학교 敎育目標 첫째 項에서는 敎育 과정 改正의 基本哲學을 국민 정신 敎育의 體系化에 두고 道德的인 사람, 自主的인 사람 등으로 자라나게 도와 준다는 原理와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道德的 人格形成, 民族共同體意識의 高

* 이 글은 投稿되어온 原稿中 本院出版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揭載한다.

** 서울放鶴國民學校·研究主任敎師

揚을 강조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3) 道德科 교육 목표 중 統一安保教育 관련 목표로 “國民으로서의 긍지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겨레의 發展에 協力하며 國際理解를 위하여 努力하게 한다”(다항)와 “北韓共產黨의 그릇된 侵略性을 경계하고 民主主義 우월성을 이해하여 平和統一의 信念을 가지게 한다”(라항)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난 교육 목표는 과거 消極적이었던 反共教育이 積極적인 統一安保教育의 方向으로 시사하였고 북한 공산 집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의 共產主義體制를 批判하고 否定하는 政治思想教育次元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밝히고 있다.

2. 教育課程의 編制와 時間配當에서

1) 教科의 시간은 교과간의 연관성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저학년에서는 교과간의 統合을, 고학년에서는 分科原則으로 配當되어 있으나 統一安保教育은 어느 單一教科에만 指導될 수 없는 特性을 갖고 있으므로 全教科와 生活領域에서 綜合的으로 指導할 수 있도록 體系의인 교과 관련 지도가 요망된다.

2) 國民精神教育과 統一安保教育은 國家體制에 대한 理念教育을 根幹으로 하여 학교 교육 전반에 反映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고등 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급별로 지도 내용의 限界와 範圍, 그리고 行動特性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다시 국민 학교에서는 學年別로 지도 내용과 行動特性을 體系化시키고 각 교과에 대한 反映은 道德, 社會를 一次 대상 교과로, 國語를 二次 대상 교과로, 그 밖의 교과를 三次 대상 교과로 定하였다.

그리고 一次 대상 교과에서는 統一安保教育 內容을 직접적으로 領域이나 德目으로 選定하도록 하고 二次 대상 교과에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內容을 反映하도록 하며 三次 대상 교과에서는 잠재적인 教育課程의 原理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3. 教育課程 運營指針의 內容에서

운영 지침의 내용은 교육 과정 운영에 具體的

인 示唆를 주기 위하여 計劃, 指導, 評價, 其他의 네 部分으로 나누어 編成되어 있다.

1) 計劃에서는 학교에서 教育課程 운영을 위하여 계획을 樹立하는 데 필요한 事項을

2) 指導에서는 學習指導를 위하여 一般的으로 지켜야 할 事項을

3) 評價에서는 學習結果를 評價하는 데 基本이 되는 一般指針을

4) 其他에서는 公立學校의 교육 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事項을 提示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運營指針의 內容編成 중 국민 학교 교육 활동의 全體的 相互 관련성을 맺도록 하는 일의 重要性을 強調했으며 指導의 (3)項에서 未來社會에서의 능동적 적응에 필요한 探究的 문제 해결 능력 伸張, (4)項에서의 表現機會 擴大 등은 일선 教育現場에서 특히 指導되어야 할 重要한 事項들이다.

Ⅲ. 統一安保教育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1. 問題點

이상 통일 안보 교육의 特性과 教育課程運營面에서 考察해 본 結果 교육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통일 안보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겠다.

첫째, 내용면에서는 지금까지의 통일 안보 교육이 共產主義에 대한 否定的인 感情을 주로 強化하는 消極的인 反共教育이었다.

둘째, 指導方法面에서 教化 위주의 방법에 주로 依存하는 교육이었다.

셋째, 資料面에서 주로 道德 教科書 活用 中心으로만 行하여지고 其他資料의 부족으로 共產主義의 실제에 대한 體系的 批判教育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2. 改善方向

統一安保教育의 문제점 改善을 위한 새로운 方向을 目標, 指導內容, 指導方法 側面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目標面에서

우리 體制의 우월성에 대한 確固한 信念을 갖

고 國土分斷 狀況下의 民族成員으로서 肯定的 國家觀 및 올바른 統一 安保觀을 갖게 하는 적극적인 教育을 해야 할 것이다.

2) 內容面에서

- (1) 民族主體性에 입각한 國家觀을 確立할 수 있는 內容
- (2) 남북 체제간의 正統性과 能率性 및 適應性에 대한 對比를 통해 우리 체제에 대한 自負心을 심어 줄 수 있는 內容
- (3) 통일에의 希望과 意志를 高揚시키고 우리 체제에 대한 발전 지향적인 力量을 길러 줄 수 있는 內容
- (4) 북한 공산 집단의 挑戰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民主主義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生活態度를 確立할 수 있는 內容
- (5) 先進祖國의 역사적 使命에 부응하고 能動的이고 生産的인 참여 의식을 高揚시킬 수 있는 內容 등을 選定 조직해야 할 것이다.

3) 指導方法面에서는

- (1) 現實 分析法을 이용한 남북 체제간의 相互對比 및 批判活動을 통한 內面化 過程에 입각한 方法
- (2) 認知的 側面과 情意的 側面이 均衡과 조화를 이루면서 教育內容 性格에 적합한 方法
- (3) 探究의 論議를 통한 批判的 思考力을 育成하고 統一安保教育의 特性에 맞는 方法을 實施해야 할 것이다.

Ⅳ. 統一安保教育의 指導方法

1. 指導方法 模型

指導方法 模型 중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지도 내용에 따라 學習者 중심의 探究的 方法인 討議法은 주로 중·고 학년에 적용하고 교사 중심인 강의법은 저학년 수업에 활용하며 이들 혼합법은 전학년에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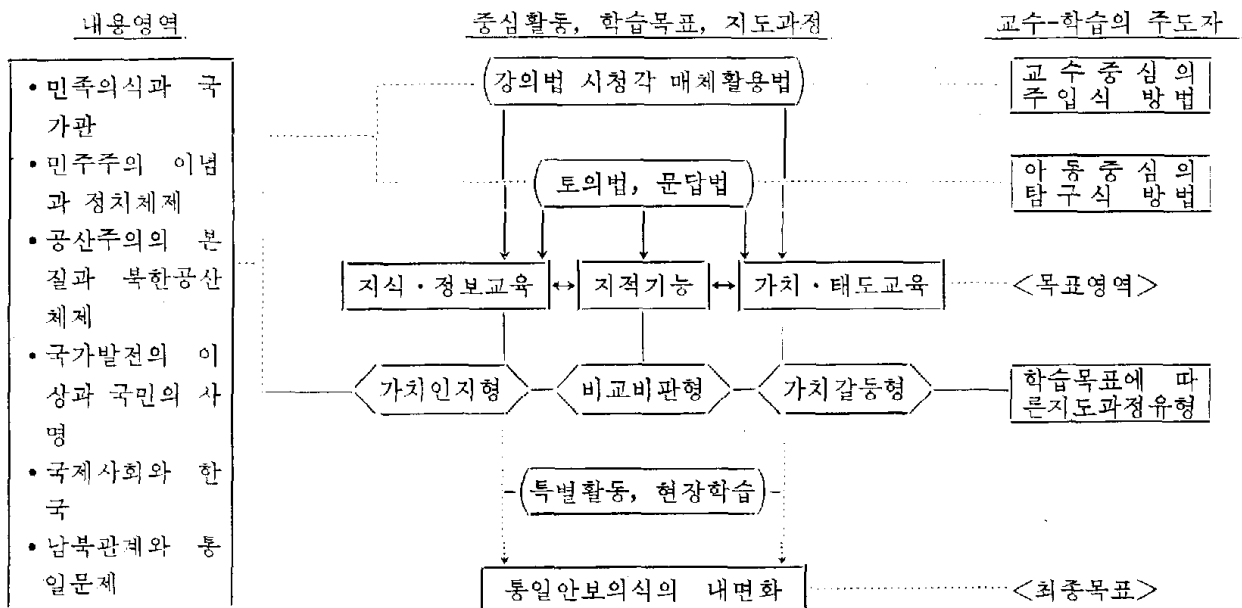
따라서, 指導方法의 改善方向에서 示唆한 探究的 論議를 통한 批判的 思考力을 育成하여 통일 안보 의식의 內面化, 信念化에 알맞은 지도 방법인 討議法(論議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討議法

종래의 주입식 방법의 대안으로 등장한 발견식·문제 해결식·탐구식 방법의 대표적 유형으로 학습자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공동의 문제에 대한 집단 사고와 대화를 거쳐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1) 특 징

- ① 토의 과정은 思考力을 높여 주며 自主的으로 思考할 수 있는 態度를 길러 준다.
- ② 個人의 思考를 明確하게 전달하는 態度가 길러진다.
- ③ 個人의 意思 決定보다는 多數의 의사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길러진다.



④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民主的인 資質이 육성된다.

⑤ 知識이나 意識이 討議過程에서 깊이 있게 內面化된다.

⑥ 발전적인 입장에서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데 불필요한 시간은 너무 浪費하는 경우가 많다.

(2) 活用條件

① 態度와 價値觀의 변화 등 情意的 변화를 기대할 경우와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기능 등 知的 能力的 伸張이 특히 강조될 때 적절하다.

② 자유롭게 意見을 發表할 수 있는 許容性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토의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目的을 지니고 參席해야 한다.

④ 討議者들에게 충분히 토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3) 討議法의 類型

① 패널 토의 (panel)—소수의 집단(4~8)명을 선발(조직)하여 다른 동료들을 위해 토의를 벌이는 방법.

② 대립 토의 (debate)—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대립되는 의견에 따라 갈라 놓고 자유롭게 토의를 벌이게 하는 방법

③ 포럼 토의 (forum)—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전체 앞에서 발표한 후 다른 사람 중에서 몇이 나와 토의를 벌이는 방법

④ 심포지움 (symposium)—수명의 발표자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순서적으로 발표한 후 다른 피교육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다. 이때 발표자는 발표 자료를 배부할 수 있고 교사는 질의 응답을 도와 줄 수도 있다.

(4) 留意點

① 토의 주제는 아동의 思考와 行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한다.

② 좌석은 토의법 유형에 맞게 配列한다.

③ 교사는 토의 주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助言者의 역할을 해야 한다.

④ 토의 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思考過程이 이루어졌는가에 중점을 둔다.

(5) 討議活動(論議活動)의 適用方法

① 小集團의 構成

집단 생활을 하는 國民學校 과정에서부터 토

의 활동을 통하여 개개인의 思考力, 意志力, 發表力, 民主的 態度 및 人間 관계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集團思考에 의해 보다 發展的인 問題解決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習慣化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기초 자료 조사→구성 원칙 결정→인원 및 좌석 배열→조장 선출 및 역할 부여→소집단명 붙이기→소집단 운영으로 구성 한다.

가) 기초 자료 조사—원활한 협력 조직을 위해 비공식 또래 집단 및 개인차를 파악(교우 관계 조사, 특기 및 취미 조사, 기초 학력 조사, 신체 조건 조사 등)

나) 구성 원칙 결정—기초 자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급내 또래 집단을 중심으로 한 구성 원칙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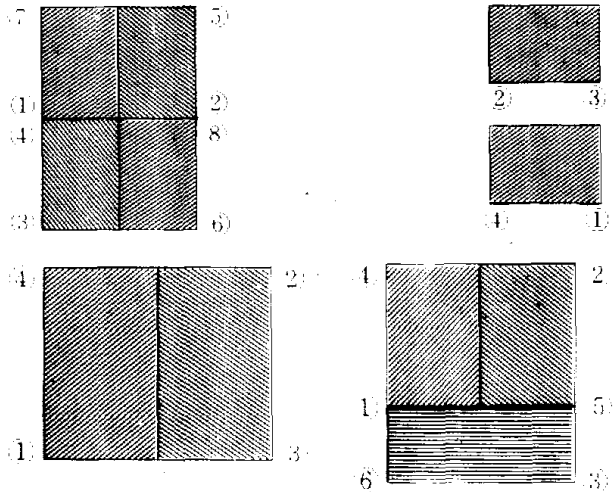
㉠ 취미, 특기가 비슷한 학생 중심으로 구성

㉡ 기초 학력 조사 결과 성적 우수아와 부진아를 고르게 구성

㉢ 신체 조건 조사 결과 시력 좌고 등을 고려하여 배치

㉣ 교우 관계 조사 결과 또래 집단별로 리더를 안배하여 구성.

다) 인원 및 좌석 배열—논의 과제의 성격, 분량, 곤란도, 형태 및 학년의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열 구성한다.



라) 조장 선출 및 역할 부여

㉠ 집단을 대표하는 중심 인물로서 일정 기간 윤번제로 조장의 역할을 바꾸어 수행한다.

㉡ 구성원의 마음을 열게 한다.

㉢ 협의 문제를 쉽게 설명한다.

㉣ 기억이나 메모를 하여 구성원을 도와 준다.

㉤ 협동 분담 조절·종합한다.

㉞ 구성원 의견을 종합하여 전체 의견으로 재 구성한다.

㉟ 구성원 고루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

마) 소집단 이름붙이기—구성원의 협의에 따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 활용되 학습 전체가 산만하지 않게 유사한 종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다.

② 小集團의 運營

가) 학습 전체에 해당되는 제재정하기

나) 제재에 대하여 구성원 각자의 개인 사고를 하여 자기 의견 갖기

다) 소집단 협의하기

라) 발표자 정하기

마) 발표한 내용을 메모하거나 연습하기

바) 발표하기

사) 질의와 보충 발언하기

아)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며 듣기

자) 틀렸을 때는 인정하고 양보하기

③ 基本技能 指導計劃

논의 활동은 기본 기능이 습득되지 않으면 중심활동이 곤란하므로 지도 계획에 따라 충분히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 기능 지도 계획

단계	지도영역	지도 내용	대상학년			지도 일정					비 고	
			저	중	고	1주	2주	3주	4주	5주		
초 단 계	말하기 기능	발표태도(자세, 시선, 손들기, 어조, 몸짓, 차례지키기)	○	○	○	←						• 논의 활동 지도 자료 활용 • 아침 자습시 20분간 집중 지도 • 수업 중 수시 지도
		의견발표, 질의보충	○	○	○	←						
	듣기 기능	듣기태도(자세, 시선, 반응, 메모)	○	○	○	←						
		내용파악(비판적으로 듣기)	○	○	○	←						
	수신호	의견 발표시 수신호 요령	○	○		←						
	과 제 처 리	용구준비과제, 지식생활적과제	○	○	○		←					
실천적과제, 학습계획조사, 탐구적 과제		○	○	○		←						
적 용 단 계	토의 기능	직관, 간접경험, 상상을 통하여 말하기	○	○	○			←				
		사건의 흐름을 조리 있게 말하기	○	○	○			←				
		구체물을 통한 관점 및 근거찾기	○	○	○			←				
		사건, 사태에 관하여 관점을 설정하고 근거 제시하기	○	○	○			←				
	발기 문능	사고적 신장을 위한 발문		○	○			←				
		학습 상황에 따른 발문		○	○			←				
	소집단의 논	소집단 조직 운영		○	○			←				
	학습 유형 별 논의 활동 지도	가치인지 학습		○	○			←				
		가치갈등 학습		○	○			←				
		비교비판 학습			○			←				
대립토의 학습				○			←					
배심토의 학습				○			←					

④ 基本姿勢 訓練方法

1 단계	2 단계	3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사람 → 듣는 사람을 향해서 ○ 듣는 사람 →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 지명을 받으면 “예”하고 일어나 대답 ○ 거수—원팔을 60° 정도로 비껴서 쪽퍼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맞는 크기의 목소리로 전체 아동이 잘 들리게 ○ 말하는 속도—말하듯이 자연스럽게 ○ 명확한 발음, 표준어 사용 ○ 잇는말(접속어) 사용하여—“에, 응, 어” 등 군소리 넣지 않도록 ○ 남의 말을 들을 때에는 요점을 메모하면서 듣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여 말한다. ○ 말하는 차례와 내용을 메모하여 이용한다. ○ 자기 생각과 관련하여 같은점, 다른점, 비슷한 점을 가려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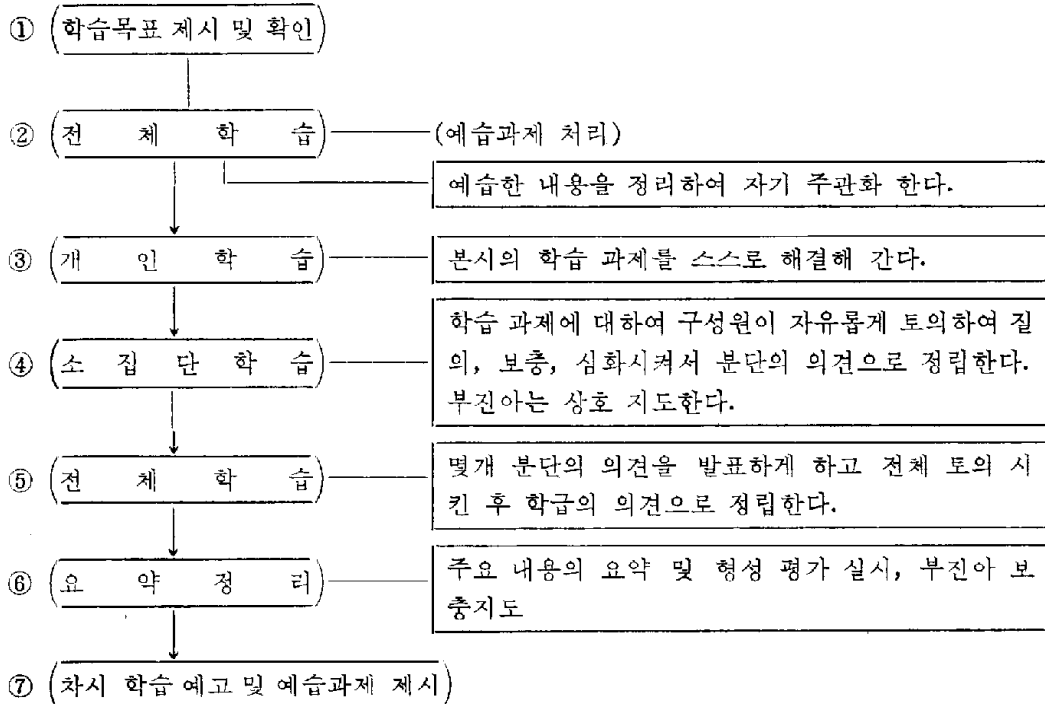
⑤ 基本姿勢 訓練內容

상황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의견을 말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것 같아요. ○ ~라고 생각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들면 ~입니다. ○ 첫째는 ~이고, 둘째는 ~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 대해서는 ~이므로 ~라고 생각합니다. ○ ~과 다른데 그것은 ~입니다. 그 까닭은 ~이기 때문입니다.
찬성을 말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까닭은 ~이기 때문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므로 ~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입니다.
대립 의견을 말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 내 생각은 ~라고 생각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는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 대하여는 ~이 아니고 ~이라고 생각합니다. ○ ~은 ~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 ~라고도 합니다. ○ ~과 비슷합니다만 ~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 말에 ~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외에 ~도 있습니다. ○ ~에 대하여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 생각도 좋습니다만 ~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 대하여 ~을 보충하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것의 보기를 들면 ~입니다. ○ 그것은 좀더 설명하면 ~입니다.
질문을 제기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 잘 모르겠는데 다시 말해 주세요. ○ ~에게 물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게 질문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 ~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찌서 그렇습니까? ○ ~에 대하여 더 자세히 말해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해서는 ~입니다. ○ ~은 어찌서 그렇게 됩니까? ○ ~대해서는 알겠는데 ~대하여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까지는 알겠는데 ~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으니 좀더 자세히 말해 주세요.
수정 의견을 말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 ~으로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 그것보다는 ~이 더 좋겠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비슷하지만 ~면 어떨까요. ○ ~과 ~을 같이 묶을 수 있겠는데…… ○ ~은 ~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까닭은 ~이기 때문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보다는 ~의 생각이 ~점에서 더 좋은것 같습니다. ○ ~부분은 ~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이기 때문입니다.

⑥ 狀況別 訓練 內容

상 황	조 언 의 요 령
틀린말의 정정	○ 조금 기다려 봐요. 그렇게 해서 될까? (여유를 두고) 조금더 생각해 봐요. (다시) 말해도 좋아요. ○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그래서 될까? 등
어떤 발언을 계속시킬 때 틀리려고 할 때	○ 응, 그렇군! 재미있는 생각인데, 모두 잘 알겠지요. 그럼 더 계속해 봐요. ○ 조금 기다려 봐. 누구는 그렇게 말 했는데 조금 어색하지 (이상) 않을까? ○ ~라고 발표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러 이러한 방향(각도)에서 다시 생각해 볼까?
건성말로 말을 이어 나갈 때 좋지 않은 의견이 나왔을 때	○ 좋은 의견(말, 생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자세하게) 말해 봐요. 누가 더 보충해서 발표해 볼까? ○ (아동명은 숨겨 두고)아까 발표할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생각은 ~것이 아닐까요? (그 이야기가 취소되어 버린다.)
좋은 의견이 나왔을 때	○ ○○의 생각은 ~점이 좋지요. ○ ○○의 의견은 ~점이 아주 훌륭해요. 등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 준다.
논의의 목표를 확인 할 때	○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까?
논의가 공전할 때	○ ○○는 ~라고 말했는데 ○○는 ~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논의가 계속될 수 있을까? ○ 서로 타협할 수는 없을까? ○ 자기의 의견을 고칠 것은 없을까? 들이 다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

⑦ 單位授業의 段階別 指導



※ 본시의 학습 문제가 둘인 경우에는 ①→(②→③→④→⑤)→(②→③→④→⑤)→⑥→⑦과 같이 ②에서부터 ⑤까지 반복한다. ◆

教育·産業化 및 技術發展에 관한 세미나를 다녀와서

崔 清 一*

유네스코 教育計劃研究所(UNESCO/IIEP)의 산업 추진 방식은 일단 사업이 끝나면 완료된 사업을 놓고 이에 대한 평가 워크숍 또는 세미나를 가지는 것이 통례이다. 이번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국가인 튀니시아의 모나스티어에서 개최된 「教育·産業化 및 技術發展에 관한 세미나」도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IIEP 부소장 베나센누, 연구 위원 산얄, 까이오 외에 소련, 멕시코, 콜롬비아, 튀니시아, 포르투갈, 헝가리, 서독, 브라질, 잠비아, 쿠바, 토고, 알제리아 및 한국 등 13개국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아침 9시 30분에 시작하여 저녁 6시에 마치는 마라톤 회의였다. 중간에 11시와 오후 4시에 있는 15분간씩의 커피 마시는 휴식 시간은 딱딱한 회의 분위기를 상당히 완화시켜 주었다.

회의 기간은 85년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계속되었다. 회의 장소는 모나스티어 공항 맞은편에 신축된 큐리아르 팔레스 호텔에서 있었는데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옛날 궁전식으로 설계해서 건축한 별표시 5개의 최상급 호텔이며, 내부 석재는 전부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튀니시아는 모스렘 국가로서 호텔에서 여자 종업원을 거의 볼 수 없었으며 길거리에서도 여자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점포, 기념품점, 식당, 주점, 안내원 등 거의 남자 일색이었다. 사용하는 언어는 아랍어와 불어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어를 모국어인 아랍어보다 더 流暢하게 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튀니시아 수상이 한국을 몇달 전에 訪問하고 왔다고 하면서 굉장히 반가움을 표시하곤 하였다. 그리고 튀니스(튀니시아의 수도)에 한국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과 튀니시아는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서 들었다.

세미나 첫날은 모나스티어州 知事가 개회사를 하였고 이어서 아바코브 박사에 의해서 「教育·産業化 및 技術發展」에 관한 종합 보고가 있었다. 아바코브는 현재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 책임자로 있지만, 이전에 IIEP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研究責任者였다. 이 연구는 IIEP의 제 3차 중기 事業計劃의 일환으로 1977년에 시작되어 1982년에 완료하기로 계획하였는데 몇개의 사업은 1985년도까지 지연되었다. 아바코브의 지휘 아래 遂行된 사업은 총 9개였다. 주로 IIEP와 해당 국가의 연구 기관과 공동 과제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사업은 「소련에서의 高等教育 技術發展 및 雇傭」(佛文版), 「헝가리에서의 高等教育 및 技術·經濟發展」(佛文版), 「동독에서의 教育訓練體制와 社會經濟 發展과의 關係」(英文版), 「소련의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教育發展」(佛文版), 「포르투갈에서의 産業構造·技術變化 및 高等教育」(佛文版), 「쿠바에서의 製糖産業 發展과 중·고급 專門家 訓練과의 관계」(英文版), 「멕시코 라자로 카텐사 지역에서의 産業園地 개발에 대한 教育의 기여」(英文版), 「튀니시아에서의 각종 職業技術 教育간의 연계성」(佛文版) 등이다. 주요 목적은 어떻게 하면 기술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연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계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방대한 事業計劃의 주요 핵심이 있다. 이어서 IIEP 부소장 베나센누 박사가 세미나 진행 관계를 불어로 이야기하고 동시 통역인들이 이것을 영어로 통역하여 주

* 教育發展研究部·比較教育研究室長·哲博

었는데 통역이 신동치 않아 커피 휴식 시간에 많은 불평이 있었다. 그런대로 오전은 끝나고 오후에 멕시코의 파두아 박사로부터 「멕시코 라자로 카텐사 地域의 산업 단지 개발에 대한 教育의 寄與」에 대한 要約發表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콜롬비아의 빅터 고메즈 박사가 논평을 하였다.

파두아 박사는 교육 훈련과 산업화 및 교육과 기술 발전과의 관계에서 멕시코에서의 教育·産業化 및 技術發展 관계를 설명했는데 발사스 천하류 지역에 있는 라자로카텐사 지역의 도시화 과정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카텐사 지역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70%가 전통적인 방식에서 농경작을 하는 일차 산업을 주종으로 하는 지역이었으나 멕시코 정부의 開發戰略에 따라 급격한 발전을 이룩했다는 지역이다. 생산과 고용 구조에서의 변화와 동시에 인구수와 구조에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산업도 지역 외부의 국가적·국제적 단위에서 계획되고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技術形態의 변화는 사회의 압력 단체의 힘에 의해서 변한다기보다는 教授-學習與件의 改善, 교원의 자질 향상, 교수 방법의 개선 등에 의해서 變化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教育哲學·概念에서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계획으로 전환될 때 技術發展이 이루어진다는 추상적인 내용이었다.

콜롬비아의 고메즈 박사는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 없이 막연한 사회학적 이론을 그대로 일반화하였다고 指摘하였다. 기술 형태는 사회의 압력 단체의 의지대로 변한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교육의 내용과 학습 여건 등은 사회 압력 단체의 영향에 의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막연히 상호 관계를 분석함이 없이 내려진 결론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노종 모나스티어에서 현 부르기바 대통령이 죽으면 물히게 될 어마어마한 사원을 관광한 뒤에 붓고 버스로 튜니스로 이동하면서 파두아 박사는 차 안에서 콜롬비아 고메즈 論評은 자기가 한 연구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으며, 그 연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한 데서 나온 논평이라고 비난하였다. 고메즈의 논평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았다.

佛語와 英語간의 동시 통역이 계속 발생을 일으켰다. IIEP 부소장이 계속 헤드폰을 끼고 테스트를 하고 난 후, 유럽에서 전문 동시 통역인이 올 때까지 세미나를 영어 사용권과 불어 사용권으로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가국 가운데서 불어 사용권이 압도적으로 많아 IIEP 전 스텝이 영어 사용권으로 왔다. 영어 사용권 국가로서는 西獨, 잠비아, 콜롬비아, 브라질, 쿠바 및 韓國 등이었고 불어 사용권 국가는 소련, 헝가리, 튀니시아, 폴투갈, 토고, 알제리아 등이 이에 속했다.

영어 사용권 세미나의 주제는 「컴퓨터와 마이크로 電子産業 및 自動化의 發展과 教育/훈련의 결과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였는데 여기에 발표자는 콜롬비아, 브라질, 잠비아 및 한국 등이었다. 잠비아는 시간 관계로 발표하지 못하고 세미나가 끝났다. 콜롬비아는 제삼 세계 교육 문제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빅터 고메즈 박사가 발표하였다. 教育社會學的인 입장에서 직업 교육과 기술 교육과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콜롬비아의 주종 산업은 섬유 산업으로 아직 마이크로 전자 산업은 착수 단계에 있다고 하였다.

브라질의 경우는 콜롬비아와 상당히 달랐으며 한국의 마이크로 전자 산업과 유사한 發展過程을 겪고 있었고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클라디아 카스트로 박사가 발표하였는데 마이크로 전자 산업과 자동화를 중심으로 자동화를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발표 제목도 「Who's Afraid of Digital Circuits?」로서 자동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도전과도 같은 색채를 풍겼다. 브라질은 新生工業國(Newly industrialized country)으로 빈곤과 후진성을 벗어나 상당한 산업 기술 수준에 到達하였다고 하였다. 실업률은 약 10%이나 불완전 고용을 포함한다면 약 20% 이상은 된다고 하였다. 수백만의 雇傭인들이 아직도 중세식 기술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두드러진 분야는 농업과 건설업을 꼽았다. 동시에 브라질 수출의 3분의 2는 제조 부문 수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첨단 산업 분야도 계속 성장세에 있고, 수출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하였다.

카스트로 박사는 산업의 자동화는 항상 대변혁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자동화로 인한 대대적인 실업은 현재에만 겪는 것이 아니고 産業革命마다 반드시 대규모의 실업을 경험한 것이 역사적인 현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동차의 공포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도 있었다. 그러면, 그 위험이 지금 더 크게 되었나? 마이크로 電子産業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산업 현대화는 제 3세계 국가와 특히 신흥 공업국에 심각한 딜레마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로봇트 하나가 대개 3명 내지 10명의 작업량을 대신한다고 한다. 만약 로봇트가 全産業에 쓰여지게 된다면 브라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그래도 자동화로 왜 이루어져야만 하는가이다. 브라질에서의 자동화는 매우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계수형 전자 장치 예컨대, 수치 제어 작동기, 컴퓨터 장치, 로봇트 및 제반 컴퓨터 제어 장치 등이 많이 보급되었지만 굉장히 신중한 단계를 거쳐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5년 현재 1,711개의 수치 제어 작동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3분의 1 이상이 最近에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25개의 로봇트가 설치되었는데 주로 브라질의 4大自動車會社에서, 조립 공정에서 로봇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3년 이내에 200개의 로봇트가 배치될 展望이라 한다. 한국은 1983년 현재 약 20대의 로봇트를 설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브라질과 상당히 유사하였다. 그리고 43개의 CAD/CAM 시스템이 브라질에 있는데 한국이 1983년 현재 약 30개 가량 보급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약간 브라질이 이 분야에 앞서 있는 것 같지만, 한국의 통계가 2년 전이고 그리 이 분야의 급속한 發展에 비추어 지금쯤 한국이 이 분야에서 브라질보다 앞서 있을는지 모른다고 하겠다. 더구나, 브라질의 산업 규모로 볼 때 이와같은 숫자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 카스트로의 주장이었다. 그 이유는 자동화는 낡은 기계를 대체할 경우에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普及速度가 극히 완만하였다는 것이다.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政府에서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쓰

고 있는 것도 자동화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브라질도 제조 부문의 수출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카스트로 박사는 브라질이 飛行機를 제조하여 서독 루프트 한자에 수출하였고 전차를 생산하여 미국 육군에 수출하였으며, 컴퓨터도 서독에 수출하는 단계에 있다고 자랑하였다. 따라서, 수출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는 상대방 국가에서 쓰는 무기와 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경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 국가에서 NC, CAD/CAM, 로봇트, FMS 등의 자동화 기계로 물건을 생산해 낸다면 브라질도 이와 같은 기계로 물건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어떻게 競争에 이겨내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물론 카스트로 박사도 자동화로 인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勞動의 비용이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브라질에서 노동의 비용 즉, 임금을 節約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자동화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참고될 것은 브라질에서 각기업이 자동화하는 이유가 될 것 같다 카스트로가 제시한 이유를 열거해 보고자 한다. 브라질에서의 산업 자동화의 주요 이유는 첫째, 자동화로 제품의 질을 높여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國際競争에서 제품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 이유였다. 둘째는 제품의 品質檢査와 품질의 統制業務가 자동화 기구에 의할 때 더욱 정확해진다는 것이며, 세째는 새로운 기구의 適應性이 훨씬 증대한다는 것이다. 조립의 자동화는 조립의 변화에 따르는 시간 소요를 격감시켜 준다는 것이다. 네째는 기업이 새로운 장비로 어떻게 處理하는가를 알기 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공장의 자동화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용접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무거운 강철판을 정확하게 부착시켜 이를 鎔接하는 것 등은 자동화를 하지 않으면 불량품을 만들어내기 쉽다는 것이다.

전자 회사에서도 제품 검사를 수동으로 할 때 65%의 정확성밖에는 보장할 수 없지만 이것을 자동화하게 되면 95%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브라질에서는 단지 3개의 회사만이 이러한 자동 공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삽입 기구에서는 자동화가 10배 내지 12배의 신속성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카스트로는 자동화를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강조하였다. 나중에 한국에서의 자동화 이유와 비교할 때 좋은 비교가 되었다.

한국에서의 컴퓨터 및 전자 산업의 발달과 자동화 및 교육 훈련에의 결과를 발표했을 때 상당히 좋은 反應을 얻었다. 세미나에 참가하기 전에 미리 92개의 도표를 작성해서 이것을 프로젝트용으로 필름화시켜서 가져갔다. 회의에서 발표시 외는 모나스티어에서는 프로젝트를 구할 수가 없어 튀니스에서 文敎部職員이 특별히 수송해 왔다. KEDI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IIEP의 산알 박사와 함께 협의를 해서 발표할 표를 10장 선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7장으로 요약하였다. 차음에 한국에서 어떻게 마이크로 전자 산업을 추진해 왔는가 하는 것을 政府의 政策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먼저 한국은 1983년에는 R&D의 GNP의 비율의 1.25%였으나 1886년에는 이것을 2%선으로 증가시키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하였다. 한국에서의 交易政策은 자동 승인, 제한 승인, 수입 금지의 3가지로 구분되는데 컴퓨터와 반도체가 자동 승인과 제한 승인에 속한다고 하였다. 브라질의 카스트로는 브라질에서는 컴퓨터가 전면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한국은 현재는 컴퓨터가 제한 승인 품목에 속하지만, 1987년에는 자동 승인 품목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브라질도 이와 같은 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韓國의 政策을 지지하였다.

벤처어 케피탈 회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 벤처어 케피탈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을 생산하려는 기업에 용자를 조건부로 해 주는데 만약, 기업이 실패한다면 한 푼도 받지 않는 대신 만약에 기업이 성공하게 된다면 銀行이자보다도 높은 이자로 融資金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데 지대한 貢獻을 하는 것이다. 콜럼비아의 고메즈는 전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브라

질의 카스트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중요한 통계 수치는 일일이 다 기록하였다.

나중에 카스트로는 한국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 쪽은 상당히 개발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 미개발 상태라고 하면서 한국의 컴퓨터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카스트로는 한국을 브라질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브라질에서의 韓國産業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다고 하였다. 어느 한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나라에 가서 情報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나라와 경쟁 상대에 있는 나라에 가서 알아야 한다면서 한국에 관해서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한국을 자기 나라의 競爭相對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르고, 상당히 새로운 정보로 생각되었는지 상당히 關心을 가지고 기록하곤 하였다.

자동화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IIEP의 부소장 베나세누 박사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

한국에서의 자동화도 공장보다도 事務自動化가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공장의 자동화보다도 사무 자동화가 훨씬 경비가 덜 들고 작업이 쉽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컴퓨터가 자동화 장비의 대표적인 것이며, 순수 서비스 분야와 생산 시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업용 로봇, CAD/CAM 시스템, 수치 제어 작동기는 아직도 미개척 분야라고 하자, IIEP의 베나세누는 한국의 CAD/CAM 시스템이 몇 개 있으며 산업용 로봇이 몇 개 있는지 물었다. 사실 산업용 로봇과 CAD/CAM 시스템은 아직 극히 초보 단계이다. 로봇은 1983년 현재 한국 전체에 약 2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1981년 일본의 로봇이 67,000개 인데 비교하면 정말 초보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20개의 로봇도 자동차 회사와 電子産業體에 집중되어 있다. 現代自動車가 우리 나라 로봇 이용의 선도자이다. 대부분의 로봇이 현재에는 용접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현대에 이어 기아 자동차, 대우 자동차에서도 용접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金星電氣通信과 三星電子도 수치 제어 작동기 제작 분야에 몇 대의 로봇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CAD/CAM 시스템

은 현재 20~30개 정도 이용되고 있는데 한양, 현대와 같은 建設會社에서 건축 골조와 철탑의 제조 등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한국에서의 자동화의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할 때 브라질의 카스트로는 몇 번 되물으면서 받아 적었다. 브라질의 자동화의 주요 원인이 제품의 질적 향상인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첫째가, 작업의 신속성, 즉 자동화가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둘째가, 기업간 情報體制의 改善 세째가, 의사 결정의 적정화 네째가, 온라인 시스템화 다섯째가 인력 절약과 비용 절감이라고 하였을 때, 브라질의 카스트로는 상당히 만족해 하였다. 즉 브라질과 같이 노동의 費用節約이 자동화의 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브라질이나 한국 다같이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동화에는 費用節減보다도 작업의 신속성과 같은 생산성 향상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데 공감하였다. 가지고 간 도표 중에서 자동화로 인한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프로젝트로 보였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즉, 한국에서는 125개의 기업이 자동화로 인하여 고용에 영향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단지 22개의 企業만이 영향을 받고 나머지 103개의 기업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 印象的이었던 것 같았다.

전자 산업 발달과 함께 교육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를 프로젝트를 보여 줄 때, 일종의 감탄과 같은 것을 느꼈다. 즉, 1965년 高等教育機關의

전자 공학과 학생이 불과 605명이었으나 이것이 1984년에는 96배로 증가하여 58,0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대학원 수준에서는 1965년에는 불과 4명의 학생밖에는 없던 것이 1984년에는 1,699명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화면으로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한국의 教育制度가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社會變化에 잘 대처해 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이 너무 이론적이고 교과서 중심이며, 이와 같은 것을 改善하기 위하여는 이론과 실습이 균형을 이룬 교육이 실행되어야 하고, 공동 연구, 공동 세미나 등 產學協同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산업체의 요구라는 것을 도표로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었을 때 상당한 공감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세미나가 끝나고 튀니시아 文部省 職員의 안내로 현재 대통령 부르기바의 하기 별장과 현재 82세인 부르기바 大統領이 죽으면 묻히게 될 寺院을 관광하였다. 그리고 “나사렛의 예수”라는 영화가 촬영된 스튜디오를 訪問하였는데 현재 博物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모나스티어에서 출발한 팀과 튀니스에서 출발한 팀으로 나누어져 튀니스로 오는 도중 3500년이나 되는 오랜 도시인 슈스를 방문하였다. 슈스에서 옛날 골동품을 파는 시장에서 값싼 紀念品을 기념삼아 몇개씩 구입하고 튀니스에서 민박하고 난 다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각각 헤어졌다. 필자는 IEP의 산악 박사와 함께 과리로 향해 떠났다. —◆

☆우리 教授-學習 改善을 위한 授業模型 紹介書☆
☆現場教育 質向上에 盡力하는 教職者의 必讀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 수업 방안 모색

韓國教育開發院 發行

四六倍版(高級模造) 353페이지

民族文化文庫刊行會 普及

教育放送 示範學校 運營結果

崔 武 英*

I. 背景과 目的

人類가 생존하는 한, 教育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教育人口 및 內容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인간 생활이 科學化, 機械化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교육 방법 개선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라 하겠다.

이러한 때에 새로운 教育媒體로서 커다란 期待裡에 教育放送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와 같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教育工學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교육 개혁의 한 장으로 큰 의의를 지니는 教育放送에 대한 기대는 자못 크다. 教育放送을 통해 각종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크게 강조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學校教育에 있어 복합적인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학교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다인수 학급의 운영」 지식량의 팽창에 의한 「教育課程 擴大」, 환경 및 여건에 따른 「지역간의 교육 격차」 등 전통적인 學校教育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아직도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教育方法의 개선, 교육 내용의 구조화, 平等·平生教育의 기회 제공 등 다각적인 試圖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그 하나의 媒介體로 教育放送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기대 속에 가능성을 찾으려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결과 教育放送은 풍부한 학습 경험과 자료를 적절히

제공해줌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教育效果를 거둘 수 있는 훌륭한 教育媒體로서의 그 價値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970년도 중반부터 시도된 本院의 새 授業體制 示範學校를 통한 教育放送 프로그램 적용 연구에서 확인되기 시작했으며 보다 광범위한 활용이 강조되었다.

그 후 1981년부터 본격적인 教育放送이 실시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82년 국민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教育放送 프로그램 활용 수업 모델이 개발되었고 그것을 교육 현장에 실제 적용해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기여토록 하였다. 그것은 종래의 내용 연구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후의 구체적인 확산 보급에 대한 조치가 미미했던 모순을 없애고 보다 광범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였다. 따라서, 1983년도부터 文敎部를 비롯한 전국 13개 市·道 教育委員會指定 「教育放送」 示範學校」를 운영해서 그 동안의 研究結果의 실제 적용을 통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현실에 알맞는 방안을 구안하여 그 일반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教育放送 示範學校의 구체적인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教育放送 프로그램 활용 수업 모델을 교수-학습 과정에 적용하여 개선점 및 효율적인 방안을 탐색한다.

둘째, 地域實情 및 學校與件에 알맞는 활용 방안을 구안하여 적용함으로써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도모한다.

셋째 教育放送 프로그램 活用體制 및 方法을

* 教育放送本部·放送教育研究一室·研究員

확산시켜 일반화할 수 있는 地域中心學校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II. 方法과 內容

示範學校는 地域 및 學校實情에 알맞는 示範主題를 선정하여 文教部 및 市·道 教育委員會에서 지정하였고 教育研究院과 공동으로 각종 시범·연구 활동에 대한 자문을 本院에서 담당하였다. 教育放送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설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2년의 운영 기간을 두도록 하였다.

1. 示範運營 主題選定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도모하고 대내·외적인 활용 확대를 위한 일반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및 학교 실정에 알맞는 실천 가능한 主題를 선정하였다. 이때는 先行研究結果를 참고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選定하여 학교별 특징적인 시범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 運營組織 構成

학교별로 시범 활동을 위한 運營委員會를 조직하여 체계화하였다. 동학년 협의회, 교과별 협의회, 분과별 협의회 등의 組織을 통하여 프로그램 내용 분석, 활용 방법 결정, 문제점 추출, 프로그램 활용, 평가 등의 活動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 運營委員會 : 시범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천, 평가(직능별 부서 조직)
- 同學年(教科別)協議會(授業研究會) : 프로그램 활용 계획 수립
 - 프로그램 내용 분석 및 활용 수업 계획
 - 수업 전개 및 문제점 추출

3. 施設·設備

지정 기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였다. 초기에는 既存施設을 최대한 활용한 학급 단위의 小規模示範活動을 해나가면서 점차 동학년, 전학년 활용 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추도록 하였다. 따라

서, 연차적인 시설 계획에 의거하여 一元放送體制, 二元, 三元放送體制로 확장함으로써 재정적인 무리를 줄이도록 하였다.

- 공청 시설(텔레비전) :
 - 공청안테나(UHF용)
 - TV 수상기
 - VTR 또는 VTP
- 녹화 시설 :
 - VTR
 - Video Tape(Cassette)
- 방송 및 수신 시설 : 증폭기
 - 분배기, 분기기
 - 동축케이블
 - TV 수상기(교실용)

4. 教員研修

프로그램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機資材操作을 비롯한 教育工學, 프로그램 활용 수업 설계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인 知識과 技術을 계획적인 教員研修活動을 통해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때는 本院 研究陣과 地域內 資源人士들의 강의와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하였다.

5. 教授-學習活動

프로그램 활용 수업은 진도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의 量과 目標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單位時間內에 여러 차시분의 目標과 內容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먼저 단원별 투입 시기를 생각하고 해당 차시별 투입 시기를 결정토록 하였다. 프로그램 전체를 활용하기 힘든 경우는 해당 차시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수시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되었다. 이때는 교사 자신이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理解가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協議體運營을 통한 사전 시청 활동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강조하였다.

III. 現況

1972년부터 1982년까지는 一部地域學校를 대

상으로 教育放送 프로그램 활용 방법 연구를 위한 實驗·研究學校의 성격으로 운영되었다. 그 후 教育放送이 본격화되자 先行研究結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한 보다 효율적인 활용 방법을 구안하기 위한 示範學校가 전국 각 시·도 별로 지정, 운영되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教育放送 示範學校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도별 시범 학교 현황

연도	학 교	지 역	비 고
'80	창서국민학교 거제국민학교 낙생국민학교 백운국민학교 신관국민학교 월야국민학교 효령국민학교	서울 서대문구 부산 동래구 경기 성남 충남 대전 충남 공주 전남 함평군 경북 군위군	*본원 연구 추진에 필요 한 임의지정 *'81년도까 지 계속
'81	내성국민학교 복일국민학교 봉동국민학교 동포국민학교 한림국민학교	강원 영월 충북 청원군 전북 완주군 경남 창령군 제주 북제주군	*분원 연구 추진 실험학 교(임의지정) *'82년도까 지 계속
'83	한남국민학교 봉동국민학교 홍남국민학교 낙생국민학교 동포국민학교	서울 한남동 전북 완주군 충남 홍성군 경기 성남 경남 창녕군	서울특별시 교위 지정 전북 교위 지 정 충남 교위 지 정 }문교부 지정
'84 '85 '86	한남국민학교 연제국민학교 달서국민학교 동암국민학교 양정국민학교 단구국민학교 강외국민학교 홍남국민학교 아중국민학교 화원국민학교 수산국민학교 창평국민학교 신제주국민학 교 광남 중학교 문화여자중학 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남양주 강원 원주 충북 청원군 충남 홍성 전북 달성 경남 전남 담양 제주 신제주 경기 대전	*각 시·도 교위 지정 *2년차 계속 운영

영산포여자중 학교	전남 금성		
동인천고등학 교	인천		
경일여자고등 학교	인천		
성지여자고등 학교	인천		
'85 신규 '86, '87	연희국민학교 중앙국민학교 계룡국민학교 한밭중학교 부천고등학교 현대여자고등 학교	서울 충남 대전 경남 거제 충남 논산 경기 경남 울산	*각 시·도 교위 지정

Ⅳ. 結果要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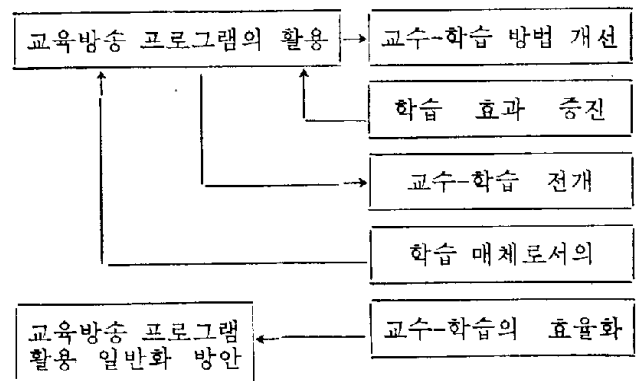
示範學校 운영의 결과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요약될 수 있다. 즉 운영 주제 및 내용, 운영 체제, 운영 성과, 해결 과제 등이다.

텔레비전 교육방송 프로그램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示範運營 主題 및 內容

示範運營 주제는, 각 학교별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教育放送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教授-學習方法改善」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학교 자체적인 연구의 형태보다는 既開發되어 있는 授業模型에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문제의 발견과 해결점을 찾아 보려고 노력했다. 또한 운영 결과들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基盤을 造成하려는 시도도 병행되었다.

특히 중·고등 학교의 경우는 學習不振兒, 自律學習, 補充學習 등에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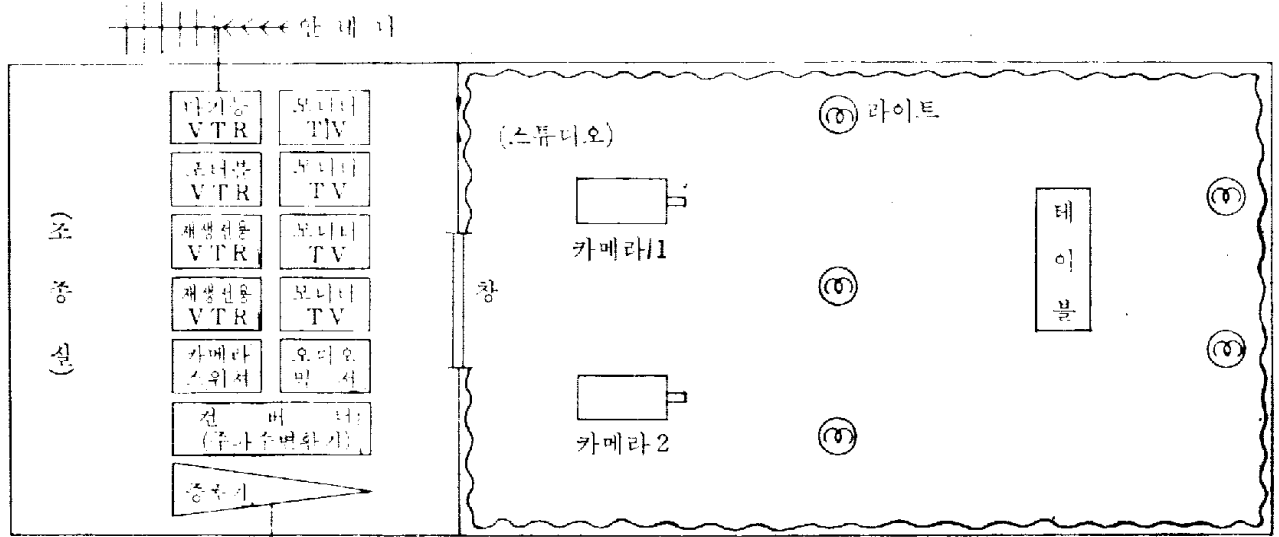


〔그림 1〕 시범 운영 주제 구성

는 노력이 중심을 이루었다. 국민 학교의 경우 처럼 全教科에 고루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일정 교과를 선정하여 그 활용 효과를 추 출하였다. 각각의 주제 구성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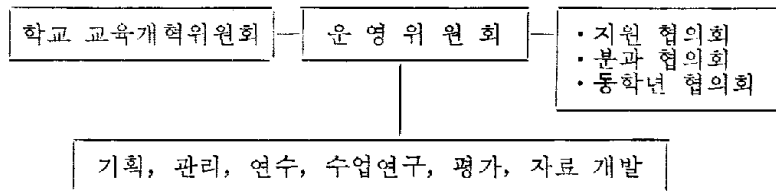
2. 運營體制

1) 施設·設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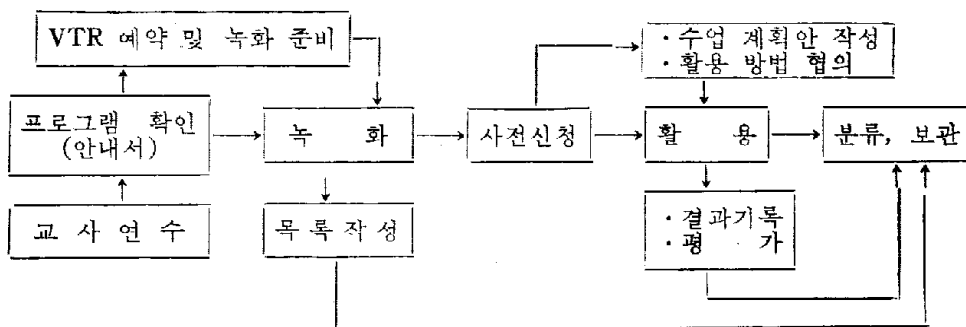
[그림 2] 단계별 시설·설비도

2) 運營組織



[그림 3] 운영 조직

3) 活用節次



[그림 4] 활용 절차

3. 運營成果

示範學校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간 교육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하며, 敎授-學習의 방

教育放送 활용 시설은 재정적인 문제와 직결 되므로 학교 규모와 예산 및 인적 자원 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로 갖추었다. 즉 1 단계로 單位教室活用施設로 출발하여 2 단계의 學年單位活用施設, 3 단계의 全學年同時活用施設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4 단계 시설로 점진적인 擴充을 통한 무리 없는 운영을 하였다.

법 개선에 일익을 감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성과를 학교, 교사, 학생, 일반화의 측면에서 요약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學校

- 대내외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 해서 자체 施設·設備를 확충할 수 있었다.

-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과 研究活動이 활성화되었다.

- 地域中心學校로서의 대외적인 위치와 인식이 강화되었다.

2) 教師

- 각종 研修活動을 통한 教育放送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 사전 수업 계획을 통한 授業設計 능력 및 수업 기술이 향상되었다.

- 밀도 높은 학습이 가능해짐으로 해서 教授-學習方法을 개선할 수 있었다.

3) 學生

- 학습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증대되어 학습 참여 의식이 고취되었다.

- 학습 내용 파악이 용이하였고 질의·토의 능력이 향상되었다.

- 답구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이 신장되었다.

- 방송 학습 기록장 및 메모 기능 신장을 통한 학습 내용 요약 능력이 향상되었다.

4) 一般化

- 관계 장학진 및 연구진의 教育放送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 가정 학습 권장에 따른 학부모의 教育放送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다.

- 교사 모임을 통한 教育情報 및 資料交換 활동이 활발해졌다.

- 地域學校 시설자문 및 敎員研修 活動을 통한 一般化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4. 解決課題

어떠한 일이는 그 推進過程에서 막힘 없이 풀려 나가기란 그리 쉽지는 않다. 반드시 진행을 막는 벽이 있기 마련이다. 그 벽을 어떻게 현명하게 뚫고 넘어가느냐에 따라 성패의 향방이 가려진다. 教育放送 示範學校 운영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제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요약·정리한다.

- 방송의 형태를 유지하는 프로그램(20분, 30분)을 단위 수업에 그대로 활용하는 데는 시간적인 제약이 뒤따른다.

- 방송은 학교 진도와의 連繫性을 유지하면서 1週日前 정도의 사이를 두고 送出해야 한다.

- 프로그램 안내서가 더 상세화되어야 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가 프로그램 속에 많이 담겨야 한다.

- 교사의 업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보다 체계적이 敎員研修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 機資材購入窓口를 일원화하여 지역간 가격의 격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 능률적인 시설 설비 방식이 개발·보급되어 試行錯誤를 줄여야 한다.

- 教育放送에 대한 情報 및 資料交換을 위한 常設機構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V. 맺음말

教育放送 프로그램의 활용 效果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바람직하다. 어떠한 형태이든 授業은 교사의 의도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수업에 의해 학생들은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示範運營 그 자체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보다 긴 안목에서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시대적인 요구인 教授-學習方法 개선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2000년대를 살아갈 학생들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일 것이다. 이제까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教育放送 활용에 관한 한 선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示範學校 敎師들을 통해 프로그램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되어 일반화되었을 때 우리가 지향하는 教育改革은 꿈이 아닌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

선과 악에 대하여

선(善)을 선하게 여김은 길게 해야 하고, 악(惡)을 미워하는 것은 짧게 해야 한다.

(善善長 而惡惡短)

—《세종실록》 제28권 세종 7년 4월 19일 —

■ 이는 이 무(李茂)의 죄로 인하여 그의 외손(外孫)인 맹효증(孟孝曾)의 고신(告身)을 수탈(收奪)하자 이를 다시 서경(署經)하라고 사간원(司諫院) 장무관(掌務官)인 조수량(趙遂良)에게 내린 전교(傳敎)의 내용이다.

선(善)을 선양(宣揚)하고 악(惡)을 숨겨 주는[隱惡揚善] 것은 순(舜) 임금의 정치 이념이었으며, 역대의 어진 제왕(帝王)이 준행(遵行)한 규범이기도 하다. 더우기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외손까지 처벌을 받는 것은 인정(仁政)을 시도하는 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왕(大王)의 정치 이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일하는 마음

무슨 일이든지 전력을 다해 다스린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凡事 專治則無不成)

—《세종실록》 제49권 세종 12년 9월 11일 —

■ 세종 대왕은 일찌기 말씀하기를, “대개 일을 쉽게 여기고 하면 성공하지 못하나, 그 일을 어렵게 여기고 하는 이는 반드시 성공한다.” 하였다.

일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일을 쉽게 생각하여 소홀하게 대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일을 처리하여야 한다.

세종 대왕은 말씀 그대로 항상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신중과 전력을 다하였다. 세종 일대의 모든 눈부신 업적(육진 개혁과 사군 설치, 조세 제도의 확정, 훈민정음의 창제 등)은 세종 대왕이 이렇듯 신중을 기함은 물론 전력을 다한 결과 이룩된 소산이라 할 수 있다.

▷ 院 內 動 靜 ◁

● 主要 協議會 및 세미나 ●

○10월 14일부터 연 7일간 本院 教育方法研究室에서는 院外 하 병권(서울 교대), 정 진권(한국체육대학) 教授와 院內 과 병선 教育課程研究部長 外 關聯 研究員이 參席한 가운데 現行 國民學校의 教育 目標 및 內容에 合致될 수 있는 教科書 體制로 修正·補完될 수 있도록 執筆指針을 검토하고 그 內容을 協議하였다.

○10월 22일 本院 藝·體能教育研究室에서는 院外 김 석진 文敎部 研究官, 강 신복(서울대) 教授, 신 승평(서울시 교위) 獎學士, 院內 류 삼태 藝·體能教育研究室長 外 關聯 研究員이 參席한 가운데 體育教科書 例示單元 最終檢討를 위한 協議會를 開催하였다.

● 來訪人士 ●

○日本 NHK 企劃本部 國際協力部長인 Shinichi Shimizu 氏와 T. Tanaka 氏가 10월 28일 本院을 訪問하여 김 영식 院長, 홍 기형 教育放送本部長·外 關聯 局·室長과 함께 教育放送 프로그램 體制에 관한 技術協力 및 本院 職員의 NHK 研修計劃日程에 관한 協議를 하였다.

○UNESCO 傘下 IIEP Staff member 인 Dr. Bikas Chandra Sanyal 이 本院을 訪問하여 10월 26일부터 5일간 教育發展研究部 比較教育研究室과 IIEP의 共同 Project 인 産業技術發展을 위한 教育戰略의 研究에 대한 諮問 및 討議를 하였다.

● 對外活動 ●

○10월 19일 本院 企劃調整室 박 경숙 研究調整擔當은 大邱大學校 師範大學에서 開催된 韓國精緒障礙 兒 教育研究會에서 「障礙兒童의 査定」이란 題目으로 主題發表를 하였다.

● 人事消息 ●

전 근 무 처	성 명	현 근 무 처	직 위	발령일
기획조정실	최 정 인	교육과정연구부	사무실장	86. 1. 10
교육과정연구부	이 영 구	사무처	관리과장	86. 1. 10
교육발전연구부	김 병 성	방통고교육국	국장	86. 1. 10
교육발전연구부	배 친 응	교육발전연구부	교육사회연구실장	86. 1. 10
교육방송본부	성 효 석	교육과정연구부	수학교육연구실장(직대)	86. 1. 14
사무처	임 한 수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	86. 1. 10
방통고교육국	조 석 호	교육발전연구부	평생교육연구실장	86. 1. 10

○교육과정연구부장 과 병선(연구위원에 임함. '86. 1. 11)

○기획조정실 임 천순 책임연구원 휴직('86. 1. 4~'86. 11. 30)

○교육과정연구부 강 옥기 책임연구원 휴직('86. 1. 7~89. 1. 6(3년))

○교육자료부 오 진석 책임연구원 휴직('86. 1. 1~'86. 8. 31)

○本院 한 중하 企劃調整室長은 1987년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開催될 第16次 太平洋 科學會議에 「科學情報 및 教育分科」 準備委員으로 被選되었다.

● 海外出張 및 研修 ●

○11월 2일부터 16일간 本院 김 영식 院長은 最近 教育改革動向 把握과 國家間的 教育競爭에 對處하는 霧圍氣探知, 主要國의 文敎長官 등 教育界 人士 面談, 教育機關 視察 및 教育改革案 作成을 위한 資料蒐集을 위해 教育改革審議會 서 명원 委員長, 第3分科 강 성위 委員과 함께 프랑스, 獨逸, 핀란드 등 國外 出張을 다녀왔다.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本院 홍 기형 教育放送本部長, 김 학진 企劃局長, 송 인덕 審議委員, 강 하원 庶務室長 外 7명으로 構成된 海外研修팀은 日本, 臺灣地域에서 海外研修를 받았다.

● 院內消息 ●

○今年度 하반기에 新規採用된 責任研究員인 박 문태, 노 명완, 이 용숙, 정 찬영 博士가 10월 19일자로 研究評價委員으로 任命되었다.

○지난 3월 創刊한 韓國教育開發院消息에 대한 內容取材의 多樣성과 編輯方向의 刷新을 기하기 위하여 11월 1일자로 各 部署別 編輯委員(委員長: 科 상만 教育資料部長)이 構成되었다.

○1986年度 本院 始務式이 1월 4일 講堂에서 있었다. 김 영식 院長은 全職員이 모인 가운데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맡은 바 所任을 보다 積極的인 姿勢로 임하여 教育現場의 어려운 問題點을 解決하는 데 最善을 다하고, 뜻을 세워 精進하여 더 強力하고 積極的으로 研究·開發·放送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국민학교 특활용

영어 배움책

- 배움책 1권, 카세트 테이프 5개
 값 : 7,500원
- 수업 지도서
 값 : 2,450원

연구·개발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보급 : 민족문화문고간행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245
 전화 675-1981~3
 ※ 판매처 : 전국 유명 서점
 ※ 방송시간 TV : 금(17:50~18:10)
 Radio : 월~토(12:25~12:35)

◆ 원고 공모 ◆

『교육개발』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내 용 : 논단, 연구 보고, 교육학 산책,
 교육학 이론, 현장 교육 연구 및
 사례, 교육 정보
2. 매 수 : 45매 내외(200자 원고)
3. 원고마감 : 수시 접수
4. 고 료 : 매당 2,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제 출 처 : 우편번호 135
 서울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한국교육개발원 출판실
 (전화 567-5021)
6. 제출된 원고는 본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게재합니다.

〈編輯委員〉

委員長	郭 相	萬
委員	姜 武	燮
	金 承	華
	南 美	英
	朴 慶	淑
	朴 德	圭
	朴 文	泰
幹 事	咸 熙	哲

(비매품)

격월간 교육개발 제 8 권 제 1 호(통권 40호)

1986년 2월 5일 인쇄 · 1986년 2월 10일 발행

발행인 김 영 식

발행처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전화 567-5021·5121

등록번호 등록 바-574

등록연월일 1975년 8월 20일

인쇄처 : 大韓教科書(株)